



8

주제 95(2006)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5(2006)년 제8호

(루계 제 706 호)

차 례

이 땅에 해와 달을 엮어준 날이여	3
해 방 덕	4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	4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5
오, 개선문	5
이마에 붙은 《훈장》	7
딸기가 익을 때면	9
총서 《불멸의 력사》의 첫 본보기작품이 나오기까지	10
김정일! 그대는 승리하시였어라	11
조국을 생각하면	12
솟는 해도 뜨는 별도	12
사연깊은 《별식》	13
혁명의 노래를 부르시며	14
주체문학의 대강	15
향기넘치는 산촌에서	15
마지막 왕진	19
낱지 않는 문서	34
나는 평화를 말한다	35
총잡은 새세대 우리가 있다 (외 1 편)	37
우리 다시 만나자	37
로병-시인의 심장의 노래	38
전선길의 철쭉꽃	40
안해의 소원	41
돌미산의 새 마을	46

한 돌격대원처녀의 이야기	46
범안리의 새 전설	47
내 사랑 평양아	47
우리 농장 전망도앞에서	48
조국이여, 나팔을 불어다오	49
우리가 여기에 서있는것은 (외 1 편)	50
너병사의 말	50
경구, 격언	50
내 사는 거리	51
행복의 시간표 (외 1 편)	52
딸애의 표창장앞에서	52
칠보산기행시초	53
봄	55
독 도	56
우리 민족끼리 (외 1 편)	66
통일의 노래	66
그 붓을 나에게	66
백두—한나행진길	67
압답이 운다 (외 1 편)	68
신통도 해라	69
쏘크라테스와 소설제목 《등에》	69
《춘생문사건》	70
리룩사의 문필활동과 시문학	71
변방으로 떠나는 노래 (외 1 편)	77
군사의 노래	77
병사의 노래	78
싸움터로 가는 러성제에게	78
대홍단해병	78
즐거운 바람이여 (외 1 편)	79
유쾌한 젊은이들의 행진곡	79
사계절이 모인 곳	80

이 땅에 해와 달을 얻어준 날이어

김휘조

쳐다보면

내 마음 부푸는 푸른 하늘

거리와 마을들엔 설레는 꽃물결

해방의 날이어

우리에게 눈부신 밝은 세상이

찾아온 날이어

너의 날을 맞으니 절로 생각깊어라

네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어떻게 영원한 우리것이 됐는지

생각깊어라 내 가슴에 먼저 울리는

우리 수령님 부르신 《압록강의 노래》와 함께

조국을 찾기전엔 돌아오지 않으리라

두터운 얼음장을 녹이던

포령의 그 맹세를 안고

너는 왔더라

바람세찬 안도의 등판 첫 무장대오가 높이 든

총대숲의 번뜩이던 섬광을 안고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가시덤불길

침침한 어둠을 헤칠 가장 큰 힘을

인민의 가슴에서 보시고

그들을 묶어세우시며 헤쳐오신 천만리

밀림에 노을처럼 불타던 붉은기여

서슬푸른 기상이

번개치며 굽이치던 긴긴대오여

너는 왔더라 해방의 날이어

이 땅의 운명을 감아쥔 총을 높이 들어

전투를 지휘하시던 수령님의 총성에 실려

일제의 가슴팍에 칼을 박으며

불타던 그밤들에

이끼푸른 나무그루터기에 앉아

한자한자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써가시던

그 새벽에 실려

만고의 영웅, 절세의 애국자

반만년 민족의 비운을 가셔주신분

세상이 진동하던 그이의 발걸음따라

부서지고있었구나

서리서리 이 땅을 휘감았던

망국노의 무거운 철쇄가

백두의 풀내배인 군복자락 날리시며

몸소 혁명의 진두에서 어둠을 헤쳐

쓰러진 동포들을 안아일으키며

항일의 대오를 이끌어오신 수령님

이 땅에 해방의 새날

눈부신 해와 달을 얻어주셨구나

아 해방의 날이어

너는 진정 거래의 시들은 가슴에서

서러운 눈물을 닦아준 그이의 손길이였고

세상처음 밝은 하늘아래

감격과 환희를 안겨준

수령님의 위대한 승리의 빛발이여라

영원히 빛나라 해방의 날이어

우리 수령님 찾아주신

인민의 복된 삶, 복된 세상

눈부신 해빛속에 무궁할 세월이여!

해 방 덕

리광선

난생처음 이 땅에
제 이름 새긴 표말을 쿵쿵 박으며
분여지 이랑을 눈물로 적셨다는
해방덕은
그날의 부모들만의것이던가

공장의 주인된 기쁨이 너무도 커
밤새워 일하면서도
마냥 힘든줄 몰랐다는
그 해방덕은
추억으로만 남아있는것인가

세상에 태어나 마흔해
흘러온 나의 생을 더듬어보노라
때가 되니 응당 학교로 갔고
때가 되니 응당 공민이 되었고...

마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에 부럼없이 꽃피운 나의 생
그것이 바로 해방덕에서 이루어진것임을
내 다 알고 살아왔던가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인민의 세상을 펼쳐주신
우리 수령님이 고마워
우리의 부모들 눈물로 받아안은

가사

해방덕

하늘같은 그 덕을
너무나 응당한것으로 받아안으며
사회주의 내 조국 따사로운 그 품에 안겨
만복을 누려온 나의 생이여

진정 해방덕은
난생처음 사람이 사람답게 산
그 한 세대의 덕이 아니라
세월을 이어 우리 인민이 누리는
행복중의 행복이거니

수령님 안겨주신
이 행복을 가꾸기 위해서라면
수려한 우리 조국강산에
내 한그루 나무라도 더 심어가꾸리
이 행복 짓밟으려는 원썩들과는
한몸바쳐 싸워 이기리라

오 해방덕
인민의 이 덕을 지켜주시려
선군의 천만리를 헤쳐가시는
위대한 어버이 우리 장군님 계시여
해방덕은 수령님의 덕으로
천세만세 이 땅에 영원하리라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

리창혁

반만년을 이어온 민족의 녀도
총대약해 총대약해 짓밟히었네
피맺힌 이 원한 총대로만 갚기에
한몸바쳐 투사는 넘겨주었네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

혈전만리 혁명의 길 간고하여도
총대잡은 가슴에는 용맹 솟았네
부모형제 사랑도 총대에 쏟으며

밝은 앞날 그려온 투사의 부탁이여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백두산총대는 새겨주었네
장군님 받들어 더 높이 들라고
투사들의 그 웨침 우리들을 부르네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일본제국주의를 격멸하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최후결전의 준비는 히틀러독일이 패망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일본의 패망은 우리의 선대들이 눈을 감으면서도 바라던 념원이였고 우리 인민이 수십년동안 무수한 고통과 희생을 당하면서도 피를 물고 즐기치게 튼튼한 항쟁의 종착점이였습니다.
일본의 패망으로 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앞에는 휘황찬란한 재생의 길, 부흥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패망소식을 들은 날은 온 나라가 다 울었다고 합니다. 평양의 련광정과 을밀대앞에서는 하루종일 춤판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백두산이 조종의 산으로서 조선의 만산을 거느리고있는것처럼 백두밀림에서 개척되고 발전해온 우리의 항일무장투쟁은 민족적해방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주류를 이루고있습니다.》

《조선의 해방은 20성상에 걸치는 항일혁명투쟁의 총화인 동시에 해내외의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이 수십년동안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희생을 무릅쓰고 거족적으로 벌려온 영웅적인 항전의 결산이라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추억에 남는 시◇

오, 개선문

신진순

개선문

오, 개선문

솟아올랐구나 드높이

터져오르는 환호

넘쳐나는 꽃물결에 받들려

개선문

아름다운 네 모습

진주로 빛어냈나

옥으로 다듬었나

고결한 자태

위대하신 장군님의

그 뜻 그 기상 담고 거연히 솟아

민족의 환호소리 내 귀에 쟁쟁코나

만세!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

천지를 진감하던

환호의 소용돌이

감격의 폭풍이여

내 심장깊이

오늘도 파도치는 행복의 메아리여!

웃고계신 장군님

인산인해 뿜어번지는 개선평장

높은 연단에 해빛처럼 웃고계시던

아, 우리 장군님!

꿈이런가 두눈 부비여도

꿈이 아니었다

김일성 장군님

칠칠암야 기나긴 세월
암흑속에 솟아오른 백두산 장수별
마음의 하늘에 태양으로 솟아
사슬에 휘감긴 삼천리강토가
몸부림치며 바라고 기다리던
오, **김일성** 장군님!

조선의 희망

조선의 기상

김일성 장군님이시였다!

존망의 기로에서

민족 반만년의 삶을 안아올리신

김일성 장군

피바다를 건너 불산을 넘어

백전백승 무적의 대오 거느리시고 오신

김일성 장군님이시였다!

장군님 높은 연단에

혜성처럼 웃고계시고

가슴에 안은 꽃다발우에

방울방울 흘린 눈물

기쁨의 눈물이런가

행복의 눈물이런가

오늘도 내 가슴 적시여

꽃다발안고 나 여기 섰노라

만경대고향집 사립문 나서시여

자옥자옥 뚫아가신 피어린 자옥

인류력사 아직 모르는

거룩하신 발자취 삼가 더듬어

나 오늘 여기 섰노라

개선문

오, 개선문

장군님영상 오늘도 여기 웃고계시여
하늘은 이처럼 드높은것이라!
강물은 이처럼 푸르른것이라!
세기의 암흑 영원히 건너버리고
삼천리에 태양을 맞던 그날
조선은 광휘 떨치며
사랑의 그 품에 새로 태어났더라

그날은 오늘로 잇닿아

래일로 계속되는 영원한 날

조선의 심장들은 수령님 두리에

하나의 맥박, 하나의 숨결로

영원히 뭉치였나니

민족의 거창한 진군

이 땅우에 기적을 창조하며

주체조선

천리마의 우렁찬 발구름소리

지축을 흔들며

달려가노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세계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개선문

오, 위대한 력사의 증견자여!

유서깊은 모란봉기슭에

그 모든 깊은 뜻 소중히 안고

그날의 환희 그날의 열정으로

영원히 아름답게 빛발치라!

내 가슴속에, 민족의 가슴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빛발치라!

주체71(1982)년

이마에 붙은 《훈장》

대마록구전투가 있는 직후 왜놈병졸 요시무라는 유별난 《훈장》을 달고다녔다.

훈장이라면 전투에서 세운 공로나 무훈을 표창하여 주는것이니 그것은 대개 앞가슴에 다는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유독 요시무라만은 이마에다 《훈장》을 붙이고 다니었다.

요시무라는 관등급상으로 보면 아침저녁 고참들의 발길질에 코밑언저리에 늘 피가 마르지 않는 일개 병졸이요 말뚝다귀처럼 생긴 긴 상판에 마마자국이 승승하여 볼데라고는 조금도 없는 속된 말로 허집쓰레기같은 작자였다.

그에게 좀 남다른것이 있다면 중처럼 머리를 뽀뽀 깎아내린 퇴박이마의 오른쪽에 보기에도 끔찍스러운 흉터가 있는것이였다.

이제는 상처가 거의 아물어 봉대도 풀어버리고 열십자로 붙였던 반창고도 떼내어 다소 끔찍스러운것이 그만해졌다고 위안을 가질수도 있겠지만 씹다뺨은 대추씨같은 흉터는 사람들의 눈에 인차 띄웠다.

바로 이 흉터가 병졸 요시무라에게는 하루아침에 《대일본제국》의 《영웅남아》로 되게 해준 《영광》의 표적이며 이제 말하려고 하는 유격대의 《훈장》이라는것이였다.

바로 며칠전의 일이었다. 대마록구가 유격대에 의해 녹아났다는 정보를 받고 즉시에 총출동한 왜놈 《토벌대》는 어느 한 산골짜기에서 눈우에 난 발자국을 발견했다.

《유격대 발자국이다!》

《토벌》대장놈의 자신만만한 소리에 《토벌대》놈들은 갑자기 긴장해져서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요시무라는 수차의 《토벌》경험에 의하여 신출귀몰하는 유격대가 일부러 눈우에 발자국을 내고 사라졌음을 간파했다. 사위를 두리번거리니 밀림속에 뻑뻑이 들어선 나무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것 같았고 난데없는 바람이 터지는걸로 보아 이것도 유격대가 조화를 부리는것이라고 생각했다.

겉기를 먹고 사지를 와들거리던 요시무라는 서너걸음앞의 큰 바위를 발견하자 급기야 《유격대다!》하고 소리치고는 바위밑에 납작 엎드렸다.

아닐세라 때를 같이하여 산중턱에서 불벼락이 쏟아져내렸다.

뚜루룩 뚜루룩... 유격대의 기관총이 불을 토할 때마다 《토벌대》놈들은 밀둥잘린 나무토막처럼 쿵쿵 빠드라졌다. 《토벌》대장놈을 비롯한 술한제 동료들이 자기처럼 명석한 두뇌를 가지지 못

한탓에 저승으로 가버렸다.

《맙소사!》

요시무라는 결정적인 운명의 순간에 자기앞에 큰 바위를 세워준 운명의 신에게 감사라도 드리 고싶었다.

그런데 전투가 끝나갈무렵 요시무라는 그만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저질렀다. 까투리모양으로 무작정 머리를 쳐박고있다가 사위가 너무도 조용한게 이상스러워 빠끔히 퇴박이마를 내밀었다

순간 《핑!》하고 눈달린 유격대의 총알이 퇴박이마가죽을 꿰고 빠져나갔다. 하여 요시무라는 기절한채로 마대짝에 돌돌 말려서 제놈들의 병원으로 실려오게 되였다.

육군병원침대에서 깨어나보니 이마는 되게 터졌어도 큰 치명상은 아니였다. 그는 발가락을 눌러보고 손가락도 꺾어보았다. 몸도 뒤통져보았다.

분명 팔다리가 몸통이에 붙어있는것이 알리였다.

《맙소사!...》

요시무라의 입에서는 거의 환희에 가깝게 이 말이 흘러나왔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함께 갔던 동료들이 모두 목없는 귀신이 되였거나 살았대도 팔다리가 부서지고 목대가 부러져 만신창이가 되였는데 자기만은 요행 이마를 조금 다쳤을뿐이었다.

이게 운명의 신이 그 어디선가에서 자기를 보살펴주고있다는 《계시》가 아닐가.

물론 머리의 동통이 멎지 않고 빠개질듯 쑤서났고 이마며 눈두덩이가 주먹만큼 부어오르기도 했다. 어떤 날은 너무도 고통스러워 헛소리를 질러댔다.

요시무라는 이것역시 신의 의사에 따르는것이라고 생각했다. 신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장난을 끝장내고 오래지 않아 행운을 가져다주리라는것도 믿어의심치 않았다.

요시무라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다.

첫 행운은 요시무라에게 너무도 슬그머니 찾아들었다.

그가 병원으로 실려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기자들이 그를 찾아 한무리 달려들었다.

김일성장군유격대와 접전이 있었다는 소식을 어디서 얻어들었는지 면회허가를 받아내어 요시무라를 찾아온것이었다.

《토벌》사령부의 우두머리들은 찰거마리처럼 달라붙어 《토벌대》의 건물이요 뭐요 시끄럽게 구는 기사들에게 그런것이 아니라고 하며 그 전투

에서 용맹하게 《싸우다》 부상을 입은 한 황군병사를 직접 만나보라고 했었다.

그 용사가 바로 요시무라로 되었다.

기자들은 머리에 온통 붕대를 감은 요시무라를 사진기의 렌즈에 담으며 질문을 소나기처럼 퍼부었다.

《당신이 무적의 용사 요시무라군인가요?》

《당신의 눈으로 직접 김일성장군유격대를 보았습니까?》

《그들은 몇명이나 되던가요? 무섭지 않던가요?》 별의별 질문이 다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요시무라는 일약 《영웅》으로 되었다.

다음날 일본의 여러 신문들에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야마도의 용사》라는 큰 표제아래 붕대를 칭칭 둘러감은 요시무라의 말상판이 나있었다.

한 신문은 이렇게 썼다.

《요시무라군의 이마에는 김일성장군유격대가 기념으로 준 <훈장>이 붙어있다.》

야유를 섞어쓴 이 기사로 하여 요시무라는 정말로 《유격대훈장》을 탄 일본남자로 소문이 났다. 한호실의 병졸놈들도 그가 부러워 눈길을 다시 돌리었고 옆방과 지어는 병원의 군의들, 어깨에 무겁게 별을 단 관동군 고급장교들까지도 그를 보려고 찾아왔다.

어쨌든 요시무라는 신의 덕분인지 유격대의 덕분인지 그 되박이마에 보배스러운 《훈장》을 붙인셈이었다.

다행히도 그와 함께 《토벌》에 참가했던 놈들은 모두 뒤통수부터 그 전투내용을 아는것은 요시무라 혼자뿐이었다.

요시무라의 이마에 붙인 《유격대훈장》의 힘은 대단하였다. 그것으로 하여 그는 고급료정들에서 열리는 축하연에도 참가하였다. 매일같이 《초청장》들이 날아왔다.

사실 기름진 음식과 아름다운 녀인들이 있는 호화로운 좌석은 일반적으로 《토벌》대장들도 넘겨다보기 어려운 자리였다.

일본 《천황폐하》가 하사한 《훈장》들을 앞가슴이 모자라게 패용한 고급장교들과 제노라하는 유지들이 거룩하게 앉은 그런 자리에서도 《유격대훈장》이 제일 눈길을 끌었고 이로 하여 요시무라는 더욱 불멸의 《영웅》으로 떠받들렸다.

요시무라는 그들앞에서 즐겨 《무훈담》을 이야기하곤 했다.

가슴치는 생눈길을 헤치며 《토벌》에 나갔던 일, 눈우에 난 유격대의 발자국, 비발치는 불벼락...

처음 한두번은 그때의 전투정황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으나 《토벌》사령부의 한 우두머리가 되도록이면 유격대를 《무찌른》이야기를 하라고 충고를 주는 통에 조금씩 내용을 교쳐말하기 시작했다. 하여 모든것을 꺼꾸로 말해버렸다.

유격대가 신출귀몰한것이 아니라 《토벌대》가 신출귀몰했고 《토벌대》가 유격대를 《소멸》했고 《토벌대》가 《불벼락을 퍼부었다》고.

마감에는 돼지먹파는 소리로 군가를 부르곤 했다.

그런 일이 잦아질수록 요시무라에게는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그것은 이마의 상처가 겉으로는 다 아물어가는 데도 못건디게 찌서나고 골통이 빠개질듯 아픔이 더해가는것이였다. 밤마다 그 아픔으로 하여 몸부림을 치다못해 눈에 보이는데로 깨고 부시고 소동을 일으키기까지 했다.

군의들과 간호원들도 그의 상처자리를 보고는 영문을 알수 없어 했다.

요시무라는 돌처럼 무거운 머리를 싸쥐고 고통에 시달릴 때면 신이 자기에게 너무 장난을 친다고 생각을 했다. 운명의 신은 행복과 불행능을 사로 안다고 한다. 그런데 하필이면 전장에서 나에게 구원의 손을 뻗쳐 행운을 주고서도 다시 이런 고통을 준단 말인가.

그러다가 어느결에 피곤했던 생각으로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마에 붙은 《유격대훈장》이 조화를 부리는것이 아닐가 하는 그것이였다.

유격대와 맞다면 자기는 매번 총을 버리고 쫓무니를 빼지 않았으면 머리를 땅속에 처박고있었다.

이번 전투에서도 요행 바위덕분에 총 한방 쏘지 않고 살아남을수 있었다. 그래서 유격대가 정말로 《훈장》을 준것이나 아닌지...

그 《유격대훈장》으로 하여 자기에게는 온갖 영화가 차례졌고 《영웅》으로 떠받들렸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요즘에 와서는 유격대를 헐뜯고 모든것을 꺼꾸로 력설했으니 유격대가 가만둘리 있겠는가. 그래서 이마에 붙인 《훈장》이 조화들 부리게 해서 이 고통을 주는것 같았다.

땅을 주름잡고 승천입지하는 유격대가 이쯤한 조화를 부리는것쯤은 사실 놀라운것이 못되었다.

《요시무라 이놈! 어떻게 네놈이 감히 그런 말을 할수 있느냐. 네놈이야말로 조선인민혁명군이 내리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밤마다 추상같이 꾸짖는 그 소리는 분명 백두산 쪽에서 들려왔다. 문득문득 서리발장검이 자기 목을 향해 떨어지는 꿈을 꾸기도 했다. 어느 하루도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자기에게 차례지는 고통이 신의 장난이 아니라 대노한 백두산이 내리는 벌이라는것을 요시무라는 확고히 깨달았다.

그의 눈은 점점 흐리멍텅해지고 기세충천했던 《영웅남아》의 용맹은 언젠가실게 사라져버렸다.

그의 입에서는 더이상 혁혁한 《토벌대》의 무훈

답이 나오지 못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아픔이 멎었다.

군부의 그 어떤 설복이나 위협에도 그의 입에서는 그전날의 《자랑스러운》 전과를 들을수 없었다.

하여 요시무라는 본국으로 쫓겨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토벌대》의 무훈을 위해 요시무라가 필요했고 《영웅남아》가 되어야 했던것이다.

의사들이 그가 쫓겨가기 앞서 《훈장》을 붙였던 이마에 자그마한 파편이 있다는것을 감정해냈다. 그 파편이 조화를 부려 유격대를 험뜯고 거짓말을 늘어놓은 요시무라를 벌했다는 말이 수군수군

돌아갔다.

여하튼 본국으로 쫓겨가는 날 요시무라는 자기가 받은 《유격대훈장》을 자랑스럽게 만져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비로소 처음으로 자기는 진짜 《영웅남아》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실토했다는것이였다.

그 《훈장》, 《영웅남아》의 기질(그것이 공포와 비겁성으로 나타났지만)로 하여 목숨이나마 부지해가는게 아닌가.

그때로부터 관동군내의 상층부는 물론 병졸들속에서는 《유격대훈장》이야기가 전설로 되어 급속히 퍼졌다고 한다.

딸기가 익을 때면

박세옥

딸기가 익을 때면

동구길을 바라본다네

그날처럼 수령님

문득 들리실것만 같아

딸기가 한창 무르익던

그날 마을에 오신 수령님

딸기밭을 찾으시였네

바구니에 담긴 딸기를 보시고

탐스럽다고 치하하셨네

우리 고장의 자랑인

딸기맛을 보여드리고싶어

바구니의 딸기를 골라 올리자

밭에 와서 판것을 먹겠는가

딸기밭에 들어서시였네

여기저기 붉게 타는

딸기를 바라보시며

빨간 딸기를 따드신 수령님

과일상점 딸기매대앞에 흥성이던

아이들과 녀인들을 생각하시며 말씀하셨네

딸기밭이 작다고 딸기밭을 늘이자고

지금은 농장마다에

큰 딸기포전들이 있어

과일차들이 들어오고 나간다네

탁아소 유치원아이들이

여름날의 시원한 딸기즙을 먹는다네

인민들의 행복한 그 모습을 볼 때면

밭에서 따드셨던

한알의 딸기조차 드시지 않으시고

바구니에 놓고가시던

수령님을 두고두고 잊을수 없네

오시면

우리 마을에 오시면

인민을 위해 그리도 마음쓰시던 수령님께

온밭의 딸기를

다 따드리고싶은 마음

딸기가 익을 때면

그 마음을 담아 붉게 탄다네

동구길을 바라보며

붉게붉게 탄다네

총서 《불멸의 력사》의 첫 본보기작품이 나오기까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수령의 위대성을 잘 그리는것이다.》

수령형상창조를 위해 작가들이 처음으로 붓을 들었을 때 제일 어렵게 생각한것은 세상사람들이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위인으로 한결같이 우러러마지 않는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의 전모를 어떻게 문학적형상으로 재현하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것을 옳게 해결해나가자면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존엄있게, 가장 감동적으로 창조해내야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제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의 창작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리하여 몇달을 고심하여 쓴 원고를 뒤집고 그런 다음에는 처음부터 창작을 다시 시작하던 힘겨운 창작의 그 나날에 이러한 그들의 고충을 환히 헤아리는 은혜로운 품이 있었으니 정녕 그품은 바로 위대한 **김정일** 동지이시였다.

창작의 붓을 들었던 때로부터 어지간히 날이 지난 주체60(1971)년 8월말의 어느날이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의 창작을 맡은 작가는 당중앙위원회 한 일군으로부터 것처럼 막막하게 생각하던 창작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아안게 되였다.

그때 작가와 마주앉은 지리에서 두툼한 원고의 갈피를 번져가던 그 일군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원고의 한 대목에 대한 실례를 드는것이였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세상에 선포하신 후 남만으로 원정을 떠나시기 전 안도 소사하의 집을 찾으시여 병환에 계신 어머니와 마지막작별을 하시였던 력사적사실을 재현한 장면이였다.

그때 작가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의 형상이니만큼 존엄이 있어야 한다는 그 생각만을 앞세우던 나머지 이 감동깊은 장면을 인간관계를 벗어나 격식화된 필치로 그리였다.

그러다나니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를 감동깊이 형상할수 없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그렇게 격식화해서는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형상을 감동깊게 창조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어디까지나 혈육의 정이 뜨겁게 넘

쳐나는 모자간의 인간관계의 감동적인 화폭을 펼쳐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작가는 좁은 골짜기에서 해매이다가 환히 사위가 트인 넓은 들에 나선듯 한 심정이였고 온몸에는 창작적의욕이 용융한 물결처럼 차넘치는듯싶었다.

그것은 비단 위대한 스승앞에서 창작의 비결을 터득하고 령감을 받아안았을 때의 그러한 흥분과 환희만이 아니였다. 그것은 한없이 위대하고 숭고한 세계앞에서만 체험할수 있는 가장 숭엄한 감정이였다.

인간관계를 격식화하지 말며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작가에게 수령형상문학창조에서 또하나의 중요한 방도를 가르쳐준것으로 되였다.

인정이 넘쳐흐르는 정다운 소사하집장면뿐 아니라 어머니의 분묘앞에 동생들과 함께 서제시는 장면, 로혹산의 산전막 아궁이앞에서 토끼다리를 굽는 장면들이 그후 한결음한결음 생활의 진실에 접근하게 된것은 이 가르치심을 창작의 지침으로 삼았기때문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지만 인민앞에서는 소박한 인간으로도 되시고 부모앞에서는 효성이 지극한 아드님이 되시여 기쁨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시는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다.

사실 이 문제는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그 어느 작품에서나 해당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문학창작에서 산 인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감정과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려주어야만 한다.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산 인간을 생동하고 감명깊게 그릴수 없으며 개념화와 추상화에서 벗어날수 없다.

수령형상의 경우도 여기서 예외로 되지 않는다.

위대한 인간일수록 감정정서가 풍부하며 내면세계가 깊다. 이로부터 감정정서와 내면세계를 그 어떤 인물보다 더 힘을 넣어 알심있게 잘 그리는 문제는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수령의 품모와 인간세계를 깊이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작가는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의 소사하집장면에서 베개를 내려주시는 강반석어머니의 손에 눈길이 미치신 수령님의 내면세계를 섬세하고 감명깊게 그리여 수령님의 고결한 품성과 심원한 인간세계를 훌륭히 펼쳐보임으로

써 이 문제의 정당성을 확증하였다.

마디가 굵고 거칠어지고 살이 빠진 어머니의 손, 수령님께서 어린 시절에 보신 어머니의 손은 그렇지 않았다.

대동강가 빨래터에서 아드님을 세면시켜주시던 어머니의 손은 부드럽고 희였으며 물을 움켜쥐어도 새지 않던 그런 손이었다.

험난한 세상의 가시덤불속에서 삶의 길, 싸움의 길을 그 손으로 헤치셔야 했으니 이처럼 거칠어질수도 있다고 할수 있겠지만 경애하는 수령님께 그것은 너무도 가슴아프신 사실이었다.

소설은 바로 이런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줌으로써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가장 높은 경지에서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인간이신 우리 수령님의 풍모를 감명깊게

형상할수 있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뜨거운 사랑속에서 작가는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을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지도, 빛나는 예지, 작가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은 거목으로 자라나게 될 총서라는 나무에 첫 돌기의 년륜을 감아올렸을뿐아니라 앞으로 무수히 태어나게 될 총서 《불멸의 력사》의 첫 본보기로, 로동계급수령형상을 대서사시적화폭으로 창조하는데서 돌파구를 열어놓은것으로 되었다.

김정일! 그대는 승리하시였어라

알렉산드르 브레주네프

온갖 꽃이 피어나는 계절
나는 김정일동지의 로작을 탐독한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배신이 살판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이 로작은 정의의 보검
나는 하늘에 대고 웨친다
《김정일, 그대는 승리하시였어라!》

악의 바람도
음산한 울부짖음도
조선식사회주의의 발구름소리를
이길수 없거니

돈이나 재부는 비록 없어도
나는 이 로작을 보물과도 같이
가슴에 껴안는다
그리고 세상에 대고 웨친다
《김정일, 그대는 승리하시였어라!》

개혁개방의 무서운 독을 맛본 나는
회오와 수치감에 가슴치나니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알아야 하리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이 로작을 읽지 않는 한
그가 누구이든
눈도 귀도 다 잃게 된다는것을

나는 소리높이 웨친다
《김정일, 그대는 승리하시였어라!》
조선이여 그 누구보다
나는 그대를 제일로 사랑한다
사회주의보루이고 희망의 샘줄기인 그대를

주체사상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주거니
나는 온 우주 온 세계에 대고
소리높이 웨친다
《김정일! 그대는 승리하시였어라!》

조국을 생각하면

김석주

왜서인지
조국을 생각하면
전선길들이 떠오른다
병사들의 전호에 가닿은
그 벼랑길이
눈보라 사납던
북방 천리길이
긋은비 뿌리던
언제건설 강변길이...

왜서인지
조국을 말할 때면
전선길 일화들이 떠오른다
눈비에 젖은 야전복을 말리시던
저물녘의 그 모닥불을 생각한다
삼복철 목을 추기시던
길가의 그 썸물을 생각한다
바람찬 로상의 쪽잡과
언 췌기밥을 생각한다...

전선길 천만리
걸음걸음 새기신
그런 심혈

가사

그린 로고
그런 헌신이 세상에 또 있더나
조국이며 너를 생각하면
가슴후더이 안겨온다
비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머나먼 전선길에서
한몸 애국에 불태우시며
한생 애국에 사시는
그 거룩한 모습

아아
눈굽이 뜨겁게 어려온다
무거운
조국의 운명을 걸머지고
쉽없이
들을 지나
고개를 넘고
령을 넘어가시는
우리 장군님 그 모습이...

쫓는 해도 뜨는 별도

김충기

그날처럼 장군님 이 아침엔 오실가
쫓는 해도 간절한 소원안고 불타네
아, 병사의 마음속에 먼저 쫓는
초소의 아침해는 그리움의 해
이 저녁엔 장군님 그 어디에 계실가
뜨는 별도 간절한 념원안고 빛나네

아, 병사의 마음속에 먼저 뜨는
초소의 저녁별은 그리움의 별
쫓는 해도 장군님 그리움에 불타고
뜨는 별도 장군님 그리움에 빛나네
아, 자나깨나 그 품만 따르며 사는
병사에겐 언제나 승리만이 있다네

사연깊은 《별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을 사랑하고 아끼며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발현입니다.》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시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나날들을 돌이켜볼 때면 먼저 떠오르는것이 그이께서 전선길에서 드시던 췌기밥에 대한 이야기이다.

소금에 절인 무우쪽을 박아넣은 한덩이의 췌기밥과 한공기의 죽, 몇알의 구운 감자와 도토리묵...

얼마나 많고많은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눈굽을 뜨겁게 적셨던가.

그러나 우리 병사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야전식사라고 목메여 부르는 이 이야기가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에 시작된것이 아니라 40여년을 헤아리는 그이의 선군혁명령도사에서 수없이 반복되어왔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것이다.

1980년대 중엽의 어느날에 있었던 일이다.

그날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식사시간이 지나도록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오랜 시간 당사업과 국가사업에서 제기된 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회의가 거의 끝날무렵이 되여 한 일군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경애하는 장군님께 무슨 말씀인가 드리고 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임이 끝나 일군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런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들 좀 앉으라고 손짓하시였다. 일군들은 또다른 문제가 제기되었는가싶어 그 자리에 다시 앉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제 무슨 과업을 주시겠는가 하고 긴장해있는 일군들에게 너그러운 미소를 보내시며 함께 강냉이죽을 맛보자고 그런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밖의 말씀에 모두들 긴장을 풀며 시계를 보니 벌써 식사시간이 꼭 지난 때였다.

이어 강냉이죽이 들어왔다. 그런데 순 통강냉이로 쪄낸 죽이었다.

죽그릇을 본 일군들은 서로 마주보며 의아함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냉이죽을

맛보자고 말씀하실 때 속으로는 그래도 좀 다른 특별한 음식이 아니겠는가고 호기심을 품었던것이다.

아무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검소하신 생활을 하신다 해도 일반주민들의 식생활에서도 흔치 않은 강냉이죽, 그것도 순 통강냉이를 푹 삶은것밖에 다른 가공을 하지 않은 통강냉이죽을 드시다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이 선뜻 수저를 들지 못하는 심정을 헤아리신듯 소탈하신 모습으로 어서들 들라고 권하시며 자신께서 먼저 드시였다. 일군들은 불덩이같은것을 삼키며 말없이 수저를 놀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죽맛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시며 수저를 드신채 일군들에게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맛이 꽤좋은것 같다고도 하고 그만하면 잘 쏜것 같다고도 하면서 어정쩡한 대답을 올렸다. 사실 통강냉이를 푹 삶아서 쏜것이여서 구수한 맛은 있어도 특별히 구미를 돋구는 음식은 못되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심정이 리해되는듯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동무들의 입에는 어떤지 몰라도 자신의 구미에는 딱 맞는다고 말씀하시였다.

추억깊으신 눈길로 창밖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시절에나 해방후에나 어머님께서 뉘여주시는 통강냉이죽을 맛있게 들군하였다고, 그러던 생각이 나서 지금도 자주 통강냉이죽을 쑤게 한다고 감회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쑤주는 통강냉이죽은 어머님께서 쑤주시던것만 맛이 못하여 항일혁명투사유가족어머니에게 이야기했더니 오늘 이렇게 성의껏 쑤왔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동무들도 못살던 때에 통강냉이죽을 많이 먹어보았겠는데 지금도 가끔 그런것을 들어보면 지난날도 돌이켜지고 혁명을 더 잘해야 하겠다는 마음도 가다듬게 될것이라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사연깊은 통강냉이죽, 거기에 어리실 때부터 빨찌산밀영에서 성장해오신 우리 장군님의 혁명적신념과 의지가 숨배여있고 억척만반 죽더라도 혁명을 하겠다는 항일빨찌산의 백철불굴의 혁명정신이 어려여있는것이 아니라.

혁명의 노래를 부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자옥이 어려있는 청진시를 찾으면 조국이 갓 해방된 그날에 김정숙동지께서 부르신 사연깊은 노래가 오늘날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조국해방을 맞이한 인민들의 환희가 온 강산에 넘치던 주체34(1945)년 청진시에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환영하는 모임이 진행되었다. 환영모임이 끝난 뒤에 청진시 한 예술단체 예술인들의 축하공연무대가 펼쳐졌다.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백두밀림을 헤치시며 일제와 싸우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칭송하고 조국개선을 축하하는 예술인들의 공연이 끝났을 때였다.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의 뛰어난 인품에 이끌린 모임참가자들은 어려움도 있고 그이께 노래를 불러주실것을 요청하였다. 열렬한 박수갈채가 장내를 뒤흔들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만면에 해빛같이 밝은 미소를 담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었다. 그러시고는 조용한 음성으로 인사말씀을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저는 먼저 이 뜻깊은 자리를 베풀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자리를 같이하고보니 친부모형제들과 친척들, 고향사람들을 만난것처럼 반갑고 감개무량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백두밀림에서 일제놈들과 싸울 때 고향이 그림고 여러 동무들이 그리울 때마다 부르곤 하던 노래 한곡을 부르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끝없는 감회에 잠기시여 노래를 부르시었다. 그 노래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시항가》**였다. 모임참가자들은 노래의 깊은 뜻과 숭엄한 감정에 어찌나 심취되었던지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다.

김정숙동지께서 노래를 끝마치시자 커다란 감동에 휩싸여 재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올랐다. 한없이 겸허하신 그이께서는 선선히 재청을 받아주시었다. 참으로 격동적인 시간이 흘렀다. 모임참가자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며 그이의 노래를 더 듣고싶어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심정을 헤아리시고 관중의 앞자리에 앉아있던 항일의 녀투사들에게 의미있는 시선을 보내시었다. 모두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하시는 뜻이었다.

항일의 녀투사들은 그이를 가운데 모시고 나란히 서서 **《유격대행진곡》**, **《녀성해방가》**를 불렀다. 장내에는 전투적인 기백이 흘러넘치는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가슴마다에서 붉은 피가 끓어번지게 하였다.

며칠후 어느날이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청진시 녀맹원들과의 좌담회를 가지시었다. 좌담회가 끝나자 곧 오락회가 벌어졌다.

이날의 좌담회에는 예술인들의 축하공연 때 **《타향살이 몇해던가...》**라는 슬픔에 찬 노래를 불렀던 너가수도 참가하였는데 그가 첫 노래를 불렀다. 그는 혁명가요 **《적기가》**를 힘차게 불렀다. 지난번에 김정숙동지께서 부르시는 노래를 듣고 그는 자신의 무대생활을 돌이켜보며 혁명적인 노래, 투쟁의 노래로 인민들을 새 조국 건설에로 불러일으켜야 한다는것을 깨닫게 되었던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게 성장한 그를 보시며 못내 기뻐하시었다.

너가수는 노래를 다 부르고나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담아 김정숙동지께 노래를 불러주실것을 말씀드리었다.

그의 청을 받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께서도 이런 오락회를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노래를 부르시기에 앞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며 우리는 유격투쟁을 할 때 밤마다 우등불가에 모여 앉아 유쾌한 노래와 춤으로 그날의 승리를 축하하기도 하고 5.1절이나 3.8절같은 명절에는 여러가지 예술공연도 하였습니다, 유격대에서 노래는 하나의 생활로 되어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적을 눈앞에 둔 고지에서 씩씩하게 혁명가요를 불러놈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으며 식량이 떨어져 며칠씩 굶는 간고한 행군의 휴식참에도 노래로써 새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어 불후의 고전적명작 **《반일전가》**를 부르시었다. 그이의 노래는 좌담회 참가자들의 가슴을 다시금 뜨겁게 격동시키었다. 그들은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울 결의를 굳게 다지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부르시고 가르쳐주신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는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그들을 새 조국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그날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렀으나 해방된 조국에서도 백두산시절처럼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부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 조국건설로선 관철에로 인민들을 불러일으키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충성의 노래, 승리의 노래높이 전진하는 선군혁명충진군길우에 더욱 찬란히 빛나고있다.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을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문화발전의 성과를 담보하는 근본요인이다.》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창작과 건설에 대한 정책적지도이며 정치지도이다.》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령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품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령도이다.》

《문학사업에 대한 정책적지도와 형상적지도를 옳게 결합시켜야 한다.》

《문학사업을 정책적으로 지도한다는것은 문학창작사업을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정책적대를 바로 세우도록 장악통제하고 이끌어준다는것을 말한다.》

《문학사업을 형상적으로 지도한다는것은 문학창작의 특성에 맞게 작품의 사상에술적수준을 높이도록 작가의 창작과정을 이끌어주는것을 말한다.》

《문학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려면 문학부문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시조

향기넘치는 산촌에서

박경심

길은 아니막혔는데...

그대는 아시는가
신령의 자랑 도화동을
산이 많아 산경치가 자랑이던가
물소리 새소리 아름다운 도화동은
황해의 절경, 애기금강이라지

그뿐인가 했더니
예나제나 신령의 자랑은
그뿐인가 했더니
아니라네 자연의 조화보다
더 아름다운 경치가 있다네

때마침 수확의 계절이라

열매도 금빛열매
나무도 황금나무
다리도 길도 마을도
온통 감살구향기에 묻힌 마을

예가 바로
그 이름도 정다운 감살구마을
집집의 정원가득 감살구숲 우거진 동네
백년을 열매 따는 감살구나무처럼
살아 백년 젊음이 가지 않는다는 청춘마을

길은 아니막혔는데
나는 걸음 멈추고말았네

타는듯 무르익은 감살구의 금빛에 이끌려
실려오는 감살구향기에 목메여

천년세월도 가져오지 못했고
대자연도 창조할수 없었던 이 선경, 이 황홀경
내 노래에 못담으면 한이 되리

그냥은 못지나가 못지나가
나는 그만 갈길 잊은 길손 되고말았네

선군시대 태어난 또 하나의 도화동
아 감살구마을에서

아름다운 이 다리위로

누가 지은 이름이기에
이러히도 아름다우나
남강에 드리운 전변의 무지개
다리여 감살구다리여

어서 오라고
행복의 기슭으로 어서 건너오라고
따뜻이 내미는 그 뉘의 손길인듯
마음속에 정다움을 불러주는 다리

허나 나는
그 손길 쉬이 잡을수 없구나
그 정다움을 가슴에 안고서는
가벼이 걸음 가벼이
이 다리위로 건너갈수 없구나

들려오누나
너의 이름 지어주신 위인의 그 음성
쓰다듬고싶어라 너의 란간 그 하나하나를
쓰다듬고 또 쓰다듬으니
가슴에 차오르는 그이 생각

저 길에서였지
전선으로 오가시던 저 길에서였지
이처럼 넓고 큰 다리가 없어
흔들리는 줄다리로 건너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차들은 에돌아다니는 30리길이

그이의 차창에 아프게 비껴든것은

자신은 하루에도 천리 먼길을 가시건만
길을 조금 에돌아가는 인민이
그리도 가슴에 걸리시여
작은 줄다리가 있던 강우에
억년이 가도 흔들리지 않을 새 다리를
놓아주신 장군님

그이가 아니시면
내 어이 이 다리위에 서있을수 있으랴
그이가 아니시면 그 누가
남강의 푸른 물속 깊이깊이
산촌사람들을 높이 받들어올린 이 다리의
그 억센 기둥을 심어줄수 있었으랴

아 그 기둥처럼 한생을 고여
나를 이 나라 인민을
내 조국의 존엄과 찬란한 앞날을
떠받들어올리신 장군님
그 헌신의 천만리가 어려와
길지 않은 다리여도
내 한달음에 건너가지 못하겠구나

이 다리위로
정답고 아름다운 이 다리위로!

향기넘치는 산촌

산수좋아 열매가 많은가
열매가 좋아 향기 넘쳐나는가
그 어느 집 가보아도 감살구정원
문 열어도 닫아도 넘쳐흐르는 감살구향기

해빛밝은 언덕에 뿌리내린 마을
감살구마을에 와서 내 알았노라
바람이 이리도 향기로움인줄
아름다움이 이리도 향기로움인줄

아기도 감살구꽃같은 아기들이 태어나고
달아오른 두불이 통통 무르익은
감살구열매같은 아이들이 뛰노는 땅
산이 생겨 산마음이 생겨
가장 향기로운 계절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장

계절만이 이 땅을 찾아오던가
산을 넘어 강을 건너
도시의 처녀들도 시집을 온단다
오가던 길손들 화가들 촬영가들

온 나라가 끝없이 찾아드는 마을

향기넘치는 이 산마음이
그 옛날엔 얼마나 버림받던 땅이었던가
못사는 조합이어서
제일 못사는 조합이어서
전후의 날 수령님 찾아오셨던 땅이란다

오시여 산골농민들이 잘살 길을 의논해주시고
산을 리용하라고
가독나무와 물푸레나무가 자라는 곳에
과일나무라고 안되는 법이 없다고 가르쳐주신 때
부터
배나무 감살구나무 뿌리내렸지
이 산마일에 없던 향기가 생겨났겠지

이 작은 산마을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행복을 얹어주고싶으시던
수령님 그 뜻 장군님 꽃피우신 마을
음달진 곳에 있던 강건너 류량동도 통채로 옮겨와

행복의 꽃밭을 내린 새 마을 새 동네

메탄가스로 밥을 짓는
락원의 이 마을에 오니
더더욱 그리웁구나
이 계절 이 향기를 예 불러주시고
멀고 험한 전선길 가고 또 가실
아 우리 어버이

그 그리움으로
뜨거운 땅, 향기넘치는 감살구마을
허나 이 어이 열매의 향기만이라
사계절 이 땅에 가셔지지 않는
너는 장군님사랑의 향기!

풍요하고 살기 좋은
이 산마을에 와서 내 진정 알았노라
행복이 이리도 향기로움인줄
우리 삶이 이리도 향기로움인줄!

실러가는 푸른 숲

더미더미 금빛더미
다 익은 감살구열매도 좋지만
그 열매 백년을 따게 해주는
감살구나무모는 더욱 좋아

평양에서도 오고
자강땅에서도 오고
철령넘어 병사들도 찾아오고
소년단원 꼬마들도 찾아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맛고보내느라
관리위원장도 리당비서도
눈코뜰새없이 바쁘구나

그속에서도 흐뭇한 생각
유명해졌어
감살구때문에
우리 신평이 유명해졌어
하지만 래년엔
양묘장을 더 늘여야지

양묘장에 나무모를 뜨는
처녀들의 웃음소리
아기가 없으면
집안에 웃음이 없듯이
감살구가 없으면
이 마을 처녀들의 웃음도 꺼질듯

정원과수의 본보기농장으로
감살구를 보급하는 원종장으로
온 나라가 다 아는
이 마을의 류다른 이 풍경

못살아 버리고 떠나는이는 있어도
찾아오는이 기다릴이도 없던
이 궁벽한 산촌이 천지개벽을 했구나
그래서 오늘은 차고넘치는 이 마을의 행복이
멀리 또 멀리로 실려가누나

나도 말없이 작별의 인사를 보낸다
나무여 감살구나무여
어디든 가서 너 무성하라
푸르른 숲을 펼쳐 이땅을 덮으라
네가 안은 그 사연 노래하고 또 노래하라

나는 보노라
먼 미래에도 역세게 내려질 너의 뿌리를
그리고 듣노라
이땅의 후대들에게 황금의 열매를 안겨주며
백두산위인들의 사랑으로 푸르른
너의 영원한 설레임소리를

아 숲이 실려가누나
아름다운 숲의 아름다운 노래가 실려가누나

씨앗과 열매

땅이 있어 씨앗이 있던가
계절이 와서 열매가 무르익던가
씨앗도 감살구씨앗은 땅이 주지 못한 씨앗
열매도 감살구열매는 계절이 줄수 없었던 열매

참으로 꿈같은 변천을 너는 새겼구나
참으로 눈부신 결실을 이 땅은 안았구나
수령님 뿌리신 사랑의 씨앗
다리가 되고 마을이 되고
이렇듯 무성한 황금의 숲 펼쳤거니

아 금수강산 내 나라 끝에서 끝까지
수령님 뿌리신 애국의 씨앗을
민족대변영의 거창한 숲으로 펼쳐가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

폭풍이 사나와도 불구름 밀려와도
그 씨앗 가슴에 뜨겁게 품고
정으로 이 강토를 가꾸시는 그이앞에
산천이여 네 어이 꽃을 피우지 않으랴
네 어이 더 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지 않으랴

그 거창한 숲
조국땅의 그 모든 전변속에
감살구마을은 하나의 열매
선군이 낳은 하나의 열매

이 땅은 나에게 가르쳐주었노라
선군은 우뢰만이 아님을
번개만이 아님을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삶의 열매
그것이 우리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선군임을!

마를줄 모르는 서정의 샘을

내 여기서 찾았노라
가슴에 담아도 못다 담을 노래의 씨앗을
내 여기서 안고가노라

잘 있으라 다시 만나자
강이여 다리여 숲이여
향기넘치는 산마을
소박하고 근면한 산촌의 사람들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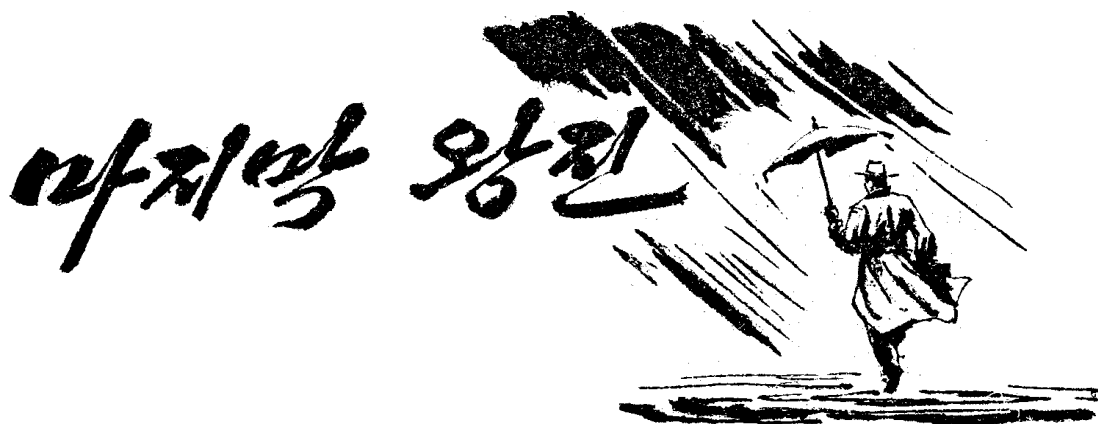
내 노래에 뜨거움이 식을 때
내 노래에 진정이 모자랄 때
내 다시 오리라

다시 와서 저 감살구숲의 설레임소리를 들으리
저 감살구다리우를
한걸음 또 한걸음 소중히 걸어보리

아 이 땅에 바치신 그 사랑 끝없이
세월도 끝없어
전설도 끝없어
가슴속 고마움도 끝이 없어

길은 아니막혔는데
길도 좋은 길이 앞에 열려있는데
언제면 떠나고싶으랴 이 마음
그이품에 안긴 내 조국 땅이기에
멀고 낯설은 고향이 나에겐 없는것인가

아 진정 떠나고싶지 않은
정든 산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싶은
어머니 내 조국의
정든 산마을이여



김흥익

1

해방 1년을 가까이한 어느 여름밤이었다.

도회지와 멀리 떨어져있는 벽지인 여지 월하면 골짜기에 큰 물란리가 터졌다. 며칠째 구질구질 내리던 장마비가 그밤 들어 되성과 번개, 태풍을 동반한 세찬 폭우로 번져진것이었다.

네댓새 내린 비로 흠뻑 젖어버린 땅은 이제 더는 물을 잡아둘데가 없다는듯 곳곳에 생을 터쳐 물을 내뿔었고 구멍이라도 뚫린듯 하늘에선 대줄기같은 소낙비가 마구 쏟아져 조금만 후미진 곳이면 어디나 개울이 생겼다. 크고작은 내를 이룬 그 개울물들이 누런 포말을 일으키며 원골짜기에서 가지치나간 결골짜기들에 흘러들고 자빠뜨려놓은 거목의 원줄기같은 큰 골바닥에 일시에 합쳐져 평소에는 구슬같이 맑은 물이 자그마한 소와 햇빛이 반짝반짝 부서지는 아름다운 여울을 이루며 노래하듯 주절주절 흐르던 월하천이 어디가 여울이고 어디가 소였던지 가늠할수 없게 그 모양새가 변한데다 물빛마저 적토빛으로 아주 흐려져 성난듯 사납게 흘렀다.

골이 생긴이래 처음 보는 대홍수였다. 강 이편 기슭과 저편기슭을 이어주던 수많은 다리들중에서 반나마는 벌써 물에 잠겼거나 떠내려갔고 든든한 다리들만 더러 남았다.

요행 살아있는 몇 안되는 다리들중의 하나인 상평리 운곡동의 그리 크지 않은 나무다리부근에서 카바이드등과 초롱등을 켜든 두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리는듯 시시각각 물에 잠겨드는 다리 저편을 바라보며 밤늦도록 서성거리고있었다.

골짜기 하구에 위치한 을천군 소재지에서는 한 40리, 골 중간쯤에 있는 일하면 읍에서는 약 25리가량 떨어진 상평리 운곡동골짜기로 건너가는

유일한 다리였다.

《형님, 그만 들어가자구요.》

코앞의 물체도 룬짝이나 희미하게 비치는 초롱등을 든 키작은 사람이 이윽히 바라보던 강 저편에서 눈길을 거두며 재촉했다.

《이런 고약한 날씨에 왕진을 오긴 누가 오겠소? 또 길은 작히나 멀고 험해야 말이지...》

《전화는 걸었는지?》

불빛이 꽤 밝은 카바이드등을 든 키가 흰칠한 사람이 강 건너편을 뚫어지게 주시하며 그의 지청구를 잘랐다.

《걸었다고 해야 할지, 못했다고 해야 할지... 군병원은 원장이랑 왕진 나가고 간호원밖에 없다 우다. 그리구 면의 은산병원은 두세마디밖에 못했는데 전화가 똑 끊어지는 바람에 그만...》

《누가 전화를 받았게?》

《<은산병원> 인가고 물으니까 원장이라고 합디다.》

《여기 주소는 대쳤겠지?》

《그쪽에서 어딘가고 묻길래 말은 했는데, 글썽 알겠수? 들었는지... 말았는지? 그 순간에 전화가 똑 끊어졌으니 ...》

《들었으면... 꼭 오실거네.》

키 큰 사람이 카바이드등을 들어 펑펑 포말을 일쿠며 기운껏 흘러가는 강복판을 살펴보며 혼자 말처럼, 허나 확신성있게 중얼거렸다.

《들었다 한들 우리같은게 뭐라고 오겠수? 아직 의사라는 사람은 발 들여놔본적이 없는 이런 막바지엘...글썽 날씨라도 곰상하면 또 몰라라...》

불만조로 통명스레 반던 초롱불의 말소리가 쓸쓸한 한숨속에 묻혀버렸다. 세상이 망각해버린 궁벽오지에 묻혀사는 제들 생명이 가없는 생각이

든 모양이었다. 카바이드등은 듣지 못한듯 잠잠했다.

때마침 병긋하고 소리없는 번개불이 사위를 대낮같이 밝히고는 곧 사라졌다. 그 서늘에 창살같이 비스듬히 내리쬐는 비줄기와 량쪽 강안을 짝 채우며 성갈사납게 흘러가는 물면이 푸른빛으로 언뜻 드러났다가 어둠속에 다시 묻혀버렸다.

《그래 … 박서방은 좀 어떻게가?》

카바이드등이 다리를 건너온 행길이 뻗어간 뒤권의 마을쪽을 돌아보며 근심스런 어조로 물었다.

《정신이 없수다.》

초롱불이 등잔불빛에 시선을 좇으며 대답했다.

《하필이면 이런 험한 날에… 쫓쫓…》

카바이드등이 그냥 마을쪽을 바라보며 무슨 말인가 더 하려다가 혀를 차고 그만두었다.

《날씨가 암전해서 의사선생이 온다 해두 박서방은 못살리우다. 그 사람은 왜정때 벌써 죽은 목숨인걸요.》

초롱불이 카바이드등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형님은 처서판에 나가있다보니 모르지만 폐결핵으로 골골 앓는 박서방을 왜놈들이 저 을천철 다리공사장에 강제루 끌어다가 어떤 꼴루 만들어 보냈는지 아시우? 감독놈채찍에 몰려 제몸보다 굵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까마득히 높은 철다리로 오르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척추가 부러지구 골이 깨지구… 곤죽이 된 우리 박서방을 악귀같은 놈들이 현 가마니짝에 둘둘 말아 물넝에 내던진걸 달구지에 실어왔을 때 숨이 붙어있달뿐이지 사람이 아니였수다.》

초롱불은 말하기도 끔찍한듯 몸서리를 치며 말을 끊었다가 잠시 동안을 두고 이었다.

《그때 박서방이 죽지 않고 살아난건 하두 목숨이…》

《아니네.》

보지 못한 그 광경이 눈앞에 그려지는듯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갈던 카바이드등이 부정하는 말이였다.

《박서방이 살아난건 목숨이 질겨서가 아니라 왜놈세상이 곧 끝장난다는 소식이 나돌던 때라 죽어도 족발이 망하는 꼴을 꼭 보구야 가겠다고 두는 버리고 살았기때문이니네.》

《그 말은 옳은것 같췌다. 그래서… 왜놈 망하는 꼴을 끝내 보지 않았소다?》

《그만 왔나? 지난봄엔 제 이름으루 땅두 받지 않았나?》

《받았지우다. 나두 반구 형님두 반구…》

《못들었나? 토지를 분여받던 날 박서방을 달구지에 싣고 제 땅 보여주려 나갔던 박서방 어머니가 제창 을천병원에 가보자고 하니까 박서방이 제 명은 제가 안다면서 이젠 죽어두 원이 없으니

괜히 소동 피우지 말라구 딱 뻗쳤다네. 이즈음엔 병이 갑작스레 성해 아침저녁으루 피를 토하면서 두 신음 한마디 안내구… 편안한 낮빛이라네.》

《그러구보니 정말… 아까 나올 때 들려보니까 숨은 겨우겨우 튼데 얼굴은 좋은 꿈 꾸는 사람처럼 편안해보임데다.》

《그 사람은 지금…》

카바이드등이 말을 받다가 입을 다물었다. 뒤말이 무서웠던것이다.

초롱불도 입에 올리지 않은 카바이드등의 뒤말을 읽었는지 겁먹은 눈으로 그를 뵈히 쳐다보았다.

《이러구려 의사선생님이 오면…》

카바이드등이 의사만 오면 자기가 입에 차마 올리지 못한 그 말을 부정할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날것이라고 막연하게 믿으며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런데 어떤 의사가 이런 때 왕진을 오겠수? 세상이 잊어버리고 사는 이런 막바지루…》

초롱불이 긴 한숨끝에 말을 이었다.

《억대의 부자쫘 죽어간다면 돈을 보고 오겠지만 내나 박서방같이 서발막대기를 휘둘렀댔자 검불 하나 거칫거릴것 없는 가난뱅이한테 말이우다. 예로부터 의사라는건 돈을 찾아오지 사람을 찾아오지 않수다. 절대루!》

그것은 어길수 없는 진리라는듯 그루를 박았다.

《그건 낡은 세상에서 하는 소리구 지금이야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나.》

《달라지긴 했어만서두 가난뱅이야 어디까지나 가난뱅이지요.》

《뭇 자꾸 가난뱅이타령을 하고있어? 우리 가난뱅이들한테두 지난봄에 김일성장군님께서 땅을 주시구 임자나 저 박서방네 아이들이 다닐 학교두 내오지 않았나?》

《글췌 그건 그렇지만… 그래두 가난뱅이처지야 어딜 가겠수?》

초롱불이 쯤 숙어든 목소리로 제 고집을 그냥 우겨대고 카바이드등은 이번에는 듣지 못한척 잠잠했다.

《참, 그 <은산병원>원장이란 어른이 점때 성님네 집에 들어 하루밤 묵어간 그 약초캐던 아바이라면서요?》

문득 생각난듯 초롱불이 큰소리로 묻는 말에 카바이드등은 무언으로 긍정 했다.

그에 더욱 호기심이 동한듯 초롱불이 한걸음 가까이 다가섰다.

《듣자니 그 어른이 대단한 의사라던데 … 사실이우?》

이번에도 카바이드등은 침묵으로 긍정했다.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초롱불이 또 물었다.

《해방전에 서울 어느 큰 병원에서 명의로 소문 내다가 병원주인하고 대들이관싸움끝에 의사질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왔다면데 그렇지?》

《듣는 소문에...》 카바이드등이 긴 침묵끝에 그의 말을 받았다.

《어떤 큰 부자의 별치 않은 병을 봐주지 않고 못사는 사람의 병을 먼저 봐준게 주인놈한테 벗어나서 그렇게 된가보더군.》

《사실이였군요.》 초롱불이 머리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성나서 펄펄 뛰는 주인놈 면상에다 청진기를 췌내깔리며 그 어른이 했다는 말이 참 듣기에도 속 시원합니다.》

《뭘했게?》 카바이드등이 끌리우는듯 얼른 말꼬리를 물었다.

《이랬다우다. <돈있는 놈의 목숨만 사람의 목숨 이더냐? 이 세상이 덜돼먹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있을지언정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생명이 귀하기는 부자나 없는자나 꼭 같은 법이다.>》

《생명이 귀하기는 매한가지다! 그것 참 옳은 소리군.》

카바이드등이 자기로서도 처음 듣는 소리듯 곱씹어 외워보며 회한해했다.

《옳긴 옳은 소리지만 여적 그런 세상이 어디 있었수?》

잠시 몸을 잠그었던 회한한 꿈에서 깨어나 보잘것없는 자신의 처지를 의식한듯 초롱불이 허전한 표정을 지으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다음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생명에 대한 그 어떤 이해할수 없는 불가사의한것앞에 좀해 다물릴줄 모르던 초롱불의 입이 아주 얼어버린듯 했다.

어둠과 비속에 콕 잠겨버린 마을쪽 행길로 누군가 급히 달려오는 소리가 났다, 둘은 말없는 속에 그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우장대신 헌 보자기를 쓴 열뒤살났음직한 총각애가 키 큰 사람이 높이 쳐든 등잔불빛속에 나타났다.

《무슨 일이나?》 등잔불이 불안한 어조로 소리쳐 물었다.

《좌상할아버지가 다들 들어오시래요.》 총각애가 다가오며 대답했다.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됐니 응, 창수야?》

초롱불이 그앞에 다가서며 불안한 어조로 물었다.

《좌상할아버지가 그저 빨리 들어오시래요》

총각애가 덤덤한 어조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

두사람은 쳐들었던 등불을 맥없이 드리우며 잠시 말없이 서로 쳐다보기만 했다. 오지 말았으면 하고 속으로 빌던 그것이 드디어 닥쳐왔구나 하는 생각에 속이 철렁해진것이였다.

《그럼 ... 들어가자!》

카바이드등이 총각애의 잔등을 무겁게 떠밀면서 걸음을 옮겼다. 하면서도 행여나 하는 기대를 버릴수 없는듯 강건너편을 두세번 거듭거듭 돌아다보았다. 그 편에선 꾸릉-꾸릉- 먼 우뢰소리만이 간단없이 울려왔다.

2

바로 그무렵, 온 마을이 목마르게 기다리는 《은산병원》의 장은산원장은 다리목을 지켜섰던 두사람이 단념하고 돌아선 그 다리를 향하여 홀로 비바람속을 헤쳐오고있었다,

《<은산병원>입니까? 아, 마침 원장선생님이군요. 급한 환자가 생겨 그렇니다.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 상태가 너무 심해 움직일수가 없어서... 미안하지만...예?! 여기가 어딘가구요? 운곡입니다. 상평의...》

원일곱에 난 그를 폭우 쏟아지는 밤길로 끌어낸 전화는 그것이 전부였다.

《운곡입니다. 상평의...》 하는 순간 하얗게 질려보이는 번개불이 창유리에 번쩍 매달렸다가 언뜻 사라지고 여러쪽의 명주천을 일시에 찢는듯한 천둥이 지붕우를 아츠럽게 때리더니 멀게 들려오던 사나이의 목소리가 푹 끊어졌던것이다. 다급히 상대를 다시 찾았으나 금시 내리친 벼락에 전화선이 잘뚫된 모양 잉-하고 귀속을 어지럽히던 잡음도 더는 들리지 않았었다....

먹물을 뿌린듯 한 질은 어둠속에서 창살같은 비줄기가 은산의 온몸을 세차게 후려갈겼다. 은산은 사납게 불어치는 바람에 뒤집어질듯 펄럭거리는 우산대를 콕 부여잡고서 철서덕거리는 진창길을 걸어갔다. 젖은 바지가랭이가 아래도리에 찰싹 달라붙어 걸음을 방해했다.

사실 은산은 나이도 있고 해서 먼곳이나 험한 날씨에는 될수록 왕진을 다니지 않았다.

오늘도 전화받기 몇시간전에 한 심리가랑 떨어진 마을로 왕진을 떠나간 사위네 부부가 돌아오면 보낼 생각을 했었다. (사위는 의사였고 딸은 주부 겸 간호원일을 맡아하고있었다.)

하지만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던 사나이의 겁에 질린듯 한 목소리를 상기하고는 당장 마음을 고쳐먹고 떠 나온 그였다. 아니, 그가 전례를 마스고 이렇듯 깊은 밤, 그나마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런 날씨에 선뜻 왕진길을 나선것은 왕진을 청한 운곡이라는데가 그로서는 인연이 깊은 곳인 까닭이기도 하다.

은산이 해방을 맞이하여 들썩거리는 먼 읍거리 유축에 자리잡은 자기 집 낡은 대문에다 제 이름을 자를 판 병원간판을 내붙이고 치료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는 방금 왕진을 요구한 운곡사람들한테서 받은 충격이 준 영향이 컸었다.

은산은 이 고장의 명망높은 고려의원의 외아들

로서 일찌기 고학으로 신의학을 배우고 돌아온 뒤 서울과 부산 등지를 전전해가며 명의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었다. 그러다 해방을 몇해 앞둔 어느해 겨울엔가 돌연히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는 노상 집에 불박혀 두문불출하다싶이 하면서 소일거리처럼 집에 찾아오는 병인들이나 드문히 봐주는것으로 세월을 보냈었다. 그러면서도 인사치레로 가져다주는 물건의 돈을 받는 법이었었다. 부자에게서든 가난뱅이한테서든 마찬가지였다.

하여 불과 한두해여간에 그는 의술이 높기로도 아근에 소문이 높았지만 공정하고 인심좋은 사람으로 더욱 평판이 자자했다. 자기들한테 것처럼 용하고 의협심이 두터운 의사가 있다는것을 큰 자랑으로 여긴 아버지의 친지들이 정식 의원간판을 내걸라고 권고했지만 그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사람들은 그가 서울에 있을때 병원주와 대들이판 싸움을 한 뒤 병원이라는 말만들어도 꼴살을 찌프린다고들 했다. 그러면서 그때 《이세상에 부자와 가난뱅이는 있을수 있을지언정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생명이 귀하기는 누구나 마찬가지다!》하고 그가 했다는 유명한 말을 깊은 존경심을 담아 외우곤 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은 은산이 비로소 처음으로 세상에 한 말이 아니였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한 그의 아버지의 훈시였었다. 의술높은 시골의 생이기 전에 호협하고 결곡한 인간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말했다.

변변치 못한 집가산을 다 기울이다싶이 하더라도 공부시킨것은 장차 돈을 많이 벌여 부자가 되라는것이 아니다!

의사의 대상은 천지만물중의령장인 사람의 생명이다. 그런데 그 생명앞에서 의사는 평등해야 한다. 왜냐면 사람마다 재산의 유무와 정신의 우열, 직업의 높낮음은 있을지언정 어머니가 낳아준 생명은 평등하기때문이다. 그래서 자고로 의술은 인술이라 했거늘, 너는 너에게 맡긴 그 모든 생명앞에서 생명이외 다른것을 보거나 생각하려 해서는 안된다. 어쩔수 없어 네앞에 서있는 생명을 설사 살려내지 못할 때에도 의사로서 할바는 다해야 한다!...

은산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한평생 애를 썼다.허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세상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세상은 그를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황금앞에 세워놓곤 하였다. 은산은 그것을 굳이 외면하려 하였다.그러나 그것을 외면하면 의사로서의 그의 생명이 곧 위협을 당했다. 인간의 생명을 검진하는 청진기는 자기의 손에 쥐여져있다 해도 그에 귀를 대고있는것은 황금을 먹는 벌레들인 병원주인들이였다. 그들에게는 황금이 없는자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였다. 황금을 가진자

의 생명만이 생명이였다. 그리하여 황금으로 피동피동 살찐자들의 생명앞에만 은산을 세우곤 하였다. 은산의 대상은 생명이 아니라 언제나 황금이였다. 그것은 은산의 의술이 높아지면 질수록 더해졌다. 부자들은 황금주머니를 질렁거리며 더욱 자주, 더욱 많이 그를 찾거나 불렀고 없는 사람들은 점점 그와 멀어졌다. 이름난 의사-장은산은 부자들의 명의를엿지 가난한 사람들의 의사가 아니였던것이다!

금시 꺼져가는 생명을 눈앞에 보면서도 주인의 쏘는듯 한 눈총에 못이겨 돌아서야 할 때의 병원 문전에 쓰러진 엄마를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나 어린 소녀의 손바닥이 빈것을 보고 뻥뻥하게 문을 후려닫는 주인의 차거운 표정을 볼 때의 그리고 황금으로 하여 비만해진자들의 너무 비만해서 생긴 병아닌 병을 보아주려 문전거절당한 그 불쌍한 소녀의 곁을 지나 값비싼 왕진차에 몸을 실을 때의 얼굴이 타는듯 한 부끄러움과 가슴을 저미는듯 한 아픔으로 온몸을 떨며 은산은 속으로 부르짖곤 하였다. 누가 의술은 인술이라했더냐? 아니다. 돈술이다! 금술이다! 사람으로선 못해먹을 노릇이 의사질이다!

그러던 어느날 병원주인과 돈맥관계가 짝 얹혀져있는 큰 부자집으로 왕진을 가던 길에 우연히 맞다들린,돈이 없어 금시 죽어가는 한 가난한 병자를 치료해주고 간것이 문제되어 주인으로부터 참을수 없는 모욕을 당하게 되자 그는 그 유명한 말을 한마디 남기고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온것이였다. 그랬던 그가 다시 병원을 세우게 된것은...

폭우, 번개, 비바람...

휘 불어치는 돌풍에 퍼들고 가던 우산이 휘파 뒤집히는 바람에 은산은 무릎 멈춰섰다. 순간 눈부신 번개불이 금시 드러난 그의 이마박이라도 쪼갤듯이 번쩍하고 낮추 그어지고 뒤통수를 후려치는듯 한 천둥이 뒤따라 온 골안을 울렸다. 얼음알갱이같이 차고 날카로운 비방울들이 얼굴이며 온몸을 물방으로 사정없이 때리는것을 느낀것은 다음순간이였다.

뒤집어진 우산을 바로 펴보았다. 온통 살이 부러져 바로 펴수가 없었다. 하는수없이 그냥 접어들고 걸음을 옮겼다. 비웃으로 꽁꽁 싸서 옆구리에 낀 왕진가방을 내놓고는 젖지 않은데가 온몸 어디에도 없는듯 물주머니가 되어버렸다. 그래도 은산은 내치 걸었다. 비바람에 우-와 우-와 몸부림치는 숲사이로 난 달구지길을 따라 쫓기듯이 걸음을 다우쳤다. 누군지 모를 환자의 생명이 자기를 기다리며 경각을 다투고있다는 촉급한 생각에 쫓기운것이였다. 시오리는 실히 지나온것 같았다. 병풍같이 하늘을 치뚫고 우뚝 솟은 벼랑밑 굽인돌이길에 접어들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수백리를 흘러온 월하천과 지류인 운곡천이 접하

는 합수목이 나지고 그 합수목을 조금 지나면 운곡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있다. 이제 이 굽이를 돌고 또 한굽이를 돌면 지난해 마가을 하루밤 묵어간 은산에게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긴 운곡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있다.이 굽이를 돌고 또 한굽이를 돌면...

은산이 고향으로 돌아온게 얼마 안되어 그와 함께 이사집을 떠이고 다니며 운명을 같이 해오던 안해마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3대를 걸쳐 시골의원으로 살아온 조상들이 일떠세운 본채에 사랑채까지 결달린 덩실한 돌기와집에 은산이 홀로 남게 되었다. 은산의 체자로서 서울에서 의사노릇을 하고있던 사위와 외동딸은 아버지더러 집을 팔고 다시 서울에 올라오라거니, 은산은 결단코 다시는 서울바닥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거니 하며 밀고 당기고 하는 판에... 해방의 날이 왔다.

세상이 달라졌다. 왜놈들의 세상으로부터 우리 세상이 되었다. 그 우리 세상이라는것도 은산이 십수년동안 살아본 《합병》이전의 《우리 세상》이 아니었다. 그때는 《우리 세상》이로되 몇몇 안되는 잘사는 사람들의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명실공히 모든 사람들의 우리 세상이었다.

은산은 먼 읍거리를 짝 채운 그 모든 사람들의 밝은 표정에서, 그들의 명랑한 웃음과 당당하게 울리는 그들의 목소리에서 그리고 활기찬 그들의 팔저음에서 그것을 느꼈다. 그것은 감출수 없는 그 어떤 빛이며 음향이며 이름할수 없는 신비와 그 무엇이었다.

은산은 그리 높지 않은 자기 집 담장너머 행길이 미여지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항시 그것을 느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말할수 없었다.

그러나 딱히 이름할수 없는 속에서도 집안에 두문하고 그냥 앉아있을수는 없다는 절박한 생각이 날을 따라 더해졌다. 세상이 온통 변해가고있는데 자기만은 땅밑의 두더지처럼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있다는 그 어떤 죄의식같기도 하고 또 세차게 굽이치며 흘러가는 사람들의 물결속에서 저 혼자 동떨어져 나갔든듯 한 고독감 비슷도 한 형용할수 없는 감정의 충동때문이었다.

하여 은산은 산초초목들이 단풍일색으로 장엄하게 물들기 시작하던 지난해 가을부터 약초채취를 시작했다. 그것은 몇년동안 먼 읍거리를 벗어나본적이 없는 그로서는 레외적인 일이라 합수 있었다. 약초를 캐다 어찌한다는 분명한 목표는 없었다. 그저 가만히 앉아있을수 없다는, 자기도 뭔가 해야 한다는 막연한 의식으로부터 얼마간의 길량식과 쟁개비, 끝이 뾰죽한 팽이와 호미, 약초배낭 그리고 두툼한 솜옷이며를 꾸며메고 돌연히 길을 떠난것이었다.

신의학을 전공한 그였지만 대대로 고려의술을 물려온 집안에서 자라다보니 고려약재에 대한 지식이 어지간히 깊은데다 그의 집 서재에는 3대를 걸쳐 내려오는 고려약비방들과 름근산야에서 절로 자라는 진귀한 약초분포도까지 다 있었다.

은산은 그 약초분포도를 지도삼아 인적없는 산골짜, 바람부는 산등성이, 높고 험한 산벼랑을 수없이 타고넘으며 약초들을 캐고 또 캐다.

세신이니 구릿대니 지황이니 하는 약초들을 한배낭 가득히 메고 집으로 돌아오던 은산이 먼 읍에서 퍼그나 떨어진 운곡의 어느 한 길가집에 들러 하루밤 류숙한것은 집을 떠난지 열흘가까이 된 어느날 저녁무렵이었다.

그날 밤 그 집 옷방에서는 동리사람들이 한방 가득 모여앉아 밤늦도록 글공부를 하고있었다. 해방과 함께 활기를 띤, 왜놈세상에 억눌려있던 배우고싶은 열망의 세찬 격류가 이 깊디깊은 산골짜 외진 마을에도 휩쓴것이었다.

선생님은 마흔살 가까왔음직한 그 집 주인이었는데 뜻밖에 들린 길손인 은산이와 저녁식사를 마칠 때쯤하여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손님에게 량해를 구하고 옷방으로 올라가 만든지 얼마 안되는 모양으로 새까만 먹칠이 조금도 벗겨진데가 없는 칠판앞에 나섰다.

은산은 반쯤 열어놓은 사이문너머로 한방 빼곡하니 모여앉은 《학생》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살펴해보았다.대개가 스물이전의 더벅머리총각들이었는데 개중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른들도 더러 보였다. 문지방가까이에는 단정한 저고리차림의 처녀들도 모여앉았고 아래목에 퍼더버리고 앉은 채 공부할 잡도리는 아니게 곱방대를 물고 건너다보는 늙은이도 있었다.

자기라는 낯선 존재때문에 지장이 될가봐 사이문너머로 숨을 죽이고 앉아보던 은산은 절로 웃음이 나는것을 겨우 참았다. 《조선》, 《삼천리금수강산》, 《땅은 발같이하는 농민에게》 등의 당대 분위기가 질게 풍기는 단어들과 짙짙막막한 문장들을 배워주는데 선생이란 사람이 칠판에다 쓰는 글이 《삼천리》, 《발가리》 등으로 발음되는대로 였던것이다. 학생들도 공책이나 모래판에다 선생이 써놓은 그대로 옮겨써놓고는 《삼천리금수강산》, 《땅은 발가리하는 농민에게》하고 선생이 불러주는대로 신이 나서 따라 읽었다.

밤깊어 공부가 끝나고 학생들이 돌아간 다음 땅에 흠뻑 젖어가지고 아래방으로 내려온 선생님에게 은산은 수고했다고 진심으로부터 인사를 했다. 선생님은 구레나룻이 거뭇거뭇하고 이마가 흰칠한데다 아래턱이 류달리 억세보여 어딘가 엄엄하면서도 총기가 느껴지는 얼굴에 어줍어하는듯 한 미소를 머금고 인사를 받았다.

《그런데 말이요.》

앞에 와 마주앉은 선생님에게 담배를 권하며 은산은 혼연스런 어조로 말했다.

《글이란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처음 배울때 틀리게 배우면 후날 고치기 꽤 힘들지요.》

선생님은 담배불을 붙이다 말고 무슨 말인가싶은듯 긴장해서 은산을 쳐다보았다.

은산은 그가 철자상 틀리게 배워준데를 알기 쉽게 일깨워주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대뜸 확 붉어지더니 굳세고 엄엄해보이던 기상이 어딘가 열적어하는듯 한 빛으로 바뀌어버렸다. 은산을 면바로 쳐다보지 못하며 그는 떠듬떠듬 입을 열었다.

《나같은 놈이야 사실 선생자격이 없지요.》

은산은 혹시 자기가 그의 어디 아픈데를 다치지 않았나싶어 은근히 긴장해지는 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나로 말하면 몇달전까지만 해도 문 열어놓고 미음자도 모르던 까막눈으로 돈을 좀 벌어들여 해서 처서판을 돌아다니던 놈이우다. 해방이 되자 곧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어떤 식자있는 사람이 성인학교를 열었지요. 그래 집에 인츰 돌아가려던 생각을 버리고 거기 뒤달 놀러앉아 글을 배웠수다. 빈장놈의것, 돈벌러 떠났던 놈이 돈은 벌지 못했지만서두 해방덕에 글이나 배워가지고 가리다 하구 말이지요. 그런데 고향에 돌아와 보니 우리 마을엔 그나마 글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구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구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서 내 나라를 세우자고 말씀하셨는데 나한테 뭐 있습니까? 땅 있습니까? 돈 있습니까? 뼈속에 독심은 누구라없이 다 있는 거구요. 그래 이 좋은 세월에 그냥 까막눈으로 사는 마을사람들한테 성인학교를 열면 어떨까 하고 옆구리를 찔러봤더니 다들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그 바람에 끝수없게도 하루아침에 <선생님>이 되었지요만 선생님같이 식자가 대낮같이 흰한 진짜 선생님들한테는 부끄럽쎄다.》

그날 밤, 부끄럽다고 얼굴붉히던 구레나룻의 이마흰칠한 《선생님》은 네 활개를 활짝 펴고 사이문이 드륵드륵 울리도록 코를 골며 잠을 잤지만 그옆에 누운 은산은 뜬눈으로 밤을 썼다. 잠자리가 달라진때문이 아니였다. 코고는 소리때문도 아니였다.

두달전에 배운것도 지식이라고 마을에 돌아오자 곧 성인학교를 세우고 밤마다 《선생님》이 되어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려고 애쓰는 그의 모습에서 흥벽을 치는 커다란 흥분을 느낀때문이었다.

바로 이것이 조국해방이 이 나라 사람들에게 가져다준 참의미가 아니겠는가! 새 나라를 세우

는데 자기의 모든것을 있는것 다 바치려고 모지름을 쓰는 이 헌신이...

그제야 먼 읍거리가 미여지게 활개를 저으며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느껴져오던 그 이름할수 없는것이 어디서 오는것인지 어렴풋이나마 알수 있을것 같았다. 그것은 한마디로 해방! 그것이였다. 해방으로 하여 이 땅, 이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는 가슴뿌듯한 자부로부터 오는 자각이였다.

그런데 나는?... 하고 그는 모로 돌아누웠다.

나는 이 나라에 잠깐 들린 손님이란 말인가? 이밤,이 길가집에 들러 한밤 자고가듯이 몇발 목고가면 그만인 나그네란 말인가? 새롭게 일떠서는 내 나라에 나는 과연 보탬할것이 그렇게도 대단 말인가?...

아버지가 넘겨준 그리고 갓은 고생을 다 겪으며 배우고 쌓은 지식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필요 한것인가! 내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아낌없이 바쳐야 하지 않겠는가!

가슴이 흥떡흥떡 떨기를 일으키면서 호흡이 가빠졌다. 근 수십평생 힘겹게 걸어온 자기의 발밑으로 속절없이 새어버린듯 싶었던 젊음이 한순간에 되살아난듯 온 육신에 억척같은 힘이 쭉 뻗는 것만 같았다. 조상대대로 물려준 우리 집에도 병원을 세우자!

하여 이튿날 아침, 그 집 안주인이 정성껏 차려주는 아침을 드는동안은 하고 어뜩새벽에 길을 떠나 집으로 돌아온 그는 그날로 군 자치위원회 회를 찾아가 개업허가를 받았고 몇번에 걸쳐 서우에 연락을 띄워 사위와 딸을 불러온 다음 집 두칸을 내어 병원을 꾸렸으며 대문앞에 자기의 이름을자를 댄 병원간판까지 써붙였다. (병원이름은 사위가 주장하여 지은것이였다.)

군과 면 인민위원회에서는 원체 높은 의술을 가진 은산네 일가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평판이 높아지고 면과 군의 곳곳에서 그의 왕진을 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일제놈기관들에서 몰수한 적산품전화까지 그의 병원에 설치해주고 적지 않은 의약품들과 의료설비들도 보내주는 등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었고 은산은 그에 보답하려고 치료사업에 온갖 심혈을 다 쏟아부었다.

그렇듯 은산이네가 병원을 내오고 치료사업을 시작한지 오늘까지 다섯달하고 꼭 이레째 된다. 그리고 은산의 나이 또한 지금 선일곱이다.

왕진을 요청하는 그 짝막한 전화를 받기 전, 편수책상앞에 앉아 무심히 력서를 들여다보다가 우연한 일치와 야릇한 대조를 이루는 그 두 수자를 발견해내는 순간 은산은 예순살문턱에 이른 나이로서 늦게나마 옳은 세상을 만나 유익한 일에 자신을 바친 행복한 그《다섯달 이레》가 얼마나 더 연장되겠는지는 알수 없는 일이지만 불우하게 흘러간 한평생에 비해볼 때 분명 삶의 보람

과 행복으로 충만될것임이 틀림없으리라는 확신으로 눈앞에 행복의 운무같은것이 뽕얇게 서렸었다.

그 전화만 걸려오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은산은 그 운무속에 잠겨 있었을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

3

우윙- 우윙- 썩- 아-

메아리를 일으키며 궁글게 들려오던 물소리가 갑자기 커지는 바람에 은산은 걸음을 멈추었다.

월하천과 운곡천이 겹치는 합수목에 이른것이였다. 잔뜩 불어오른 두 물줄기가 골반이하듯 와-와- 탕, 탕, 탕,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한줄기를 이루는 저 합수목뒤에 운곡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있고 그 다리를 넘어서면 ...

드디어 목적지를 눈앞에 두었다는 기쁘고도 조금해지는 마음으로 은산은 힘을 내어 달렸다. 아니, 가쁜숨을 툭아쉬며 달리듯이 걸었다. 그렇게 합수목을 지나고 다리목에 이르러 ... 우뚝 서버렸다. 다리가... 없어진것이였다.

섬찍해지는 가슴을 진정하고 가까이 달려가 보았으나 분명히 없었다.

굵은 쇠그물속에 막돌을 채워넣고 쌓은 다리터만 시커먼 강물위에 작은 섬처럼 드러났다 가리워졌다 활뿐... 다리는 떠내려간것이 분명했다.

은산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말았다. 여기까지 내쳐 달려오면서 이 다리가 물에 떠내려갈수 있다는 생각은 꼬물만치도 하지 않았었다. 오직 빨리 가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으로 달려온 그였다. 그런데 마지막문턱일에 이르러 그만 앞이 막혀버린것이였다.

비는 조금 속어진듯 했다. 그러나 바람질은 더 세차졌다. 꾸릉꾸릉 하는 천둥소리가 강건너 어둠속에 묻힌 산너머에서 멀리 들려왔다.

은산은 비웃으로 꾹꾹 썩 왕진가방을 안은채 물가를 오르락내리락했다. 어디 건널만 한데가 없나 해서였다. 여느때엔 설혹 다리가 없다 해도 바지가랭이를 조금 걷고 능히 건널수 있는 강이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밤눈으로 보해도 강폭이 눈이 모자라게 넓어지고 강모양도 꺾 사나와졌다. 온 골안을 우윙우윙 울리는 세찬 물소리가 그것을 더욱 강조해주고있었다.

은산은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강건너편 다리목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떠내려간 다리의 저편목에 사람들이 마중나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캄캄한 어둠속에 우중충하니 솟은 산발들만 마주볼뿐... 불빛한점 보이지 않았다.

은산은 행여나 하는 생각으로 손나팔을 입가에 가져다대고 목청껏 소리쳐보았다.

《이보시오! 거기 누가 없소?!》

하지만 아무리 애라게 소리쳐도 골안을 드렁드

렁 울리는 사나운 물소리뿐...

은산은 구원을 청하듯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때마침 번쩍하고 새파란 번개불이 튕기면서 트레트레한 구름장들이 물을 잔뜩 머금은 무거운 배때기를 얼핏 드러냈다가 곧 어둠속에 묻혀버렸다. 그 짧은 순간 은산은 강건너편을 다시금 훑어보았다. 하지만 다리목엔 아무도 없었다.

그를 건네줄 힘은 강 이편에도 저편에도 그리고 저하늘 어디에도 없었다.

그래도 은산은 건너야 했다. 사품치는 저 강건너편, 방금 번개불빛에 잠깐 드러났다가 사라진 그 마을에서 꺼져가는 한 생명이 은산을 기다리고있었다.

죽더라도 가자! 건느자!

단호하게 결심을 내린 은산은 다리목에서 한 십여미터 옷쪽으로 올라와 그중 물살이 약해보이는 곳을 택한 다음 왕진가방을 머리에 이고 무작정 강에 들어섰다. 순간 억센 손아귀같은것이 그의 아래도리를 잡아 아래로 힘껏 나꿔챘다. 은산은 하마트면 넘어질뻔 한 몸을 가까스로 다잡고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건느기는 고사하고 몇걸음 못가서 물밑으로 마구 굴러내리는 소대가리같은 바위에 치워 물귀신이 될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종단 말인가?

은산은 왕진가방을 머리에 그냥 인채 우두커니 강기슭에 밀려나와 서서 소리치며 흐르는 강물만 하염없이 내려다보았다. 《돌아가라! 돌아가라!》하고 발밑에서 룡트림하듯 적토빛 갈기를 무섭게 날리며 흐르는 강물이 소리치는것 같았다. 그 위력적인 소리에 지질리운듯 은산은 한동안 얼없이 그냥 서있었다. 신일곱해 쫓지 않은 자신의 생애가 무서운 자연의 횡포앞에 문득 서버린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아니, 이렇게 멈춰선적이 그전에도 더러 있었다. 시시각각 꺼져가는 가난한 생명을 향하여 량심의 충동으로 달려가던 걸음을 그 어떤 목소리에 저질리워 이렇게 멈춰섰었다.

《어딜 가는거요? 장선생, 돌아서시오.》

그것은 은테안경을 코에 건 병원주의 목소리였다.

장은산을 매년 멈춰세우곤 하던, 얼음장보다 더 산뜻산뜻한 그 목소리가 그의 생존을 위협했다면 지금 바로 앞에서 장은산의 앞길을 가로막고 횡포하게 울부짖는 자연의 목소리는 그의 생명을 위협했다.

그 위협앞에서 매년 멈춰치고는 뚫고나가지 못한 자신이 허무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그때는 그 사회적장애를 들부시고 나갈 길이 없었고 지금은 이 횡포한 자연의 장애를 뛰어건널 힘이 없지 않는가! 죽음으

로써도 말이다!

죽음으로써 환자에게로 갈수만 있다면 나는 갈 것이다.

그러나 죽음으로써도 이 사나운 강을 건널수는 없다. 죽음으로써도...

은산은 어깨를 축 쳐뜨리고 깊은 한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는 잠시 서있다가... 무겁게 걸음을 옮겼다. 한발자국 또 한발자국...

덜미를 잡힌듯 흠칫 몸을 떨며 우뚝 섰다. 《정말 돌아가니? 돌아가니?》 하고 비바람에 몸부림치는 강건너편 산의 온술이 소리치는것 같은 환각이 든것이였다.

은산은 잠시 섰다가 강쪽으로 돌아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품치는 강이 절벽을 광광 들이받으며 위협하듯 소리쳤다. 《죽고싶어? 죽고싶어?》 이미 돌아서기를 결정해버린 그의 마음속 나약한 생각을 부추기려는듯 커다란 북방망이처럼 가슴을 광광 내지르는 그 힘에 떠박질리운듯 돌아서... 눈을 감았다. 힘들게 첫걸음을 뗐다. 다음걸음이 따랐다. 쫓기우듯 그다음 걸음이 곧 이어졌다.

얼마나 걸었는지... 팡! 팡! 하는 물소리가 무엇에 막힌듯 우윙-우윙 하는 둔한 소리로 벌어졌다. 그러자 일순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목덜미를 뒤로 꼭 잡아당기는것 같은 압박감도 한결 덜해지는것 같아 고개를 짓수긋하고 어느 벼랑굽이길을 꺾어들다가 바람처럼 가볍게 돌아서는 어떤 물큰한 물체와 탁 부딪쳤다.

《이크!》

《어마나!》

어망결에 울리는 너자의 목소리를 알아들은것은 다음 순간이였다.

《누구요?》

《저...》

어망결에 던진 은산의 물음에 대답하려고 입을 열던 너인이 획 하고 붙어치는 비바람에 숨길이 막혔는지 헉- 느끼더니 땅에 떨어뜨린 물건을 찾아들고 몸을 일으켰다. 비록 허리가 굽어들기 시작했으나 장대한 체력의 소유자인 은산의 어깨췌에도 겨우 닿을만치 작은 키의 너자였다. 어둡때문에 얼굴은 알아볼수 없지만 어째선지 껍 애된 처녀일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 ... 상평쪽에서 오시지 않습니까?》

너인은 가던 방향의 어둠속을 바라보며 은산에게 물었다. 중음의 듣기좋은 목소리였다. 서른살을 갓 넘긴 은산의 딸 나이쯤 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소.》

은산은 지금쯤 그 애들은 왕진을 마치고 돌아

왔을가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대답했다.

《저...》 무엇인가 더 물으려는듯 입을 열던 너인이 《길을 막아 미안합니다.》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가던 길을 바삐 이어갔다.

상평쪽에서 오지 않느냐고 묻는걸 봐선 그리로 가는 너인같은데 하는 생각으로 《아니 저...》하며 몇걸음 따라서던 은산은 그자리에 주춤 서버리고말았다. 갑자기 부름말이 떠오르지 않았던것이다. 요새 젊은이들식으로 《동무》라고 부르기도 멋지고 《처녀》라고 경박하게 소리칠수도 없고 해서 궁싯거리는 사이에 너인은 어둠속에 아주 묻혀버리고말았다.

은산은 너인이 사라진쪽을 한동안 바라보다말고 돌아섰다.

이밤중으로 상평에 가닿아야 할 급한 일이 그 너자에게도 있는 모양이였다.

그러나 그 너자도 돌아설것이다! 그 강을 건느기가 불가능하기는 그 너자쪽이 더 할것이였다.

번개불은 그의 머리우에서 느닷없이 병긋거렸다.

그러나 천둥소리는 멀리 산너머쪽에서 쿵, 쿵-울렸다.

몸에 떨어지는 비발도 펍 가늘고 성글어졌다.

바람질만은 여전했다.

(그래, 나도 어쩔수 없었어! 건너갈수가 없었어!)

은산은 방금 벼랑뒤편으로 사라져버린 너인이 되돌아오는것을 기다리기라도 하듯 잠시 서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솔직한 말이지 난 결코 목숨이 두려워 돌아선것이 아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문제는 죽음으로써도 그 강을 건널수 없었다는데 있다. 그런 죽음은 실상 객기에 불과한것인데 난 객기를 부릴 나이를 훨씬 넘긴 몸이다.

《아니요!》

어둠속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를 은산은 분명히 들었다.

《선생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있소.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음을 초월한 그 무엇인가가 없기때문에 돌아가고있소!》

은산은 눈앞에 언뜻 그려지는 그 목소리의 임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병원개업문제로 군자치위위원회를 찾아갔을 때 그를 친절하게 맞이하여준 항일유격대출신의 젊은 파견원의 모습이였다.

...그날 군사업전반을 료해하러 마침 내려와있던 령장없는 군복차림의 그 파견원은 면읍에 병원을 내오려는 은산의 이야기를 중단없이 다 듣고나서 금시 환해지더니 그의 손을 꼭 잡고 흔들며 대뜸 찬성하는것이였다.

《참 좋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그러지 않아도 일본놈의사가 돈벌이하다가 버리고 간 병원자리에 인민병원을 새로 내오는 문제때문에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자던 참입니다. 알아보니 월하면에서뿐아니라 울천군, 아니 도적으로도 선생님만큼 의술이 높은분이 없던데... 어떻습니까? 이분과 함께 손을 맞잡고 군에다 인민병원을 한번 꾸려보지 않겠습니까?》

은산이 마주하고 앉은 책상너머 밝고 해어진 팔걸이결상에 고개를 수긏하고 앉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 갱끗하고 살갗이 검스레해보이는 사람을 가리키며 파견원은 말을 이었다.

《동만에서 우리 동무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치료사업을 하다가 해방을 맞아 조국으로 돌아온 본인데 선생님의 방조가 있다면 더욱 좋을것입니다. 한번 손을 맞잡고 병원을 잘 꾸려봅시다.》

팔걸이결상에 앉아 듣던 사람이 자기는 백프로 동감이라는듯 검스레한 얼굴에 기꺼운 표정을 지으며 일어섰다. 하지만 은산은 별스레 귀전에 날아와 박히는 《인민》이라는 낱설은 단어에 주의가 쏠려 《동만의사》의 얼굴을 외면하며 반문했다.

《인민병원이라는건... 누가 경영하는 병원입니까?》

《국가가... 나라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파견원이 혼연스레 대답했다.

《그러니까... 국영 병원이겠습니까.》

은산이 심상한 어조로 받았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국영>이라는 개념하고는 썩 다를것입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구상하시는 인민이 주인이 된 새 나라에서는 인민이 국가이자 나라로 될것이고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될것입니다.》

파견원은 의미심장하게 그루를 박아 말하며 대답을 기다리는듯 은산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은산은... 그에 선뜻 대답할수가 없었다. 그의 제의가 너무 불쑥스러운때문만이 아니었다. 《인민이 곧 국가이자 나라로 될것》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어서 그 표상이 뚜렷하게 안겨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을 받아서 병원을 꾸리게 되면 어쨌든 그것은 하나의 기업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친때문이었다. 《인민병원》이든 《국영병원》이든 그 명칭은 어쨌든지간에 기업인 까닭에 어차피 리운을 따지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고 리운을 좇게 되면 자연히 돈을 좇게 되고 돈을 좇게 되면 사람들의 생명을 저울대우에 올려놓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었다. 그런데 리운을 추구하지 않는 기업이 존재할수 있겠는가? 리운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벌써 기업이 아닌것이다.

하다면 은산은 아무런 보수도 바람이 없이 그 어떤 자선사업을 하자는것인가? 아니었다. 그리

기에는 그에게 남한테 거저 줄만 한 재산이랄것이 거의 없었다.그는 그저 자기의 의술과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집과 그리고 약간의 의리기구들과 의약품들을 밀천으로 면내 사람들의 병이나 보아주면서 여생을 부끄럽지 않게 보내자는것이였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향사람들을 위해 제 의술을 바치고싶을뿐입니다.》

은산은 힘들게 그러나 확고한 어조로 말했다.

젊은 파견원은 얼굴에 지었던 미소를 거두지 않은채 은산의 고집을 선선히 받아주었다.

《좋습니다. 국영병원이든 개인병원이든 그것은 문제로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선생님이 군과 면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졌다는 그것을 순간도 잊지 않는것입니다.》

이제 머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병나도 치료받을 걱정이 없는 세상이 건설될것입니다.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근 10년전, <조국광복회10강령>에서 벌써 해방된 이 땅에 건설하게 될 그런 세상을 밝혀주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열정에 겨워하던 말을 툇 끊고 그는 은산을 쳐다보았다. 그다음 《동만의사》 쪽으로 시선을 옮기면서 말을 이었다.

《우리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의 그 대강을 받드는 길에 일군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치는가 하는것입니다. 새로운 사상은 그것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가 되어있는 투사형의 일군들에 의하여 관철되며 현실로 꽃피는 법입니다.》

은산은 고압전류에라도 닿은듯 흠칫하고 몸을 떨다가... 딱 굳어졌다.

그날로부터 며칠후 《울천군인민병원》이라는 소박한 지명이름을 단 군병원과 벗어나 월하면 한 가운데 제 이름자를 단 병원문을 열고 치료사업을 시작한 뒤 별로 깊이 되새겨보지 않았던 그 말이 활촉같이 심장을 찌르고든것이였다.

그런데 나는 뭔가? 장은산이,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있는가?

지난해 가을, 어좁은 미소를 머금고서 자기를 쳐다보던 《성인학교선생》의 구레나룻 인상깊은 얼굴이 불현듯 눈앞에 떠올랐다.

지금 생사기로운 놓여있는 환자가 혹시 그가 아닐가 하는 예감이 빈개처럼 심장을 꺾지르고 지나갔다.

불충분한 전화를 받고 왕진준비를 갖추면서도 그리고 비바람속을 뚫고 허겁지겁 달려갔다 되돌아오는 지금껏 이처럼 험한 밤길을 해매게 만든 환자가 어떤 사람일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미치지 못한 자신이 이상하게 여겨졌다. (환자의 병상태외의 다른것. 그의 직업이나 재산의 유무, 안면관계같은것에 대해서는 의식적으로 무시

해온 그의 결곡한 성격이 준것임을 그자신은 알지 못했다.)

《선생님,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그냥 돌아가시우?》

눈앞의 떠오른 환영속의 구레나룻 거뭇한 그가 물었다.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도 안락한 생활도 차버린 좋은 의사선생이라고 우린 선생님을 존경했는데 오늘보니 선생님도 결국은...》
음-

은산은 저도 모르는 사이 깊은 신음소리를 냈다. 30년나마 의사로 일해오는 지금껏 왕진을 가다가 중도에서 돌아서본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갈퀴처럼 심장을 찍은 때문이었다.

(그렇다! 왜놈세상에서 의사노릇할 때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돈을 좇아다니야만 했던 그 더러운 세상에서도 이런 일은...)

은산은 전율하듯 온몸을 부르르 떨며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런데... 해방된 이 땅에서 왕진길을 도중에 돌아서다니?!)

심장 한복판에 쿵 들어박힌 갈퀴를 누군가 잡아비트는듯 묵직한 아픔이 가슴 한복판으로부터 온 육신으로 천천히 퍼져갔다.

(돌아가자. 물을 건드나 빠져 영영 물귀신이 되는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강을 건너가야 한다!)

은산은 단호히 결심하고 돌아섰다. 그리고 한 시간가까이 돌아온 길을 되짚어 걸기 시작했다.

4

장은산이 강이편 마을사람들의 도움으로 여울목을 찾아 강을 건는것은 온 산골짜기를 짹 눌러덮었던 어둠이 새벽기운에 불리운듯 설핏해졌을 때였다.

환자는 은산이 혹시나 하여 걱정하며 되돌아온 구레나룻 《야학선생》네 이웃집 사람이었다.

은산은 그것을 대어섯그루의 뽕뿌라나무가 하늘을 치받올듯이 소소리높이 자란 마을어구 동구길에서 만난 30대의 중년사나이하테서 알았다.

어제 밤 왕진을 청한 환자네 집을 묻는 은산에게 그집을 대주면서 그 사람은 당신은 대체 누구냐는 뜻의 눈길로 은산을 훑어보았다.

《난 면에서 온 의사요.》

은산은 자기의 신분을 밝혔다.

그러자 그 사람은 더욱 의아쩍어하는 눈빛으로 은산을 살펴보는것이였다.

(?!...)

《뒤시간전에 군병원에서 너선생이 한분 왔던데요.》

은산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그가 하는 말이였다.

《너의사가? 군병원에서?!》

웨이듯이 다우쳐묻는 은산의 뇌리에 섬광처럼 번쩍하고 떠오르는 모습이 있었다. 간밤, 돌아가던 길에 만났던 그 녀자의 모습이였다. 중음의 듣기 좋은 목소리로 미루어 자기의 딸의 모습으로 련상해본...

(그 녀자가 군병원의사였구나!)

온몸의 맥이 발밑으로 해서 한순간에 쭉 빠져나가는듯 했다. 무엇인가 소중한것을 끝내 지켜내지 못하고 잃어버린듯 한 감이 들었다.

한편 자기가 길가에다 흘러버린 귀중한 시간을 군병원 녀의사선생이 메꾸어준것은 환자를 위해서는 물론 장은산자신을 위해서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으로 한순간 안도의 숨이 후나갔다.

《그래 ... 환자는 어떻게?》

은산은 자책과 불안, 행여나 하는 기대의 모순된 심정으로 물었다. 그러는 은산을 류달리 영채가 도는 눈으로 바라보던 사나이가 왕청같은 대답을 했다.

《우린 어제 밤 다리목에 나가 선생님들을 기다렸지오다. 그러다 이런 험한 날씨에 웬 선생님들이 오랴 해서 돌아섰지우다. 그런데 글썄... 군병원에서 왔다는 녀선생님이 새벽같이 박서방네 집에 불쑥 들어서는데 아니겠소다. 녀자의 몸으루 여울목을 건너오느라 죽을 고생을 다한 모양이우다. 온통 굵히구 찌지구... 헌데 이렇게 선생님까지 또 오실줄은... 어쨌든 우리 박서방은 복있는 사람이우다.》

《그래 환자는... 어떻게 됐소?》

은산은 가슴에 무거운 추같이 매달렸던 혹시나 하는 불안이 홀연 가시여지는듯 한 감을 느끼며 다시 물었다.

《이거 참, 뭐라고 해야 할지...》 하며 대답을 갑자르는 사나이의 얼굴에 금시 그러졌던 회한해하는듯도하고 어찌보면 부러워하는듯도 한 밝은 빛이 난처해하는듯 한 어두운 빛으로 일순간 변했다. 그러더니 쓸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박서방은... 죽었습니다.》

《뭐, 뭐요?》

은산은 어망결에 들고섰던 왕진가방을 놓아버렸다.

가방속의 치료기재들이 부딪치며 내는 예리한 금속성음향이 비온 뒤 아침녘의 말쑥하고 쌀쌀한 산촌대기를 가냘프게 흔들다가 찾아들었다.

《너선생님이 와서 반시간쯤 있다가... 숨이 켜수다. 헌데 시신을 덮어줄 변변한 천이 있어야지요. 그래 우리 집 해보를 떼가는 길이웨다.》

그제서야 은산은 그의 손에 들려있는 누르끼레한 낡은 베천을 보았다. 온밤 신고하며 찾아온 병인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축 늘어진 그 낡은 베천이 다 말해주는듯 했다.

《그 선생님이 고생했수다.》

은산이 땅에 떨어진 가방을 들어주며 사나이
가 말했다.

《물에 흠뻑 젖어가지구 와선... 들어서는길루
주사를 놓는다, 환자의 팔다리들 주물러준다, 숨
길을 메운 병자의 피가래를 입으로 빨아낸다...
딸이면 그렇게 지성이겠소다? 박서방이 난생 처
음 그런 사람다운 보살핌을 받으며 숨을 거둔건
행운이우다, 암, 행운이구말구요. 가는 사람도 그
걸 느꼈던지 숨지기전 마지막순간에 정신을 말끔
히 가다듬고 선생님의 손을 꼭잡더니 <고맙습니
다.> 하고 눈을 감더군요. 우리 박서방 마지막말
을 참 잘 남겼소다. 암, 고맙다마다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오셨으니... 참 면에서 왔으니까 <은산병
원>이겠습니까?》

말하는 사이 그의 얼굴표정이 무엇인가 부러워
하는듯도 하고 환희에 겨운듯도 한 밝고 따뜻한
빛으로 되돌아가는것을 꿈속처럼 바라보며 은산
은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그러자 오랜
지거나 만난듯 은산의 손을 덥석 잡고 그는 반가
와 어쩔줄 몰라 했다.

《아, 그렇습니까? 어제 밤, 선생님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접니다. 옷 목재소마울에 가서 ...》

은산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
다. 《전화, 비바람, 다리목...》 등의 단어들만 토
막토막 귀전에 날아들뿐이었다. 그 편결은 없었
다. 환자가 죽었다는 그 대답으로부터 받아안은
충격도 충격이려니와 작다고 할수 없는 체격을
가진 자기도 돌아서버린 사قم치는 강을 건너와
병자의 마지막운명을 몰바준 그 녀의사에 대하
이야기가 준 충격이 그만큼 큰것이였다. 돈을 바
라고서는 물론 그런 도함을 할수 없다. 순수한
인정으로써도 그처럼 사قم치는 강물에 뛰어들
엄두를 못낼것이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녀의사
로 하여금 연약한 녀성의 몸으로 사قم치는 그 강
에 뛰어들게 했는가? 또 무엇이 나로 하여금 죽
음의 그 강앞에서 물러서게 했는가?

알수가 없었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눈정기 류다른 그 사람한테 끌리다싶이 하며
빠달서하게 열려져있는 어떤 집 대문안에 들어서
면서도 은산은 그 녀의사가 벼랑굽이길에서 탁
부딪치고는 헤어진 자기를 알아보지 않을가 하는
걱정으로 몸이 다 졸아드는듯 했다. 부엌문과 정
지문 두개가 나란히 달린데다 붓나무껍질로 이영
을 덮은 작고 보잘것 없는 집이였다. 젓지 않은
토방 안쪽문결에 웅크리고 누워있던 아주 령리해
보이는 누렁개 한마리가 앞서 들어오는 낯익은
사람을 알아보고 누운채로 실박한 꼬리를 슬깃슬
깃 젓다가 그냥 누워서 알은체 하는것이 인사가
아니라는듯 움쭉 일어서 토방에 올라서는 그의
반쯤 걷어올린 바지가랭이를 검은점이 얼룩얼룩

박힌 몽툰한 주둥이로 툭툭 건드렸다.

은산은 그 모든것이 한동작한동작 또렷또렷 눈
에 안겨오는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마당 한가운
데 들어섰다.

《이거... 면에서 의사선생님이 또 한분 오셨수
다!》

누렁개의 잔등을 쓸어주는것으로 말 못하는 미
물의 인사를 건승 받아주고난 그 사람이 정지방
문을 활짝 열며 소리쳤다.

순간 은산은 문을 등지거나 마주하고 앉았다가
일시에 고개를 쳐들어 문밖을 내다보는 사람들중
에서 《성인학교선생》의 구레나룻터가 거뭇거뭇한
얼굴을 알아보았다.

《아니?!... 이거 ... 선생님두 오셨군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움쭉 일어난 그는
맨발로 문지방을 넘어와 은산을 방안으로 이끌었
다. 은산을 돌아보던 방안사람들이 엉거주춤 일
어서 인사들을 했다.

모두가 썩 나이든 남자들이였다. 벽 이편과 저
편의 끈지 못한 나무기둥 한증간에 못을 박고 이
불안갈아보이는 흰천으로 림시 막아놓은 구석쪽
에서 소리없이 일어서는 사람만이 유독 녀성이였
다.

은산은 간벽을 친 기둥 조금 옷쪽에서 기운차
게 불썽리를 내뿜고있는 카바이드등빛에 환히 드
러난 그 녀자의 어딘가 당황해하는듯도 하고 한
편 반가와하는듯도 해보이는 얼굴의 관골부위에
난, 무엇인가 심하게 굵히운듯싶은 상처자국을
보고 그가 다름아닌 군병원의 그 녀의사라는것을
직감했다. 짓물려진 상처자리는 그 녀자의 상큼
해보이는 흰목에도 길게 나있었다.

굽인돌이길에서 탁 부딪혔을 때는 목소리로 미
루어 서른살쯤으로 짐작했었는데 이토록 젊은 녀
자였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 스무살쯤 되었
을가, 가름하고 흰 얼굴의 썩 애젊어보이는 녀자
였다. 입고온 젖은 옷을 어딘가에 널어놓고 이
마울 어느 녀인의 옷을 입은 모양 나이에 어울리
지 않게 허술한 치마저고리를 입고섰는데 오히려
그때문에 애됨이 더욱 강조되는듯싶었다. 애됨은
목이며 얼굴에 난 상처자국에서 어쩔수 없이 느
껴지는 짙은 혈색에서도 강조되었다.

《군인민병원에서 오신 선생님입니다.》

《성인학교선생》이 엄청난 나이차이를 가진 초
면의 두 동업자를 소개해주었다.

《인사하시우. <은산병원>원장선생님이시오.》

《성함은 들어 알고있었지만...》

《선생, 수고 많았겠소.》

은산은 희고 가름한 얼굴에 일순간 밝은 표정
을 짓고 레절있게 머리숙여 인사하는 녀의사에게
진심으로 부터 그리고 이름할수 없는 자책감으로
부터 뜨겁게 말했다. 한편 이 녀의사가 굽인돌이

길에서 부딪혔던 자기를 알아보고 속으로 비난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인차 눈길을 내리깔고말았다.

하지만 너의사는 은산을 알아보지 못한 모양 자기는 의사가 아니라며 얼굴을 붉히고 당황해했다.

《그럼?!》

방안사람들모두가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전 ... 간호원입니다.》

《간호원?!》 은산이 놀란듯 받아외었다.

《예. 밤깊어 왕진 와달라는 전화가 왔는데 원장선생님은 몹시 앓고 다른 의사선생님들은 사태가 저 많은 사람들이 상한 린근마을로 왕진가고 없고해서... 할수 없이 저혼자 떠나왔는데 그만...》

환자를 살려내지 못한것이 자신의 죄이기라도 한듯 눈물이 글썽하여 말끝을 흐리는 처녀의 얼굴을 바라보는 은산의 눈앞에 군자치위원회에서 처음 만나본 뒤 한두번 더 본적이 있는 《동만의사》의 모습이 얼핏 떠올랐다 사라졌다.

(그가 앓다니?)

《이 선생님도 어쩔수 없었지우다.》

《성인학교선생》이 은산의 앞에서 나어린 간호원을 보호해주려는듯 말했다.

《저 박서방 병이라는게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니구 왜놈세상때부터 묻어오던 병인데 이녀선생님이 왔을 때는 다 기울어진 다음이었지요.》

《무슨 병이었소?》

은산은 의사의 직업적인 자세로 처녀에게 물어놓고는 곧 후회했다.

처녀앞에 권위있는 의사연 하고 서서 따져물을 아무런 권리도 자기에게는 없다는 생각이 든 때 문이었다.

《폐결핵이었습니다. 피가래에 숨길이 막혀... 그래서 입으루... 저로선 ...》

랭정해지려고 애쓰면서 떠듬떠듬 대답하던 처녀는 또다시 말끝을 흐리며 은산을 쳐다보았다. 처녀의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이는 그 눈빛에서 은산은 병자를 위해 자기가 취한 행동을 이 로의사가 어떻게 평가할가하고 불안해하는 그의 내심을 읽었고 그러자 어찌선지 자신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처녀의 손을 꼭잡고 다 들었다고, 간호원으로서 처녀동무는 할수 있는것 다 했을뿐 아니라 보통의사로서 할수 없는것까지 다하여 한 인간의 림종을 행복하게 해주었다고 그를 격려하고 치하해주고싶었다. 아니, 그보다 먼저 벼랑급이길에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고, 그때라도 되돌아서 동무와 함께 왔더라면 환자를 살려내지는 못한다 해도 다문 몇시간이라도 그의 생

명을 더 연장시켜줄수 있었을런지도 모른다고 솔직히 터놓고싶었다. 하지만 선뜻 그렇게 할수 없는 자신이 또한 불만스러웠다.

《선생님, 와 앉으십시오.》

아직도 그의 손에 그냥 들린채로 있는, 비에 젖을가봐 밤새껏 비웃에 싸들고다녔으나 이제와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되어버린 왕진가방을 받아들며 《성인학교선생》이 자리를 권했다. 그러자 웅기종기 물러섰던 사람들이 수선수선 물러서며 자리를 내주었다.

《우선 고인한테 한잔 붓소다.》

《성인학교선생》옆의 나이지숙해보이는 로인이 쇠붙이로 만든 녹슨 담배재털이에다 향불을 피우며 은산의 손을 잡아당겼다. 마을의 좌상으로 상사를 주관하는 로인 같았다.

은산은 로인이 끄는대로 제단앞에 꿇어앉아 그가 내주는 솥술잔을 받아들였다.

좌상로인이 잔에다 반쯤 빈 술병을 들어 막 부으려는 참이었다.

《원, 이런!》

거의 탄성에 가까운 외마디 웨침소리가 방문밖에서 들려오더니 이어 빠극- 하고 문열리는 소리가 났다. 제단을 주시하던 방안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바라보는것 같았다. 은산은 그것을 등지고 앉은 방안의 공기로써 느꼈다. 그쪽을 돌아보지 않는것은 술잔을 든 은산이와 술병을 든 좌상로인뿐이었다.

《아니?!》하는 짧다란 비명과 함께 이불보구석쪽에 서있던 간호원처녀가 문쪽으로 다가가는것을 느끼며 은산은 로인이 잔에다 술을 붓기를 기다렸다.

《적은이!》

뒤에서 금시 일어난 기척을 못느낀듯 로인은 은산의 잔에다 술병을 기울이며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말했다.

《임자는 가두 해방덕을 보고 간다니, 왜놈세상 같으면야 왕진이 다 원가? 해방이 되었으니 임자같은 농사군한테 군병원, 면병원 해가지고 의사선생님이 작히 두분씩이나 왕진을 오신게 아니겠나? 그 험한 비속을...》

《아니외다!》

뒤쪽에서 누군가의 격한 목소리가 로인의 말을 끊어버렸다.

《방금 또 한분이 오셨수다. 혼자 떠난 간호원이 걱정되어 군병원 원장선생님이...》

《뭐?!》

좌상로인이 술을 붓다 말고 문쪽으로 얼굴을 들었다.

은산이 역시 술잔을 든채 그쪽을 보았다.

활짝 열어젖힌 키낮은 방문앞에 희어멀결게 쳐다보이는 구름낀 하늘을 배경으로 두사람이 서있

었다. 앞에선 농민같이 보이는 사람이 방에 들어서지 않고 한옆으로 물러서자 그뒤의 사람의 전모가 다 보였는데…가랑이가 후렁후렁한 바지며 흰 김이 문문 피어오르는 흰사쓰며에 온통 흙때 탁질이 된 그를 알아보는 순간 은산은 하마트면 술잔을 놓아버릴 뻔 했다. 그는 바로 군인민병원 원장인 《동만의사》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와는 판다른 모습이였다. 그때는 군살 한점 없이 갱뽕한 그의 얼굴에 힘과 건강과 강단이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해쓱하니 피기가 가신것이 첫눈에 보매도 중병환자임이 틀림없었다.

(이 사람이 언제 저렇게 되었는데? 그 몸에 왕진을 떠나오다니?!)

은산은 다리가 끊어진 강을 한발 먼저 건너온 《너의사》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상으로 놀랐다. 그리고 깊은 가책을 느끼며 엉거주춤 일어섰다.

《누가 또 왔다고요?》하는 소리와 함께 키낮은 부엌간문이 열리고 재빛으로 아주 희어버린 술적은 머리칼을 단정히 쪽진 로파가 들어선것은 이때였다.

《내 저사람 예미외다.》

온통 주름살투성이의 얼굴에 비애나 슬픔보다는 그어떤 환희에 가까운 놀라움이랄가 반가움이랄가 기꺼워하는 빛을 머금고 로파가 지기 소개를 했다.

《군병원 원장선생이외다. 저분은 은산병원 원장선생이구요.》

《야학선생》이 문결에 가까이 서있는 《동만의사》를 먼저 소개하고 은산을 가리켰다.

《알지요. 내가 왜 원장선생님을 모르겠수?》

《동만의사》의 손을 꼭 잡고 어루쓸며 로파가 반었다.

《울봄 우리 마을에 와서 이 손으루 창수 애비랑 우리 마을사람들을 다 진찰해주구 돌아가서는 우리 애한테 귀한 약까지 지어 보내주질 않았수? 아애비가 그 정성을 다 받지 못한채 가진 했지만 서두… 그런데 선생, 얼굴이 왜 이렇게 못쓰게 됐수?》

로파는 걱정에 겨운 눈빛으로 《동만의사》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 눈빛속에도 떨리는 어조에도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같은것은 없었다. 고마운 사람의 몸상태에 대한 녀려와 근심만이 후덥게 흘렀다.

《제 몸이 뭐 어떻습니까?》

《동만의사》가 웃어보이며 판전을 부리다가 옆에 서있던 간호원처녀가 갑자기 흐느끼는 바람에 딱 굳어졌다.

《너무합니다, 원장선생님은…》

딱 잠겨드는 목소리로 처녀는 말했다.

《우리 원장선생님은 일전에 군내 산간마을들을

다 돌며 진찰하고 간 다음 일부 마을들에 고질적으로 내려오는 토질병을 예방할 새로운 약을 만들고 그 약을…》

《영순동무-!》

《동만의사》가 그의 손을 잡아채며 말을 못하게 했다.

그러나말거나 처녀는 계속했다.

《그 약을 제 몸에 먼저 시험해보다가 부작용이 나는 바람에 그만… 그래서 알리지 않고 혼자 왔는데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순간 은산은 그 무엇에 찢린 사람처럼 몸을 흠뻑 떨며 시선을 떨구었다. 평범한 산골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제 몸에도 약물실험을 하다니? 그러고도 모자라 저렇듯 병약해진 몸으로 그 멀고 험한 왕진길을 달려오다니?! 은산이 자신이 몸담고 치료를 해오던 지나온 저 세상에서는 들어보기는 커녕 상상조차 해본적이 없는 일이었다.

새로운 사상은 그것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가 되어있는 투사형의 일군들에 의하여 현실로 꽃핀다고 하던 파견원의 말이 새로운 의미로 귀전을 때렸다. 하다면 저 사람이, 이들이 바로 그런 《투사》들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나는?!

《장수 애비야!》하고 로파가 제단앞에 주저앉는 바람에 은산은 고개를 들었다.

《아애비야, 너 들었니? 봤니?》

로파가 이불보너머 고인을 목놓아 부르며 말을 이었다.

《넌 위해 전번에 약이랑 보내주셨던 군병원선생님이랑 면병원원장선생님이랑 다 오셨다. 너같은 농사군이 뭐라구… 이런 험한 날에 다리가 끊어진 강을 건너 세사람씩이나 온단 말이나? 응?! 그런데 넌 왜 누워만 있느냐? 일어나 고맙다구 절이라두 해야 될게 아니냐? 응, 창수 애비야!》

《창수 할멈.》

은산을 강가에서 맞아들여온 사람이 로파를 안아일으키며 말했다.

《박서방은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구 갔수다, 처녀선생님한테 …》

《늦은게 주책없이 울고불고 한다고 욕하지 마시우.》

빈 술잔을 그냥 든채로 서있는 은산의 팔을 부둥켜잡고 로파가 랑해를 구했다.

《저같은걸 살리겠다고 먼길을 달려온 의사선생님들이 고마와서… 이러는거우다. 정말… 고맙세다!》

로파의 목소리는 완연 울음에 먹히워버렸다. 깊은 주름이 가로세로 그어진 두볼도 눈물에 하락하니 젖었다. 하지만 은산을 끝추 바라보는 로파의 젖은 눈속에서는 환희에 가까운 기쁘고 열렬한 빛발이 소리없이 흘러내리고있었다.

그것은 감격과 감동에 겨운 뜨거운 감사의 빛이었다.

은산은 그 눈을 마주 볼수가 없었다. 그 눈속에 담긴 고마움에 겨운 감사의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자기에게는 꼬물만치도 없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다. 아니, 아니다. 그런 자격이 없을뿐더러 나는 이 로인앞에 무릎을 꿇고앉아 자신의 잘못을 터놓고 빌어야 한다.

하어 《어머니!》하고 불렀으나 은산은 뒤말을 잊지 못했다. 차마 이을수가 없었다. 가슴속에 고패치는 그 말을 하면 이 방안에 가득 서있는 이 사람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이 로파의 가슴속에서조차 상실의 아픔과 슬픔을 몰아내고 그득히 고여오른 뜨겁고 열렬한 감정, 이들이 《해방덕》이라고 즐겨 말하는 그 환희에 찬 아름답고 기꺼운 감정을 흐려놓을것만같아 두려웠던것이다.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모순된 감정의 무게에 눌리운듯 은산은 소리없이 술잔을 내려놓고 다시 끓여앉았다. 술병을 들고있던 좌상로인이 쪼록쪼록 소리나게 술을 부으면서 말했다.

《박서방 반계. 임자를 살리겠다고 년로한 몸으로 끊어진 다리를 건너온 변병원 원장선생이 붓는 술이네. 저세상에 가서두 잊지 말라구.》

은산은 로인의 말마디들이 비수처럼 심장을 찌르고 드는 바람에 눈을 딱 감았다. 그러자 회오의 뜨거운 눈물이 툭툭떨렁 떨어졌다.

《선생님, 너무 그러지 마시우다.》

제사 은산을 위로하며 로파가 말했다.

《우리 앤 갓지만 그 애 이름으로 분여받은 땅에서 제 애비가 누리지 못한 해방덕을 보게 될 내 손주들이 있지 않수.》

그제서야 은산은 방 한쪽구석에 우두커니 서있는 열서너살 먹어보이는 총각애와 그보다 두어살 어려보이는 몽당치마차림의 처녀애를 보았다. 모색이 비슷한것이 고인내 자식들 같았다. 낮도 코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왜 자기 아버지의 령전앞에서 눈물을 흘리는지 그리고 왜 할머니는 오히려 그를 위로하는지 도무지 그 까닭을 리해할수 없다는듯 어리둥절하여 쳐다보는 그애들의 눈과 시선이 부딪치는 순간 은산은 술잔을 놓고 일어서 고개를 숙이며 물러섰다.

(저 애들이 내가 돌아섰다가 다시 온걸 알면 뭐라고 하겠는가? 친진한 그 눈빛이 실망과 경멸의 빛으로 달라질제 아닌가!)

《박서방. 반계. 임자에게 약이랑 손수 구해서 보내렸던 군병원 원장선생과 임자를 눈감기위준 녀선생이 붓는 술이야. 녀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했지... 원장선생님한테 우리가 할테니... 걱정말라구.》

산 사람과 이야기하듯 하는 좌상로인의 말을 꿈속처럼 멀리 들으며 은산은 술잔을 들고 앉은

《동만의사》와 소곳이 고개를 숙인채 서있는 처녀의 뒤모습을 이윽도록 지켜보았다. 저 처녀보다 훨씬 먼저 와닿을수 있었던, 아니 먼저 와닿았어야 할 자기였건만...저 어린 처녀가 목숨을 내걸고 건너온 강앞에서 자기는 돌아섰던것이다. 저 병약한 《동만의사》도 분명 주저없이 뛰어들었을 그 강앞에서 나는... 왜? 무엇이 모자라서?!...

《고맙세다.》

술잔을 놓은 다음 목도를 마치고 고개를 쳐드는 《동만의사》의 손을 잡고 격하여 웨치는 좌상로인의 말에 은산은 눈길을 들었다.

한손으로 《동만의사》의 손을 잡고 무슨 말인가 하려는듯 입귀를 실룩거리며 눈으로는 누군가를 찾던 로인은 한옆에 물러서있는 은산을 발견하자 다른 손으로 그의 손을 덥석 잡고 흔들었다.

《선생님네들, 고맙수다. 고마워요.》

솔직한 말투 다 할것 같으면 난 오늘 박서방한테 연줄연줄 찾아드는 의사선생님네들을 보면서 나도 한번 앓아보고싶고 웃는말갈지만 죽어보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수다. 그러면 나같은것 한테 두 이렇게 방안이 미여지게 왕진을 올게 아니겠수? 허,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저 박서방두 고맙다는 말을 하고 갔지만... 이렇게까지 고맙고 희한한 일이 따라올줄은 몰랐을게우다.

어쨌든 왜놈때의 말로 우리같은 막놈들을 위해서 그 험한 길을 달려온 선생님네들이 정말 고맙세다. 글썄 우리같은게 뭐라구 그 귀하신 몸들을 그런 험지에다 함부로 내댄단 말이시우.》

로인은 또다시 격해져서 입귀를 실룩거리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나 물기어린 눈에만은 기쁨같은 빛이 반짝이고있었다. 그러한 빛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빛나고있었다. 해방과 함께 사람들의 눈에 어리기 시작하여 날을 따라 더욱 열렬하고 뜨겁게 타오르는 전에는 보지 못하던 생에 대한 희열의 빛이었다.

은산은 그 눈빛들을 마주 볼수가 없어 얼른 고개를 떨구었다. 감사와 감격에 겨워 어쩔줄 몰라하는 그 눈빛들을 바라보기엔... 간밤 자신의 행동이 너무도 역겨웠던것이다.

《로인님! 말씀을 낮추십시오.》

《동만의사》가 로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우린 로인님이나 이 애들 아버지같은 평범한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몸쓸 왜놈의 세상에서는 로인님같은분들이 갖은 수모와 멸시를 다 받으며 죽지 못해 살아왔지만 지금은 나라의 당당한 주인입니다.

이제 두고보십시오. 머지 않아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모두가 무상으로 치료하고 무상으로 치료받는 그런 희한한 세상을 펼쳐주실것입니다.

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백두산에서 싸우실 때부터 벌써 그런 인민의 세상을 구상해오셨고 그런 인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빨찌산투사어른들은 백두광야에다 귀중한 목숨을 아낌없이 쏟았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의 생명을 위해 큰물진 강을 건너온것이 무슨 큰것이겠습니까?》

고인의 령구앞인지라 《동만의사》는 그 어떤 속삭임처럼 조용조용 말했다. 허나 은산에게는 그 소리가 폭탄튀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인 인민이 무상으로 치료하고 치료받는 세상!

은산은 잠시 자신을 잊고 몇번이고 속으로 그 말을 되뇌어였다.

무상으로 치료하고 치료받는 세상! 난생 처음 듣는말이었다. 지난 수십년동안 의사노릇으로 생업을 유지하며 늙어온 그로서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그렇게 되면 의사와 의술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절로 다 평등해질것이 아닌가?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생전에 바라마지 않던 소원이었고 은산이 자기 역시 한생토록 바라면서도 이룰수 없었던 리상이었다. 아니, 이 나라 백성들모두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면서도 도무지 누려볼수 없었던 아득한 꿈의 세계였다.

과연 세상에 그런 리상사회가 있을까?

은산은 아니... 하고 속으로 도리머리를 저었다. 잠시 잊었던 자기를 찾은것이었다.

(그런 세상의 한끝이 벌써 우리에게 현실로 오지 않았는가?)

그래, 왔다! 연약한 처녀의 몸으로 사뭇치는 강물속에 서슴없이 뛰어든 저 처녀와 산간마을 이름없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자기 한몸을 주저없이 약물실험에 바친 《동만의사》의 찢기고 병약해진 모습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몸담고 살게 될 래일을 보고있다. 이제 겨우 《선》이나 보였을뿐인 새 사회의 인민적인 모습 앞에서 사람들은 다함없는 기쁨을 느끼고있다. 그 기쁨이 천지의 죽음앞에서조차 비애의 눈물과 슬픔의 한숨이 아니라 생의 희열과 환희, 무한한 인간적감동을 주고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전 《동만의사》가 말했듯이 **김일성**장군의 령도아래 이 나라 빨찌산투사어른들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피어린 싸움의 불길속에 안아온 세상인것이다.

은산은 눈앞에서 무엇인가 번쩍하는것을 보았다. 그 어떤 커다란 깨달음으로 심장이 벅차올랐다.

무궁한 인류력사와 넓으나 넓은 세상앞에 이제 겨우 첫 모습을 보였을뿐이지만 그러자 곧 인민의 끝없는 지지와 성원을 받는 이 새 나라는 **김일성**장군의 령도를 받들어 이 나라 항일빨찌산투사들이 피어린 싸움으로 안아온 인민의 새 세상이라는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은산은 절감했다. 인민이 주인으로 등

장한 이 새 세상이 과연 어떤 각오를 지닌 일군들을 기다리고있는가를...

바로 그런 《투사》로 살 각오를 가졌기에 간호원처녀와 《동만의사》는 목숨도 아랑곳없이 위험속에 뛰어들었지만 그런 투사가 못되었기에 나는... 의술은 인술이 아니라 금술, 돈술이라고 돈밖에 모르는 더러운 그 사회를 저주하며 침을 뱉고 외면은 했을망정 나 자신이 눈물겹게 동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제 한목숨 내대고 싸우지 못했고 지나간 밤에도 《죽음》의 공포를 던지는 강물 앞에서 돌아섰던것이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는 량심을 운운하는 우국지사는 되었을망정 투사는... 될수 없었다.

이제는 모든것이 리해되었다. 먼 읍거리로 물결쳐가는 고향사람들의 모습에서 느껴지던 그것, 지금 이방 가득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은 자기들모두를 주인의 지위에 올려세워주고 일군들모두가 진정한 보호자되어 자기들 생명과 행복을 지켜주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신 위대하신 **김일성**장군님께 드리는 만백성의 감사의 인사였고 고마운 이 세상을 위함이라면 자신들도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칠 뜨거운 맹세- 바로 그것이었다.

그것을 여태껏 리해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힘들게 이끌려온 자신이 갑자기 허무해졌다. 그리고 어제 밤의 왕진길이 낡은 세계에서 방황하던 자기보신의 타성으로 이어진 마지막왕진길이 될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쩐지 눈물이 났다. 뜨거운 눈물은 그의 주름깊은 볼을 씻으며 방울방울... 천천히 굴러내렸다.

《선생, 울지 마시우.》

좌상로인이 은산의 손을 짹 잡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서방은 갔어두 좋은 세월에 남겨놓고 간 저 애들이 있지 않수? 못된 세월이 준 병때문에 아쉽게 간 제 아버지뭇까지 다해서 저 애들이 오래 행복하게 살거웨다.》

순간 은산은 눈앞에 언뜻 떠오르는 그 《좋은 세월》을 분명히 보았다.

술곳이 머리를 숙이고 선 처녀의 찢기고 갈린 모습에 그리고 흠때박질이 된 《동만의사》의 몹시 축간 모습에 비추어진 그 좋은 세월은 은산이 아직 본적이 없는 신비의 세계였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계를 위하여 은산은 이제 남은 여생을 아낌없이 다 바칠것이었다.

아! 그 좋은 세월에 살게 될 저 애들의 앞날은 얼마나 밝고 휘황할것인가!

갑자기 눈앞이 환해졌다. 활짝 열려진 창문으로 장마이래 처음 보는 찬란한 해빛이 눈이 부시게 비쳐들고있었다.

×

이것은 의학대학을 졸업한 내가 군병원의사로 배치받아 오던 날 이미 우리 곁에 없는 장은산의 외조카인 나의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이다.

남지 않는 문서

리성식

8월 15일.

오늘은 조국해방의 날이다.

우리 집은 아침부터 흥성거렸다.

명절도 명절이었지만 보다 우리를 즐겁게 만든 것은 올해 일흔일곱살인 나의 아버지가 연단에서 토론을 하게 된 사실이었다. 그해 온 식구가 떨쳐나 아버지의 토론준비를 도왔다. 안해는 아버지의 외출복을 옷장에서 꺼내 깨끗이 손질하였고 아이들은 훈장과 메달들을 닦아 옷 앞섶에 달았다.

나는 아버지의 토론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걱정을 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훈장증서들과 함께 장속에 건사했던 크지 않은 종이장을 하나 꺼내놓았다.

《토론문을 따로 쓸게 있다. 여기에 갖든 사연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해주려다.》

색날은 그 종이장에는 한자를 섞어 쓴 글이 몇 줄 적혀있었다.

《성별: 리여찬

출생일 : 소화3(1928)년 11월 28일

거주지: 구성군 하단면 마양리

상기 자는 《대일본제국》의 <황군>에 초모되었음을 알림. 소화20(1945)년 8월 14일》

날자밑에는 관청도장이 큼직하게 찍혀있었다.

호기심에 차서 그것을 넘겨다보던 나의 자식들이 물었다. 《할아버지, 그건 뭐냐?》

《날 죽으러 가라고 보내왔던 호출장이다.》 아버지는 이러며 서글피 웃었다. 나는 그 종이장이 무엇인지를 알고있었다.

1945년 8월 중순의 어느날.

아버지네 집에 먼서기가 나타났다. 먼서기는 빨간 딱지를 할아버지 앞에 내놓았다. 《징병》통지서였다. 아버지네 집은 금시 초상난 집처럼 되고말았다. 바로 이태전인 1943년 봄 나의 큰아버지도 《징용》통지서를 받고 집을 떠난 후 일본 효고현의 하리마조선소에서 노예로동을 하다가 비명횡사를 당하였고 고모 역시 녀자 《근로정신대》모집통지서를 받고 집을 떠난후 남방의 어느 한 섬에서 일본군 《위안부》생활을 강요당하다가 한 많은 세상을 저주하며 바다물속에 꽃같은 청춘을 던졌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방금 열일곱살에 잡힌 집안의 막내인 아버지가 《죽음의 통고서》를 받은것이였다. 다음날 경찰관주재소의 일본놈순사가 칼을 절령거리며 아버지를 찾아왔다. 《징병》에 응하든가, 아니면 전신 《국가총동원령》을 어긴 《죄》로 감옥에 끌려가야 할 판이였다.

아버지는 할수 없이 순사놈의 칼끝에 밀리워 집을 떠났다.

중낮무렵 아버지가 군청에 이르니 수십명의 청년들이 이미 와있었다. 대다수가 아버지나이또래의 애어린 청년들이였다. 하긴 나이 듚직한 청장년들은 이미 다 뽑아갈대로 뽑아갔으니 이제는 콩나물크기를 기다렸다가 솜아내는 식으로 모집한 애송이들밖에 없었다. 놈들은 신체검사도 거치지 않고 《초모생》들을 헌병들의 감시하에 급급히 정거장으로 물고갔다. 정거장에는 기본철도선인 정주역까지 가는 뽕뽕이차가 대기하고있었다.

출구를 봉인한 유개방통들이 주련이 매달려있었는데 그 앞의 한 무개방통에 아버지네를 승차시켰다. 두놈의 헌병이 올라 문을 지키고 앉았다.

《꽤액!-...》

뽕뽕이차는 목갈린 기적을 울리며 정거장을 떠났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가는 곳마다 벌어졌다.

철다리와 차굴들이 여느때없이 파괴되어있었고 그전에는 헌병만 봐도 달아나던 사람들이 오히려 차에 대고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을 해대는것이였다. 철길이 못쓰게 된 곳이 나질적마다 아버지네는 끌리워내려가 그곳을 복구하고 다시 방통에 오르곤 했다. 기차는 이틀만에야 100리구간을 통과하여 정주고을에 들어섰다.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저희들끼리 수군거리던 왜놈헌병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자치대》완장을 낀 철도구사람들이 기차를 점거하였다. 한 《자치대》원이 아버지를 보고 혀를 찼다. 《한심하군. 해방이 된지가 언젠데 아직도 왜놈 종노릇을 하고있다니!》

아버지네는 그때에야 비로소 일본놈들이 망하고 나라가 해방되었음을 알았다. 《자치대》원들이 유개방통들을 열어제겼다. 어떤 방통에는 아마공장의 방직설비들이 가득 들어있었고 또 어떤 방통에는 구성에서 살던 왜놈들의 가족들이 실려있었다. 그러니 왜놈들은 저희네가 패망의 위기를 느끼고 쫓겨가는 짐을 무사히 운반하기 위해 군대초모를 구실로 청장년들을 《로력동원대》로 동원시켰던것이다. 그들의 시체로 침묵을 깔아서라도 목적지까지 기어이 달아나려던 놈들의 계획이 드러났다. 하마트면 나라가 해방될줄도 모르고 놈들의 패망짐을 나르다 원통한 죽음을 당할번 한것이다. 아버지네는 분노로 하여 치를 떨었다. 것처럼 교활하고 악독한 왜놈들이였다. 강점

수십년간 우리 나라의 재부를 악착스레 약탈하였으며 조선사람들의 피땀을 빨아먹던 놈들. 840여 만명의 조선청장년들을 《징병》, 《징용》으로 끌어들여 제놈들의 대포밥으로 만들고 노예처럼 부려먹다못해 망해 쫓겨가면서까지 애젊은 조선청년들을 제놈들의 도주길을 여는 《로력동원대》에 써먹은 놈들.

일제침략자들의 그 악랄한 죄행을 눈에 훑어 들어가도 잊을수가 없어 아버지는 1945년 8월

14일... 그날에 놈들이 발급했던 가짜 《징병》령장을 일생토록 간수해온것이다.

세월이 흘러 그 문서장의 색깔과 글자들은 닳았어도 아버지의 마음속에 새겨진 문서장은 아직 그대로 생생히 남아있는것이다.

력사의 증서, 복수의 근거문서로!

바로 그 마음속의 《문서장》을 오늘 아버지는 사람들앞에 공개하려 하는것이다.

나는 평화를 말한다

장명길

1

만들기는 제놈들이 먼저 만들고
떨기는 제놈들이 떨고있다
불장난 즐기는 호전광이
불의 위력 또한 잘 알고있기에

핵전쟁의 도화선!
평화와 인류의 운명을 위협하는
재앙의 불씨는 제땅에 두고
신성한 내 조국을 건드리려는 미제!

오직 하나 이 세상에서
힘의 론리가 통하지 않는 나라
봉쇄의 사슬을 조여도
일망무제 새 땅은 가없이 펼쳐지고
새 물길은 열려 열려 옥토벌 적시고
세월의 잠을 깨는 명승명소들
사회주의는 선경으로 날로 빛나니

미제는 발광하고있다
이 땅의 모든것에 위협을 느끼고있다
선군의 위력앞에 공포를 느낄수록
비렬한 증상에 매달리고있다
더욱더 핵우세에 박차를 가하며
대화와 평화를 파괴하고있다

미제는 알수 없으리
무지한 탐욕으로 리성을 잃은 오늘엔 더욱
전쟁은 핵무기로만 이기는것 아님을
핵무기가 만능의 힘이 아님을
지난날의 참패도 잊고

그 수치스런 력사도 잊고
또다시 핵우산밑에서 칼을 가는 미제
한시도 전쟁바람 멈추지 않고
끝까지 대결에로 달음치는 미제

명심하라
이 땅엔 강력한 핵억제력이 있다
그것은
평화를 유린하는 죄많은 미제
우리를 건드리는 가소로운자들
단호히 징벌할 정의의 힘이다!

2

세월은 흘러흘러
반세기를 사이두고 마주섰어도
20세기가 몸서리친 재난의 날은
흘러간 세월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십만의 생명을 순간에 재로 만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극
맑아질줄 모르는 그 하늘아래서
오늘도 인류는 잠못들고있다

세계의 수십억사람들이
어이하여 불안속에 떨고있는가
화목하고 평화롭던 많은 민족들이
누구로 하여 피흘리고있는가

어제날의 유고슬라비아
그 폐허된 강토에 물어보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그 수난당한 민족들에 물어보라

《평화유지》와 《테로방지》

파렴치한 미제가 내흔든 간판아래서

유지되는 평화인가

유린당한 평화인가

가는 곳마다 닿아있다

분쟁으로 파헤쳐진 나라들에도

정치가 혼탁된 나라들에도

《민주주의전과》와 《자유》를 떠벌이는

미제의 검은 마수가

핵우산을 《초대국》의 감투로 쓰고

어디에나 발길을 들이미는 미제

미국식자유를 강요한 최악의 발자취 따라

세계 곳곳에선 흐르는 피 멎을 새 없거니

인류의 복리를 위배 바친

한 과학자의 탐구의 열매를

인류교살로 우롱한 미제

오직 하나 제 포식을 위해

핵대국의 야망에 들떠있는 미제

미제가 지구상에 있는 한

이 세계는 언제가도 평온할수 없거니

선량한 인류량심은 웨친다

증명이 필요없는 력사의 정의를!

미제-너는 평화의 교란자이다!

3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그가 누구든 여기 와보라

미제의 강요로

강토가 동강나고 민족이 흩어진

여기 조선에

그러면 알수 있으리

이 땅이 하나가 못되는 그 사연

미제의 세제제패야망의 희생물로

분렬의 고통을 강요당하는 조선

남의 행복엔 재를 뿌리고

남의 고통엔 박수를 치는 미제

아시아의 최대 핵저장고

세계핵대전의 발화점이 되어

평화의 꽃들이 피지 못하는 땅

전쟁 ...살인 ... 강탈...

이것이 조선에 남긴 미제의 발자취이다

온 남녘땅을 피로 물들이고

《해방자》의 가면을 스스로 벗어던진

보라

《전략적유연성》의 날강도론리를

또다시 부르짖는 미제

아시아와 전세계를 타고났기 위해

끝까지 대결과 분렬을 추구하지 않는가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우리는 당당히 핵무기를 가졌다

우리는 변함없이 선군을 하리라

말로써는 핵전쟁을 막을수 없기에

힘이 없인 평화를 지켜낼수 없기에

오, 눈물겨운 반세기

분렬민족사에 우리 겨레가 새긴

그 증오의 피구절을 다시 읽으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갈망해온

인류의 숙원도 합쳐

나는 선언한다

핵무기가 없으면 살수 없는 미제

미제가 없으면 핵문제도 없다

미제가 없어야 전쟁도 없기에

조선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아, 미제가 없는 새세계

나는 이것을 평화라고 말하고싶다

총잡은 새세대 우리가 있다 (외 1 편)

송재하

전쟁의 불구름 밀려온대도
마음놓으시라 조국이며
그대 품에 태어나 뼈를 굳혔고
그대 품에 자라나 심장이 커진
총잡은 새세대 우리가 있다

갈라진 조국의 지도앞에서
불타던 락동강기슭을 찾으며
세대의 임무를 깨우친 우리
죽음을 이겨낸
전쟁로병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난의 언덕을 헤쳐넘은 세대

그 나날에 마음의 키가 자랐다
사랑의 노래는 어떻게 불러야 하고
증오는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를
고동치는 심장속에
변색없는 사진처럼 새겨넣었다

자 누구든 우리 가슴 헤쳐보라
락동강기슭에서 다 쓰지 못한
선렬들의 그 총탄이 만장탄 되어있다

조국이 명령을 내린다면
승리의 함성높이 달려나갈 우리다

그렇다 불타는 고지우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맹세문을 쓰던
그 선렬들의 후손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결전장에 선다면
그들처럼 맨 앞자리를 차지할...

조국위한 선렬들의 뜨거운 피줄기
우리 세대로 그대로 이어져
조국이며 그대만을 생각하며
혁명의 군복입고
성스러운 조국초소 지켜선 우리거니

민으시라 조국이며
결전의 시각이 온다면
하나밖에 없는 청춘을 바쳐
《김정일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리
통일된 삼천리에 승리의 축포를 울릴
조국이며 그대의 아들
총잡은 새세대 우리가 있다!

우리 다시 만나자

헤여지기 아쉬워
교문앞을 떠나지 못하는 벗들이여
이제는 잡은 손을 그만 놓자
앞가슴에 훈장 걸렁이며
다시 만날 우리 아니나

작별은 아쉬워도
상봉은 아쉬움 없어야 하거니
벗들이여 웃으며 떠나가자
몸과 마음 씩씩하게 자래워준
정다운 모교에
우리 다시 인사를 드리자

거창하면서도
변화무쌍한 생활의 바다가
우리의 눈앞에 끝없이 펼쳐져있다
해빛밝은 교정에서 그려보던
그 모든것이 어서 오라 손짓하고

꿈도 푸르고 생활도 푸르다
새세기의 조종간을
억센 두 팔뚝으로 틀어잡았거니

누구도 우리 걸음 막지 못한다
누구도 우리 힘 당하지 못한다

자 보아라
수호의 총검으로 숲을 이룬
최전연초소가 우릴 부르고있지 않느냐
희한하게 일떠선 최첨단과학기지들과
넓고 푸른 조국의 산과 들이
소리치며 달려오고있지 않느냐

생활의 닳은 이미 올랐다
위훈의 금별은 빛을 뿜는다
한걸음이라도 뒤떨어진다면
시대의 락오자 되어
새세기 벽찬 대오속에 들어설수 없으라

그렇다 우리는 청춘
우리 가는 앞길에
태양은 언제나 찬란히 빛나거니
조국의 아들로 자랑떨치며
벗들이여 우리 다시 만나자!

로병-시인의 심장의 노래

-시집 《모란봉기슭》을 펼치고-

최연경

시집 《모란봉기슭》을 낸 시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원쑤 미제와의 판가리혈전을 벌리는 속에서 전쟁에서는 피와 생명만이 영예와 바꿀수 있다는 불의 철리를 심장으로 익힌 로병-시인이다.

불과 불이 오가는 그 가렬한 격전장에서 시인은 결코 총대로만 싸우지 않았다. 결전의 길에서 시인이 심장으로 쓴 시편들에는 조국에 드리는 병사의 뜨거운 사랑과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가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병사의 심장속에 불타는 애국의 열정과 소박한 시행속에 움트고있는 재능의 싹을 그리도 소중히 여기시여 그를 당당한 시인으로 키워주시였다, 문학예술혁명의 나날에는 보람찬 가극창조의 길에도 세워주시였으며 오들은 시인의 한생 총화라고도 할수 있는 시집까지 내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우리는 시집을 펼치며 먼저 《모란봉기슭》이라는 제목에 담겨진 깊은 뜻을 새겨보았다.

여기에는 꿈결에도 기다리던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인민들과 개선인사를 나누시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듣고 학장동 무들과 함께 모란봉기슭의 《기림리공설운동장》(오늘의 김일성경기장)으로 달려가 수령님의 개선연설을 받아안던 그날의 시인의 걱정이 뜨겁게 담겨져있다. 그때의 그 감격이 즉흥시 《1945년 10월 14일》에 그대로 새겨져있다.

혁명의 년대와 때를 같이하는 시인의 창작행로를 따라 《해방을 맞을 때 나는 청년》, 《땅크와 함께》등 6개의 편으로 된 시집 《모란봉기슭》(한찬보작)에는 88편의 서정시와 4편의 시초가 수록되어있다.

그가운데는 《나는 땅크병》, 《공화국기발》, 《대전에서 바라본 북두칠성》, 《생명》 등의 전시시가를 비롯하여 《땅을 분여받은 날》, 《풍년새가 날아든다》, 《진정을 노래하렵니다》, 《잊을수 없는 모습》, 《인생의 평마루에서》와 같은 좋은 시들이 적지 않다.

한생의 총화라고 볼 때 시집에 수록된 시가 결코 많다고는 할수 없다. 또 시인이 쓴 모든 시가 다 명시인것도 아니다.

하지만 시인의 위치는 다작에 의해서만 결정되는것이 아니다. 한편의 시를 가지고도 인민을 혁명으로 불러일으키고 세계를 깨우치는 시인, 그

가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시인이다.

우리는 지금 공화국영웅 리수복이 남기고 간 한편의 시를 두고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는 영웅의 고결한 삶. 력사와 더불어 불멸하는 명제에 대하여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나쇼날》, 그 한편의 노래로 자주성을 위해 싸우는 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한 혁명가-시인 에첸 보띠에 그리고 또 한편의 노래로 전체 쏘베트인민을 파쑈도이첸란드를 반대하는 성전으로 불러일으킨 노래 《정의의 싸움》에 대하여 생각한다.

시집 《모란봉기슭》에도 그런 혁명적인 시가 있다. 세월은 흘러 노래가 나온지도 근 반세기가 되었으나 가요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수령의 추억속에 있고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하다.

혁명의 붉은 대오 우리는 인민군
로동당 품속에서 자란 투사다
불구름 뚫고가는 싸움의 나날에
전우들 붉은 피를 당에 바쳤다
(후렴)

동무들아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우리의 심장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어제날 우리 부모 억눌린 무산자
오늘은 보람찬 천리마기수
그렇다 당이 있어 조국은 억세고
그 품에서 인민들은 행복 누리네
(후렴)

수백만 힘과 지혜 굳게 뭉친 로동당
김일성원수님 령도하시는 당
그러기에 초소에 선 영예 높아라
초병들 앞길에는 승리뿐이다
(후렴)

오늘도 그날처럼 천만군민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는 수령결사옹위의 노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만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진심으로 받들어나가야 하며 수령님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장하여야 합니다.》

당시 수령결사옹위의 노래가 인민군대에서 제일먼저 나왔다는것은 참으로 오늘의 선군시대에

얼마나 커다란 상징적의의를 가지는 것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록음하여 올리신 이 노래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노래가 잘되었다고 그리도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순간 어버이수령님의 환하신 태양의 영상을 감격속에 우러르며 그렇게도 마음 기쁘셨던 우리 장군님.

혁명적인 시는 시대의 반영이며 그 기치이다.

돌이켜보면 노래가 창작되던 당시만 하여도 당내 형편은 복잡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주체45(1956)년 8월전원회의를 계기로 우리 혁명대오에 기여들었던 일부 나쁜 놈들은 폭로분쇄되었으나 그 잔당들은 음으로 양으로 준동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불멸의 송가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가 창작되어나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수령결사옹위의 노래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가 나왔을 때에도 일부 나쁜 놈들은 온갖 못된짓을 다 하였다.

놈들은 노래의 가사가 정치적구호라느니, 행진곡으로는 너무 길다느니 뭐니 하면서 가사의 기본책을 이루는 《김일성원수님 령도하시는 당》이라는 구절을 통채로 빼버리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우리 혁명대오에 기여든 나쁜 놈들의 이러한 책동을 어떻게 짓부시는가 하는것은 단순히 노래 한편의 운명문제가 아니였다. 그것은 실로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치렬한 정치사상적대결이였다.

바로 이러한 때 수령결사옹위의 노래가 힘차게 울리게 하신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의 절대적인 권위를 혈뜬고 수령과 인민의 통일단결을 깨뜨려보려는 당시의 일부 나쁜 놈들의 흉계를 여지없이 폭로 분쇄하시고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끝까지 따르며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의 노래가 이 땅에 힘차게 울려퍼지게 하시였다.

이리 하여 오중흡7련대의 수령결사옹위정신, 영광스러운 항일의 혁명정신이 수령결사옹위의 노래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에로 굳건히 이어지게 되었다.

혁명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 절대불변의 수령결사옹위의 노래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에 안겨주고 수령결사옹위시기문학의 빛나는 전통을 굳건히 계승하는데 뚜렷한 자욱을 남긴 여기에 가요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의 당당한 문예사적지위가 있고 시대의 명작으로 되는 노래의 커다란 가치가 있다.

가요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것은 일찍부터 로병시인의 심장속에 억척같이 뿌리내린 신념과 의지의 노래, 수령함모의 노래이다.

한것은 준엄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 대전해방전투를 눈앞에 두고 그가 쓴 시 《대전에서 바라본 북두칠성》 주체39(1950)년에서 뚜렷이 엿볼수 있다.

격전전야의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는데 땅크포에도 마음에도 만장탄을 한 켤은 땅크소대장은 북녘하늘을 우러러 한자 또 한자 심장의 시줄을 써나갔다.

...

우리 멀리도 왔구나
아득한 평양하늘 바라보니
유난히 반짝이는
오 북두칠성 반가운 별아

너를 보니
평양에 우리 있는듯
장군님 모시고 우리 함께 있는듯
이밤도 그이께서는
최고사령부 작전대앞에서
붉은 화살을 굿고계시리

...

병사는 못견디게 사무쳐 오는 그리움을 안고 어버이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의 밤하늘에 유난히도 빛나는 별, 북두칠성을 우러르며 멸적의 맹세를 다지였다.

시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사무치게 그리는 전사의 뜨거운 진정의 그 마음이 참으로 절절하게 노래되고있다.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만을 그리고 그리는 전사의 이 깨끗한 마음이 피바다, 불바다속에서 백천배로 다져지고 굳어져 마침내 죽어도 변할수 없는 수령결사옹위의 신념으로 정화된것이다.

《아껴야 하는것이 목숨이지만 바쳐야 하는것도 목숨이더라》(전쟁편), 《시련을 이기고 피여난 꽃은 해빛의 따사로움 먼저 알더라》(전후편), 《안기면 나는 그 사랑에 아이가 되고 부르면 그대 그리운 어머니가 되더라》(당의 품), 《미제야 네가 아직 살아있어 너와 결판을 내야 하리니 나를 두고 죽을수 없다》... 시집의 매 편들 앞머리에 새겨진 이 글들은 단순히 안내문이라기보다 그대로가 완결된 시이며 시인자신의 심장의 고백이다.

비록 시어들은 그지없이 소박하지만 심장으로 씌여졌기에 우리는 여기에서 생활의 진심을 본다.

비록 시가 많지는 않다 해도 한편의 시로 천만 자루의 창검을 대신하는 수령결사옹위의 노래를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주었기에 우리는 이런 시들을 사랑한다.

시집 《모란봉기슭》에는 서정성이 풍부한 고유한 의미에서의 서정시도 적지 않다.

얼핏 생각하면 보다 정론성이 강한 시를 쓰는 열혈의 시인에게 《풍년새가 날아든다》와 같이 서정성이 풍만한 서정가요, 명가사가 있다는것이 어울리지 않게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인을 다 몰랐을 때 하게 되는 생각이다.

시집전편을 다 읽어보면 그의 시들에 즐기치게 맥박치는 그 강렬한 정론적주장이 조국과 하나로 잇닿아있는 그리움의 세계, 나서자란 고향산천과 정다운 어머니, 안해에 대한 그 얼마나 뜨겁고 부드럽고 섬세한 서정과 그리도 조화롭게 잘 결합되어있는가를 족히 알수 있다.

참으로 《풍년새가 날아든다》는 지난세기 60년대 우리 시단을 훌륭히 장식한 명가사, 명작이며 그때도 지금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즐겨부르는 인민적인 노래이다.

이 강산이 살기 좋아 실실 늘어진 양버들에 앉아 구성진 노래 멋들어지게 부르는 피콜새, 올해도 풍년을 부르며 어서 씨를 뿌리라 꽃핀 봄날을 노래하는 뻐꾸새, 관개수 맑은 물 흘러드는 천리옥토벌에 쉬여서 가라 중천의 기러기를 이 땅에 불러대는 서정적주인공, 여기에는 아버지수령님

의 은덕속에 한껏 꽃피난 우리 인민의 행복한 모습, 그 행복한 생활에 대한 시인의 사무치는 사랑과 긍지가 얼마나 그윽하게 흘러넘치는것인가.

그러한 서정이 량만적이고 흥취나는 민요풍의 선율과 잘도 어울려 참으로 한쪽의 아름다운 그림과도 같이 완결된 서정시를 이루고있다.

영원한 수령결사옹위의 노래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그리고 우리 인민이 세기를 이어 즐겨부르는 생활의 노래 《풍년새가 날아든다》, 이 두편의 가사만으로써도 시집 《모란봉기슭》은 오늘날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랑을 받고있다.

로병-시인에게는 시집만이 아닌 남다르게 큰 긍지와 영예도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는 사적비문들을 쓰도록 그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었다. 그리하여 시인은 이사적비문창작사업에도 많이 관여하였다.

웅근 한편의 시집을 두고 하여야 할 이야기, 하고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나는 이 짙막한 글이 한 시집에 대한 평론이라기보다 한생을 깨끗이 조국에 바쳐 심장의 노래를 부른 로병-시인에 대한 동지적의리를 뜻할수 있다면 더 바랄것이 없겠다.

가사

전선길의 철쭉꽃

령넘으면 최전선 굽이많은 령길에
철쭉꽃 피여났네 송이송이 웃음짓네
장군님 오셨던 그날을 못잊어
철을 당겨 피였네 망울터친 철쭉꽃
아 전선길의 철쭉꽃

연분홍빛 꽃잎마다 웃음담뿔 담고서
이른 봄 그날에도 이 길가에 피였지
최전연 찾으시는 장군님을 마중하는

병사들의 그 인사 네가 먼저 전했지
아 전선길의 철쭉꽃

높은 산엔 아직도 흰눈발 날리는데
봄을 당겨 피여난 전선길의 철쭉꽃
장군님의 야전차 귀에 익은 발동소리
아침 낮에 깊은 밤에 기다리며 피였지
아 전선길의 철쭉꽃

진춘근



안해의 소원

로정법

상준이처럼 안해를 사랑하고 위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가.

그는 안해한테 그 어떤 부러움도 없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도록 늘 원심을 쓴다. 그런데 그런 안해한테 요즈음 험사리 풀어줄수가 없는 소원이 생겼다.

풀베기경쟁이 고조에 오르자 선동원 정옥금은 사흘에 한번씩 새벽마다 자를 들고 집집을 돌며 퇴적장 풀거름더미의 키를 재어갔다. 그 키가 곧 작업반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앞 경쟁도표판의 붉은 줄의 키였다.

안해는 돼지죽을 퍼들고 나가다가도 옥금이가 오는 기색이 보이면 부엌으로 황황히 쫓겨들어와서는 문천에서 서성거리며 그가 돌아갈 때까지 나가지를 못하였다. 그런 안해를 볼 때마다 상준은 마음이 알찌근하였다.

어떻게 하면 안해가 저러지 않고 장손이 색시처럼 선동원이 오기를 은근히 기다리다 마주 나가며 맞아들이게 할것인가.

《우리 선동원이 새벽부터 수골 하누만.》

《아유! 사흘사이에 퇴적장이 높이도 자랐네. 참 융해요.》

《그게 그렇게 높아보여? 금년이 어떤 해인데... 이봐, 아침에 애아버지가 좋아하는 기름빵을 구웠어. 바빨테지만 하나 맛보고 가.》

안해도 옥금이를 그런 식으로 대하고 싶어한다.

그러자면 퇴적장을 비꿀의 대순처럼 우썃우썃 차례워야겠는데 마음처럼 되질 않는다.

건강하고 힘도 좋은 젊은 부부가 늦저녁을 해 먹으면서 이악하게 베어들어도 돼지들한테다 삶아주고 생물로 주고 염소와 게사니한테 뜯기우고

밑자리까지 복신하게 깔아주고나면 퇴적장에 그대로 나가 쌓이는 풀단이 별반 없다.

말 그대로 《풀베기전투》기간이라 퇴적장이 시퍼래야 남보기도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 한상준 세대에서는 풀을 성실히 베어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하긴 경쟁도표판의 붉은 줄이 벌써 술한 사람들한테다 그렇게 말하고있지 않는가.

그러니 결국 퇴적장이 자라지 못하는것은 세마리의 돼지, 두마리의 염소와 양, 게걸스럽고 배집이 큰 열다섯마리의 게사니들때문이다.

《여보, 이제는 돼지가 50~60키로씩 나가는데 내고 말자요. 창피해서 선전실앞으로 지나다니지도 못하겠어요.》

안해가 끝내 불만을 터뜨린다.

오죽하면 그러랴.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내고답시다.》

《에?!》

남편이 그렇게 나오면 꼼짝 못하는 녀인이다.

그래서 남편이 밍다.

앞집 장손아주버니처럼 《안돼!》하고 큰소리라도 친다면 《왜 안돼요? 왜? 왜?》하고 속시원히 한번 해보기라도 하겠는데 남편은 그저 두마디가 오가기 바쁘게 《당신이 싫다면야 나도 할 재미가 없지 뭐. 그만듭시다.》하는 태도로 나온다. 정말이지 색시라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다.

(무슨 사람이 저럴가.)

그래서 더 속상하다. 그런 사람의 말을 거역하거나 그를 서운하게 한다는건 죄될 일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결국 자기는 언제가도 남편한테 이겨볼수가 없다는 소리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

풀에 물러서고말았다.

돼지를 왜 욕심스레 세마리씩이나 가져다넣었던가. 흐들흐들하게 살찌워서 발전소건설장으로 보내주자던것이 아닌가. 그런 돼지를 벌써 내자고 터무니없이 떼를 쓰다싶이 한 자신이 너무 어이가 없어 남편한테 방긋 웃어보이는것으로 용서를 빈다.

그날 저녁 상준은 토끼종축사앞을 지나오다 거기서 우연히 젖을 뎀 새끼토끼 열마리를 얻어가지고 왔다.

《여보, 이걸 보오, 정말 곱지? 우량종이래.》

상준은 초물모자안에서 오굴오굴하는 토끼를 내보이며 안해를 불렀다.

《아유, 있는 짐승도 정신을 땡하게 하는데 이런걸 또 열마리씩이나...》 하면서도 안해는 토끼가 고와서 두마리씩, 세마리씩 웅큼안에 담아본다.

《정말 곱찍하지요?》

《착한 짐승이지. 돼지란 놈은 조금 배가 고파도 소동을 부리구 닭이란 놈은 부엌에까지 침노해들어오지만 이 착한 짐승은 굶어죽으면서도 배고프단 소릴 한마디 앓거던. 그저 눈짓만 하지, 수집어하는 처녀처럼... 요즘 토끼기르기운동이 온 나라에 널리 퍼치고있는 때라며 우량종이라면서 저저끔 안고 나오는데 사람의 욕심이 어디 그렇더라구.》

《잘했어요. 내가 좀더 노력하면 되지요.》

《아니, 네가 조금만 더 부지런해지면 되는거요. 장손동무네는 토끼가 수십마리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퇴비도 대단하더요.》

이튿날부터 상준은 더 일찍 일어난다.

염소와 양을 끌고 뒤산에 오르면 탈곡장지붕위에 설치한 고성기에서 《애국가》의 선율이 시작된다.

잠든 고향산천을 조용히 흔들어 새날의 시작을 알려주는 어머니의 목소리.

청신하고 고요한 새벽에 산우에 서서 선경으로 펼쳐진 사랑하는 고향마을과 푸른 들, 바다쪽으로 아득히 꼬리를 감춘 남천방축을 내려다보며 은은히 흐르는 《애국가》를 들을 때의 감상을 어떤 말로 표현해야 적중하랴.

초소의 전호기에서 전우들과 맞이하곤 하던 그 새벽의 느낌과도 또 다르다.

팔뚝에 불끈 새힘이 솟구침을 기분 좋게 느끼며 낫을 쥔 손바닥에 침을 묻혀가지고 썩썩 풀을 베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런 죄스러운 일이라구야.

형클어진 가시덤불이 손등을 찔뚫기에 그것을 활 걸어내려고 낫을 대다보니 그밑에 금방 알에서 깨어난 들새의 포근한 동지가 보인다.

적수의 눈을 속이느라 우정 그런데다 동지를 튼것이다

놀란 어미새가 상준의 주위에 있는 나무가지로 포롱포롱 날아 맴돌면서 피를 문 소리로 울어댄

다.

《너희들을 놀래워서 정말 안됐다.》

상준이 싱긋 웃으며 덤불을 얼른 원래대로 가리워주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려는데 《뭐예요?》 하며 안해가 다가선다. 아침밥을 지으면서 짐승들까지 대충 거두어준 안해가 벌써 따라올라온것이다.

《들새의 보금자리요. 이런 가시덤불밑에 그렇게 포근한 보금자리가 있을줄이야. 우리 멀찍이 자리를 옮깁시다.》

《그러자요. 사람도 같지요 뭐, 너무 거칠게 보인다고 해서 좋지 않게만 생각했던 사람도 가시덤불을 살살 헤치듯 하여 그 속대를 들여다보면 저런 들새둥지와도 같은 포근한것을 품고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석칠반장처럼...》

안해는 따스한 손에 꼭 쥐고 오느라고 벌써 말큰말큰해진 젖사탕의 종이를 벗겨 남편의 입에다 쪽 넣어주며 정겹게 웃는다.

이윽하여 젊은 부부는 한탄 더 이워달라거니 그것만 이라거니 싸우듯 하다가 일남이가 깨서 울겠다면서 마음이 급해 산을 내린다.

《어마! 딸기!》

뒤에 섰던 안해가 풀단을 내려놓는다.

저쪽 바위서덜을 덮은 딸기덤불속에 솟불처럼 이글이글 타는듯 한 산딸기가 보인다.

《가만, 뱀이 있으면 어찌자구...》

상준은 안해를 비켜세우고 자기가 들어간다.

넓은 가독나무잎에다 이슬 머금은 딸기를 한웅큼 싸서 안해한테 쥐여주니 그 물기가 도는 빨간 빛에 안해의 얼굴까지 물드는가싶다.

풀을 베느라, 짐승들을 거두느라 어지간히 축간 안해의 얼굴, 하지만 왜 이렇게 싱싱하고 신선하게 안겨오는가, 이 아침처럼.

《여보, 저길 좀 보오. 우리 고향마을이 참 좋지요?》

물김이 피여오르는 남천, 남천의 자랑인 유정한 버들숲, 제방쪽에서 새벽풀을 뜯는 소무리, 청아한 영각소리.

새로 정리된 기계화포전들은 끝간데없이 푸른데 일맹지게 뻗어간 논두렁길을 따라 삼을 메고 걸어가는 논물관리공이 산보객처럼 느껴진다.

집에 내려와보니 앞집 최장손이네 퇴적장앞에는 언제 어디다가 배여놓았겠는지 프락프르에 실어온 풀이 산처럼 쌓여있다.

풀더미가 아니라 풀산이다.

《아이, 어쩜 저렇게.》

안해는 너무 부러워 침을 꼴깍 삼킨다.

황혼무렵.

남성들보다 먼저 일손을 떼고 집으로 들어오던 한 녀인이 농장게시판앞에서 문득 발을 멈춘다.

거기에는 들꽃이 다문다문 피어난 푸른 풀밭에서 일하던 차림 그대로 찍은 젊은 부부의 사진이

있는데 낫을 든 청년은 모자를 벗어 들고 꺾꺾 웃고 있고 색시는 도망가다 붙들려왔는지 사내한테 손목을 잡히운채 다른 손에 들고있는 도라지꽃으로 입을 가리고 웃으면서 다시 도망가려는 자세로 서있다.

흰구름이 떠가는 원경으로 풀을 싣고가는 프락프락운전수청년이 부부를 향해 머리를 쭉 내밀고 웃는 모양도 그대로 찍혔다.

《풀거름생산에서 앞장서 달리는 제대군인 최장손, 양옥희부부.》

《아이, 얼마나 좋을가.》

누가 들을세라 속으로 중얼거리는 너인의 얼굴에 부러움의 표정이 비껴간다.

《여보.》

깜짝 놀란 너인이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부부는 한동안 말없이 걷는다.

《부럽소?》

위로하는듯 한 상준의 말.

상준은 빙그레 웃으며 수심에 젖어서 더 고와진 안해의 눈을 곧바로 들여다본다.

《부럽잖음.》

얼결에 그런 대답을 해놓고서는 얼굴을 활짝 붉히며 눈길을 피한다. 붉어진것을 감추려고 들고있던 도라지꽃으로 얼굴을 가리우며...

《당신도 시집을 오더니 펍 달라졌구만. 처녀적인 같이 한번 사진을 찍채도 질색하더니...》

《아, 부부가 정말 행복해보이지요? 우리도 저런 날이 있을가.》

꽃속에 감추어진 입술에서 호- 하는 한숨이 새어나온다.

그날 저녁.

지금까지의 풀거름생산실적을 놓고서 간단한 총화모임이 있었다.

부리부리한 시커먼 눈이 늘 성이 나서 노려보듯하고 목소리까지 탁하고 청이 높은 석철반장이 《한상준세대가 애는 쓰는것 같은데 실적이... 더 분발해보요.》 하는 말로 모임을 끝냈다.

그럴 때 상준은 맨 뒤줄에 앉아있는 안해를 슬그머니 돌아다보았다.

안해는 앞에 앉은 최장손의 떡판같은 잔등 바투 매한테 쫓긴 까투리모양으로 자기를 감추고있었다.

상준이 좀 늦어 집으로 오니 안해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부엌아궁앞에 앉아있고 불도 켜놓지 않은 방에서 일남이가 울고있다.

《집에 있으면서 아이는 왜 울리오?》

《그 애가 내대신 울어준다는걸 몰라요?》

안해가 새침해서 대꾸했다.

《오, 우리 일남이가 어디 뻘나. 엄마가 속상해서 널봐주지두 않든? 여보, 우리 저녁이나 해먹구 앞장에 바람쏘이러나 갈가? 달도 밝은데 ...》

상준은 아이를 등등 추스리며 안해의 기색을 살폈다.

《비가 온 뒤라 물이 좋더구만. 물보다 밤물소리가 더 좋던데... 일남이랑 안구 산보삼아 나가봅시다.》

《남은 속이 바질바질 타들어와 그러는데 당신은 정말...》

안해가 울상이 된다.

《뭘 그쯤한 소리 듣구서 그러오?》

《이 벽찬 선군시대에 뒤흔다는 소리보다 더 수치스런 평가가 어데 있어요?》

《됐소. 우리도 앞설 때가 있겠지. 기본전환도 할겸 우리 강으로나 나갑시다.》

...강에서 돌아오는 길은 더 좋았다.

상준은 색색 잠이 든 아이를 안고 앞에서 걸었고 너인은 물기 흐르는 탐스런 머리태를 뒤로 쓸어넘기면서 아직도 부끄러움이 가시지 못한 얼굴로 말없이 따라왔다.

버들숲에 걸린 둥근 달, 유정스런 밤물소리, 달빛이 산산이 부서지던 물결, 놀려주듯 중다리를 툭툭 건드리고 달아나던 물고기, 밤에도 따스하던 모래불...

《이런 밤도 모르고 쿨쿨 자는이도 있겠지?》

《그러게 말이예요. 그렇게 보낸 밤들이 막 아깝게 생각되어요.》

너인은 남편의 곁에 와 꼭 붙어 걸으며 시내물처럼 조잘거렸다.

《청춘은 급행열차라고 했지. 그것은 일을 해도 사랑을 해도 생활을 즐겨도 달려야 한다는 뜻이요. 흔적없이 보낸 하루가 없도록, 그래서 후회하지 않도록 ...》

《자요?》

안해가 남편이 안고있는 아이를 가웃이 넘겨다보며 정차게 묻는다.

《잘 자.》

《좀 더 감싸안으랴요. 감기들지 않게.》

《여보, 이런 시가 생각나지?》

순아, 들길을 걷지 않으면
밤이라도 좀 좋은 밤이나
읍거리의 가로등은 여기 없어도
너와 나 자라며 가꾸며
여태껏 익혀온 고향길이다

꽃에 묻힌 울담 지나
달빛에 가지꽃 고운 채마밭 돌아
너와 나 해종일 돌피를 잡던...

저봐라 머리 들면
촉촉한 은하수
별도 도글도글 여물었다
봄 여름 가꾼 우리네 포전
저 하늘에 비쳐진게 분명하다
...
애써 가꿔온 우리의 밤이다
고향에 바친 너와 나의 진정이
들에 하늘에 아름답게 비졌다
순아, 들길을 걷지 않으련
우리네 꿈은 꿈 말해보지 않으련
...

《언제 들어도 좋은 시예요. 그 시를 듣고나니
범상하게 보이던 고향마을의 주위세계가 이 달밤
처럼 온통 황홀해졌어요. 저 소의 네다리를 묶어
놓고서 철을 신기는 보기 흉한 기둥들까지도 말
이에요.》

시인들이란 참, 지금 저의 가슴은 사랑이 꼰뚝
들어찬것 같아요.》

안해가 눈물이 가랑해서 노래하듯 하였다.
젊은 부부는 고향에 대해, 자기들의 청춘과 사
랑에 대해, 이 시대에 대한 생각에 잠겨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그러다 상준이 불쑥

《여보, 우리 등글소나 한짝 끌어다 매볼가?》
하였다.

《아니, 소요?!》

너인은 너무 억이 차서 툭 떨어져서며 동공이 커
다래진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산보값이나 해야 하지 않겠소. 이런 좋은 밤
에 정다운 사람과 이렇게 사랑하는 고향의 들길
을 걸으면서 가슴에서 그 어떤 충동 하나 일지
않는다면 아마 저 달을 쳐다보기가 부끄러워지게
될거요. 여보, 당신 가슴에 사랑이 꼰뚝 찼다고
했지? 그 사랑을 얼마간 퍼내서 씹시다.》

《아니, 돼지를 내자니까 토끼를 열마리씩이나
안고 오더니 이번엔 황소란 말이지요. 래일은 또
뭘 끌어올래요? 말? 땅크?》

너인은 벌써 웃고있었다.

《여보, <전진 또 전진>이란 노래를 당신도 알지
않소? 후퇴란건 없소, 주타격전선에서는 더구나.》

이건 내가 근위 서울류경수105땅크사단에서 땅
크를 몰면서 배워가지고온거요.

농장에서 한짝 가져다 광광 부려봅시다, 땅크
처럼.》

《어서 그러자요.》

...풀이 많이 들어와 쌓이자부터 집에 있는 짐
승들로만은 충분히 밝혀낼수가 없어 상준은 밤마
다 읊에 내려가 진거름을 실어왔다.

소를 벗삼아 걷는 호젓한 20리 들길.

논고의 물소리는 《순아, 들길을 걷지 않으련》
하며 서정시를 읊는듯 하고 개구리소리는 아득히
흘러간 어린 시절을 불러준다.

《이눔아, 썩썩 걷자. 나는 과묵하고 무뎌난 너
와 함께 대 고향의 들길을 걷는 이밤이 좋아 나
섰지마는 네놈은 아마 싫은걸 할수없이 따라나섰
지?》

마음은 더없이 흥그럽고 그러지는 생활은 꿈처
럼 황홀하다.

아스라니 울려다보이는 풀날가리우에서 달구경
을 하는 안해.

《여보 이젠 내려갈래요. 어마나! 어떻게 내려갈
가.》

《달을 파서 치마폭에 싸안구 풍덩 뛰어내리요.
내가 받아주지 않으리.》

《째르릉.》

꿈을 깨치듯 저앞에서 자전거의 종소리가 들린
다.

안해가 자전거를 끌고 또 마중을 나오는가보
다.

《일남이 아버지세요?》

안해의 청맑은 목소리에 개구리들이 툭 노래를
멈춘다. 정에 젖은 부부의 말을 엿들으려고.

아이를 재워놓고서는 매번 이렇게 마중을 나오
는 안해이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 먼데까지 나왔
다. 일남이가 깨면 어찌자고.

《이봐요, 농가들에서 풀거름을 잘 받아내기 위
한 리적인 방식상학을 우리 집에서 하겠으니 집
집승우리비닥을 몽땅 파내서 규모있게 쌓아놓으
래요. 관리위원장아바이가 우리 집에 왔댔어요.》

안해의 목소리는 흥분에 젖어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알려주자고 이렇게 먼데까지 나온것이다.

《장손동무네도 있는데 모를 소리요.》

《그 집에선 작년에도 했는데 우리 집에서 한번
하는것도 나쁠게 없지요 뭐. 당신은 싫어요?》

뽀로통한 목소리.

《당신은 좋소?》

《좋잖음.》

《그럼 나도 좋지 뭐》

《흥.》

방식상학준비로 분조의 장정들이 와서 상준이 네 소, 염소, 양, 계사니, 닭, 토끼우리바닥을 몽땅 쳐내었다.

장손이와 같은 뼈대가 굵은 장성 여럿이 땀을 철철 흘리며 한참이나 신고하여야 하였다.

그러자 검스레 썩은 질벽질벽한 거름무지에 올라 장화발로 꺾꺾 밟아대면서 네귀가 방정하게 쌓고있던 석철반장이 선동원 정옥금에게

《애야, 이제부터는 자를 가지고 높이를 재지 말고 깊이를 재거라.》하였다.

그러자 옥금이가 그 말의 뜻을 제각 리해하고 《아이, 좋아라. 반장아저씨 오늘 저한테다 선동원 고의 좋은 종자를 주었어요.》하더니 자기 곁이대를 두엄무지에 푹 꽂아놓고서 대신 선동원수첩과 원주필을 급히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선자리에서 《눈-에-보-이-는-높-이-가-아-니-라》하고 씹어 외우며 《심장이 자리를 잡고있는 보이지 않는 깊이를, 농사군이 종자처럼 땅속에 묻는 진정의 깊이, 고향에 심는 사랑의 깊이, 시-켜-서-는-할-수-가-없-고-오직 그 사랑만이 할수 있는 바닥을 모르는 깊-이-》하고 갈겨 썼다.

《야, 정말 고마워요 반장아저씨, 제 오늘 아저씨가 좋아하는 녹말국수를 대접할게요.》

《애애, 그만 뒤라. 저절 봐라. 상준이 색시가 부엌으로 들락날락하는게 보지? 하하, 애 옥금아. 내 좋은 종자를 하나 또 줄라. 어서 적어라.》

<그시그시 받는 칭찬이 듣기는 좋지만 우리 농민들한테는 그게 아니다. 난알가리가 높으면 그게 칭찬이구 평가다.> 적었니?》

《야, 그것두 참 좋아요. 반장아저씨.》

《하하, 우리 옥금이가 선동원은 선동원이다. ... 하긴 내 머리가 그만정도나 되게 반장을 하지 이 장손이 같은 사람을 시키면 해낼줄 아느냐, 황소처럼 힘이나 쓸줄 알지...》

《아니, 뭐라고요?》 돼지우리바닥에서 뛰어올라온 장손이가 반장을 건둥 추켜들어 돼지우리에다 처박을 잡도리를 하니 석철이가 《아니, 아니, 자네가 반장이 되면 황소같이 일을 제낄것이라구 했지 내가 뭐랬나. 옥금아, 사실이지?》하며 버둥거렸다.

도와주러 왔던 사람들이 저녁대접을 잘 받고서 돌아갈 하는데 장손이가 거나해서 《상준이 이 사람, 난 동무가 사넨줄 알았는데 색시한테 사죽을 못쓴다며? 땅크를 몰았다는 사람이 그럼 못썰요. 무조건 이겨야지, 나처럼, 옳던 옳던...》

하며 떡메같은 주먹으로 상준의 앞가슴을 투박스레 푹푹 두드려주었다.

일군들을 바래주러 나간 안해가 아무리 기다려도 들어오질 않아 상준이 밖으로 나오니 덕대로 바라오른 호박잎사이로 금실은실 달빛이 줄줄이 쏟아져내리는데 행주치마폭에 물젖은 두손을 감싸쥐고서 안해가 고개를 쳐들어야 우가 보이는 퇴적장앞에 홀린듯이 서있었다.

《여보, 밥상두 물리지 않구서...》

《야, 정말 높지요? 도무지 믿어지질 않구 꼭 장손아주버니네 집에 와있는것만 같아요.》

《그렇게두 좋소?》

《흥.》

《래일 아침엔 당신도 기름빵을 굽소. 옥금이가 또 식전참에 돌겠는데 우리 집에서든 하나 먹고 가게 하구려.》

그 말에 안해가 방그레 웃었다.

《여보, 당신때문에 속타던 소릴 한마디 하라고?》

상준은 안해의 동실하고 실박한 어깨우에 한손을 올려놓으며 빙그레 웃었다.

《내가 당신한테 풀색 사출장화를 사다주던 생각이나지?》

사랑하는 사람이 이번엔 풀날가리가 부럽다는데 이건 상점에 가서 사다줄수도 없구 참 야단났더라니까. 그런 당신을 보며 난 이렇게 생각했소. 당신의 그 소박한 소원이야말로 올해에도 우리들을 주타격전선에 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풍년가을을 마련해드리려는 이 나라 농민들의 하나 같은 소원이라고 말이요.》

《알아요. 저를 위해주는 당신의 그 지극한 사랑이 우리의 고향, 우리가 자랑하는 선군조국에 대한 사랑과 한덩어리로 뭉쳐진것임요. 여보 우리 그 소원을 꼭 이룹시다.》

방에서 일남이가 울었다.

깜짝 놀란 부부가 경주하듯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돌미산의 새 마을

김창호

크지 않은 개울
한줄기 실개천을 생명수로
삶의 터전을 잡았던
돌미산아래 평암마을

이사를 간다
조상대대 안성맞춤 집터자리라더니
그 말조차 잊은듯 없었던듯
등판으로 마을이 올라왔는다

이제 고달령 높은 산 굴을 뚫고
동산, 세림 험한 구배 잡판 놀이며
미루벌을 휘감는 자연흐름식물길
여기 모여 저수지로 출렁이게 된다누나

그 옛날 수십길 우물을 파며
땅밑까지 헤매던 사람들
전설도 벌이름도 그 한으로 가슴저린 옛 고장
물과 집자리 바꾸며 흥성이나니

등판으로 등판으로 마을이 옮겨진다
벌 한복판에 펼쳐진 《바다》를 굽어보며

피어나는 물안개에 문발이 젖고
락원의 창가마다 무지개 비끼리라

아 산이면 꺾지르고
계곡은 적시며 찾아올 푸른 물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사랑을 전하며
행복의 물결, 오곡의 파도로 미루벌을 덮으리

물을 찾아 물끓 따라
낮은 곳만 찾아돌던 마을들
비야 내리든말든 땅우에 넘치는 물 있어
하늘가에 집을 짓고 세상을 굽어보며 살리니

버드나무 자라는 곳에 물이 난다고
땅속의 물을 찾던 어제날을 잊을가
장군님 모셨던 꿈같은 환희
환희의 물결로 일렁이는 돌미산의 새 마을이어

백두산강국의 푸른 하늘아래
또 하나의 천지개벽 한껏 펼치며
무릉도원선경으로 변모되며 젊어지는
네 모습에 미루벌의 천년미래 비겼구나!

한 돌격대원처녀의 이야기

리영일

굽이굽이 따라서며 바래주던
백마호 정든 물길을 따라
자동차에 돌격대살림살이 떠실고
미루벌 새 물길건설장에 오니
산과 바람이 우릴 마중했어요

앞에도 산 옆에도 산
끝안에선 바람만 우-우-
미루바람이 드세차다더니
아니 글썄
소대장의 모자가 등판으로 날려간걸요

이만하면 대접이 괜찮다고
고수머리소대장은 히죽 웃고나서
우리가 관통할 물길굴 산판을 가리켰는데
산은 아직도 바람을 내몰며
우릴 거만하게 내려다보고있었어요

여기에 우리네 살림살이였지요
경쟁에서 탄 우승기를 척 걸고
병실지붕엔 기발을 띄우고
병실앞엔 터밭까지 일구고...

밭과 또 밭과
드디어 물길굴건설은 시작되고
산은 그제서야
온몸을 부르르 떨며 정신을 차렸어요

왜 그러지 않겠나요
태고적부터 아득한 미루등판을 굽어보며
구름을 휘어잡고 바람을 거느려온
거만한 산악을 뒤흔들어놓은것이
바로 물길건설자 우리들이었으니까요

낮에 밤을 이어대는 련속천공앞에
산은 그래도 맥이 진한 바람과 함께
석수와 봉락의 풍파도 몰아왔건만
이미 그런것은 겪고 나머지의 일
우린 모두 물길굴건설의 능수들인걸요

이젠 산도 우리앞에 머리숙이고
고분고분 자기의 가슴을 헤쳐놓았어요

바람도 우리 돌격대의 기발을 날려주며
물길건설의 위훈담을 방방곡곡에 실어가지요

백마호 언제우에서 장군님 치하해주신
선군시대 청춘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우리는 황해의 등관 여기 미루벌에서
조국에 드리는 세번째 자연흐름식물길을 내며
세상앞에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줄테야요

범안리의 새 전설

박웅전

호수같이 펼쳐졌소
바둑무늬양어장
백학마냥 나래졌소
새 기와집 처마들

장군님 가꿔주신
선군8경 범안리
찾아주신 그날부터
늘어나는 새 전설

그이께서 오신 새벽
하늘건힌 이야기
칠색송어 주신 날에
샘통터진 이야기

범안리이름대로
기러기떼 내리고
서해의 갈매기도
양어바다 구경왔소

전설속의 무릉도원
그뉘 본적 없어도
그이께서 펼쳐주신
예가 바로 무릉도원

장군님 선군길은
천지개벽 천만리
강성대국 꽃피우는
새 전설의 천만리요

<가사>

내 사랑 평양아

황성하

어린 날 뛰어놀던 잔디밭 푸르른 곳
만수대 붉은 노을 창가에 어리던 곳
그 품이 따뜻해 내 처음 정을 묻은
평양아 평양아 내 사랑 평양아

시련의 찬바람이 이 땅에 몰아칠 때
크나큰 네 지붕 있어 비바람 이겨냈지

그 품이 소중한 순정을 다 기울인
평양아 평양아 내 사랑 평양아

한생에 품은 소원 소중이 꽃피우는
정다운 나의 평양 어버이품이여
세월의 백발도 가슴에서 못지을
평양아 평양아 내 사랑 평양아

우리 농장 전망도앞에서

김달수

미루벌 우리 작업반 앞마당에 마을전망도가 나 붙었다. 미루벌자연흐름식물길건설로 우리 농장에 생명수가 차고넘칠 그날을 그려보며 온 작업반원들이 며칠동안 토론하여 완성한 마을전경도였다.

작업반장에 직관원일을 겸하는 나 역시 요 며칠은 몹시 흥분하여 우리 마을을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꾸릴 큰 포부를 안고 몇번을 다시 그리면서 전망도를 완성하였었다.

미루등에서도 제일 구석에 자리잡은 우리 농장은 정말 물이 귀했었다. 밥 한그릇은 쥐도 물 한그릇은 아깝다는 말도 우리 마을에서부터 생겼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여기 미루등판에 자연흐름식물길을 건설할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신것이다.

바로 그 물길에 우리 농장앞으로 쪽 뻗어가니 어찌 희한한 일이 아니라.

전망도를 내걸고 하루가 지나자 나는 또 보고 싶어 이른새벽 저도 모르게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따사로운 햇빛이 우리 마을에 쏟아진다. 버드나무 실실이 늘어진 마을앞 양어장에 칠색무지개가 비꼈다. 마을중심에 자리잡은 탁아소, 유치원 앞에도 물놀이장이 있다. 그뒤에 준비하게 늘어선 살림집들, 그앞으로 무연히 펼쳐진 드넓은 논밭들...

보면 볼수록 또 보고싶은 리상적인 마을이다.

내가 전망도앞에서 즐거운 환상에 잠겨있는데 뒤에서 웅성웅성하는 말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우리 농장 사람들이었다. 아마 그들도 나와 같은 심정에서 이렇게 전망도앞에 섰으리라.

《저게 분명 우리 마을이 맞긴 맞는가요?》

《정말 생명수가 흘러드니 천지개벽이 되는군요.》

저마다 감탄하며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어느 사이에 내옆에 다가온 손녀애가 나의 팔소매를 잡아당긴다.

《할아버지, 저 무지개도 우리 마을 무지개나요?》

여기 미루등에는 여름철 새벽에 풀잎에 맺히는 이슬도 없다는 고장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무지개도 웬간해서는 비끼지 못하였다.

《그래, 이제부터는 저 무지개도 여기 우리 마

을에 비끼게 된단다.》

내가 이렇게 말했으나 손녀는 뭔가 못마땅한듯이 고개를 가웃거리더니 잠시후에 또 팔소매를 흔들었다.

《겨울엔 얼음판도 생기나요?》

지금은 여름인데 손녀애는 겨울소리를 한다. 그림책이나 텔레비전에서 아이들이 썰매나 스케트를 타는것을 얼마나 부러워했으면.

내가 머리를 끄덕이자 손녀는 동그란 얼굴에 움푹 보조개를 패우며 썩웃 웃는다.

《야. 좋구나. 할아버지, 나 썰매 만들어달라.》

《오냐, 썰매도 만들어주고 스케트도 사다주마.》

그러자 손녀는 너무 좋아 짹짹 손뼉까지 친다. 그 모양을 지켜보던 나의 머리에 문득 어린 시절에 있었던 한토막의 일이 불쑥 떠올랐다.

내가 여섯살인지 여덟살인지 되었을 어느 겨울 날 나는 먼 곳에 사는 이모네 집에 갔던적이 있었다. 그때 나를 끄적이도 귀여워하던 이모부가 나에게 썰매를 만들어준적이 있었다. 썰매에 비행기도 그려져있고 꼬챙이에도 알락달락 색칠을 한 정말 멋지게 생긴 썰매였다.

집에 돌아온 나는 동네아이들에게 썰매를 자랑하였고 그들은 모두를 부러워하였다. 그러나 탈수는 없었다. 물이 없으니 얼음판도 없었던것이 다.

그때 얼마나 안타깝던지...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공공 갑자르던 우리들은 밤이 되자 물초롱들을 몇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우물로 가서 물을 길어다 길바닥에 뿌렸다.

추운 겨울밤에 무릎까지 젖어 덜덜 떨면서도 우리는 부지런히 물을 길었다. 아마 대낮에 이런 짓을 했다가는 어른들에게 된욕을 먹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꼭 썰매를 타고싶은 욕망은 우리들에게 이런 엉뚱한짓을 하게 했다.

그날 새벽 나는 아이들과 함께 썰매를 타고 비행기처럼 훨훨 날아가는 꿈을 꾸었던것 같다. 잠도 오지 않아 꼬박 새우다싶이 했는데 언제 내가 꿈을 꾸었던지... 아마 꿈이란건 꼭 잠을 자야 찾아오는것도 아닌듯싶다.

아직 날이 밝기전이었지만 나는 끝내 참지 못하고 썰매를 안고 길로 뛰쳐나갔다. 어둑어둑한 길우에서 썰매에 앉아 연방 꼬챙이질을 해댔다.

그러나 썰매는 한뼘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길바닥을 더듬으니 밤새껏 뿌린 물은 어디로 가고 절절한 흙만이 손바닥에 짚였다. 땅도 어찌

나 목이 말랐던지 날이 그렇게 찬데도 그 많은 물들을 한방울도 안남기고 말짱 먹어치웠던 것이다. 나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처럼 길바닥에 쪼그리고앉아 그저 두툼한 마라초를 뺨뺨뺨 빨던 모습에 지금도 눈에 선하다.

아 미루벌, 세월도 미루어버렸던 땅이여.

이제 여기로 물이 들어온다. 자연흐름식물길을 따라 사랑의 생명수가 팔팔 흘러든다.

그날이 바로 눈앞에 있다. 그것은 미래가, 밝은 미래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이었다.

지난해 가을 미루벌을 찾으신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미루벌의 농사형편을 료해하시고 여기에 자연흐름식물길을 내여 벼농사를 짓게 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정말 꿈에서도 그려보지 못했던 평생소원이 현실로 되었고 그리하여 여기 미루벌에 밝은 전망이 휘황히도 펼쳐졌다.

《반장동지, 이제는 저 미루벌이라는 이름을 바

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망도를 그릴 때부터 그렇게 극성이던 작업반 프락트르운전수 철남이가 나의 결으로 다가오며 하는 말이었다.

아마 이 땅의 천지개벽과 함께 대대로 내려오던 미루라는 말도 싹 없애버리고싶은 마음에서일 것이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나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지금까지는 여기가 세월도 미루어버린 땅이어서 그렇게 불렀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요. 웬간한 행복은 다 미루어버리고 큰 행복만을 마련해가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어서 여기가 미루벌이요. 안그렇소, 철남동무.》

무지개가 비졌다. 완공된 자연흐름식물길에 한쪽을 걸고 아롱다롱한 색깔로 장식한 우리 장군님 보내주신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미루벌무지개가 온미루벌을 감싸안으며 찬란히도 비끼는것을 나는 분명 보았다.

조국이여, 나팔을 불어다오

량호운

교향의 마을들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는데
저 멀리 떠나온 초소에선
기상나팔소리 울리리
병실창가를 흔들면서
초병들을 깨우고있으리

병사시절에
나를 이 새벽에 잠깨우던 조국이여
헐치 않은 날들에 습관되어
기다려지던 그대 부름에
오늘도 나서고싶다

헤쳐야 할 시련의 언덕이 있다면
나를 세워다오
그대에게 어려운 일이 있거든
그 또한 나에게 맡겨다오

복무의 날에
내 전호에서 지켜온 그대를
이제 노력으로 더 빛나게 하리라
그대가 일을 맡기고 마음놓을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리라

어느때 원수들이 도발해와도
그대의 성새로 끄떡없는 아들이

원수들을 징벌하는
그대의 명중탄으로 용맹한 아들이

기나긴 초소의 겨울밤들을
힘에 겨운 강행군의 고비들을
어떻게 견디어냈는지 그대 알기에

어서 힘든 일감을 맡겨다오
내게 아름다운 일감을 맡기는
그 마음이면 더 바랄것이 없기에
그 마음에 보답할수만 있다면 한이 없기에

아, 장군님을 따라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려온 아들은
한생을
병사시절의 박동으로 뛰리니

조국이여
그 어디든 나팔을 불어다오
이 한목숨 내대야 하는 길일지라도
강성대국건설의 진두에 나선
그대의 병사로 명령을 내려다오

아, 조국이여!
나에게 나팔을 불어다오!

우리가 여기에 서있는것은 (외 1 편)

-전승기념탑군상들은 말한다-

리영철

꽃을 안고
전승기념탑을 찾는 사람들이여
오늘도 우리의 생은
그네들의 꽃다발우에
승리로 받들렸구나

생각인들 했으랴 전투에서 우리
조국위해 한목숨 바칠 때
흐르는 세월 이 땅과 함께
우리의 이름이 승리로 불리워지고
우리가 승리의 모습으로 빛나게 될줄을

생각지 않았나 총창을 비껴들 때면
우리의 마음속에 승리는 오직
김일성 장군님!

그 위대한 존함이였고
그이가 계시는 그 미래였기에...

영광의 그 빛 한줄기라도 흐려질세라
우리는 그날처럼 살고있는 병사들
이곳을 찾는 세대와 세대들에게
승리의 그 진리를 새겨주기 위하여
우리는 영원히 여기에 서있으리니

아, 전승의 역사를 아로새긴 대돌우에
보통병사 우리를 승리의 군상으로 높이 세워준
그 사랑이 넘치는 여기서
사람들이여 심장에 안으라
승리는 곧 **김일성** 장군님이심을!

녀병사의 말

많은 말을 남기고싶었어요
수류탄뭉음을 안고
적땅크를 맞받아나가던 그 시각
정든 고향과 나누고싶었던 사랑에 ...

하지만 그 모든걸 심장에 안고살았듯
나는 웃으며
먼저 간 영웅들처럼

《**김일성** 장군 만세!》
그 한마디를 이 강산에 남겼을뿐입니다

나에게 그 한마디는
승리의 날 안기고픈 고향이였고
사랑으로 가꿔갈 행복이였습니다
그 한마디로 하여 병사는
용감해지고 아름다워지는것 아닙니까

경구, 격언

- 작품에 대하여 첫인상으로 판단하지 말라
- 첫 순간에 마음드는것이 항상 가장 좋은것은 아니다
- 잘 씌여진 전기는 잘 살아온 생애처럼 그렇게 드물다
- 진정한 예술가는 세기적인 편견의 저항을 두려워함이 없이 생각하는것을 표현한다
- 참된 시인으로 되려면 반드시 현대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시인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시대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 평론은 정확한 혈액순환기이다. 이것 없이는 침체와 병적현상을 피할수 없다

내 사는 거리

김상조

불빛은 거리

밤이면
내 사는 거리
항구내불빛으로
대낮처럼 밝네

자정이 되어도
은하수 기울어도
거리의 창문들 아롱지우네
푸르른 가로수도 벽체도 지붕도...

이맘때면 어김없이
첫 교대 화물취급원들 출근길에 오르네
그날의 우리 장군님 지새시던 열차의 불빛
그 밝은 불빛에 물든

설레는 향만기증기들
달리는 벨트콘베아수송선들
불빛아래 비약의 불꽃 튀기고

대형집차들 전조등 휘 밝히며 질주하네

때없이 창가에 비치여드는
달 오르내리는 장엄한 자태
만집한 대형집배무리등의 눈부신 빛발
화물열차를 불러들이는 신호등불

처음 온 나그네들
이 거리에선 선했 잠들지 못해도
내 사는 거리 사람들
이 장관 이 불빛 안고야 잠드나니

자랑하노라
우리 장군님 대양예로의 배길
더 환히 밝혀주신 그밤의 불빛따라
애국의 한마음 불타는 항구
부흥의 새날 휘황히 비껴안은
오, 불빛은 내 사는 거리를!

네쌍둥이소식 날아올 때면

저 멀리 전선의 바람결 타고
초소에 선 네쌍둥이소식 날아올 때면
거리의 창문들 활짝 열리네
그네들 자란 해맑은 2층집 트락
사람들 뭉비며 기쁨에 설레네

정혜폰 너인들
위생복차림의 담당의사들과 간호원들
고마움의 더운 눈물 흠치고
모교의 붉은넥타이꼬마들 신나서 노래부르네
머리 회색한 로인들 기쁨의 웃음발 날리네

어제는 종합훈련에서 《우》맞아
부대장의 감사 받았다는 소식
혼성4중창 멋들어지게 불러
장군님께 기쁨 드렸다는 소식에
온 거리가 흥성이더니

오늘은 한낱한시
네쌍둥이모두 군관학교에들 간다는
소식중의 희소식
꿈처럼 날아 날아들어
경사로 뚫어 번지네

아버지장군님 슬하에
래일엔 어엿한 지휘관될 네 초병
후더워진 가슴들에 안아보네
어린 시절 혈육의 정 아낌없이 부어준
항구거리주민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오, 천리전선에서
그네들 소식 날아올 때면
정녕 내 사는 선군의 거리
온통 희열에 들먹이네
태양가까이로 우뚝 솟아오르네!

장수자의 봄노래

우리 시 노래경연무대에
항구거리장수자할머니 올랐소

흰머리 되검어져 새각시같은 녀인
처녀때 고운 목청 그대로라오

준엄한 날엔 어뢰정갑관우에서
전후엔 《천리마》호 항만기중기우에서
부르던 노래

통성번영의 년대들 넘어
《고난의 행군》 때도 창창히 불렀다오

선주집종살이때 설음의 노래 쓰라렸건만
항의 주인된 반세기 봄노래 엮었다오

장군님사랑속에 축복받은 할머니
장수자의 큰상받은 기쁨의 노래라오

부푼 가슴 내밀며 한껏 뿜아넘기는 기나리가락
1등은 먹어놓은 찰떡이라오

무대우에 올려퍼지는 장수자의 봄노래
무병장수 내 나라 으뜸의 메아리라오!

행복의 시간표 (외 1 편)

위명철

갓 입학한 딸애의 시간표
나는 정성껏 한줄두줄 그려준다
그리고 또박또박 써내려간다
국어, 수학, 음악...

우렷이 떠오르누나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철부지
이 시간표따라
어엿이도 자랄 틈틈한 모습이

뜨거이 어려오누나
아름차게 받아안을
약속된 행복
이 시간표 칸칸마다에
그득히 차있는 사랑

아 행복한 나의 어제날이 보여오고
딸의 창창한 래일이 다 보이는 시간표

대를 이어 안아주는 사랑의 품에
자식을 맡긴 아버지의 이 행복이여

오늘도 이 애들의 시간표를 지켜
장군님은 저 멀리 전선에 계시리
선군으로 지켜주시는 이 강토에서
꿈에도 깨어질수 없는 행복의 시간표

아아, 고맙고 고마운 생각만
파도처럼 쿵쿵 이 가슴을 치나니
딸애야 이 아버지에게도
언제나 안고사는 시간표가 있단다

고동치며 불타는 이내 심장엔
우리 장군님을 위한 그 시각
주저없이 날아들 보답의 불덩이만
꼭 차있는 내 삶의 시간표가!

딸애의 표창장앞에서

밝고 흰 벽면에
나는 또 하나 늘어난
딸애의 표창장을 건다

학습과 소년단생활의 모범으로
내세워진 나의 딸애
마치도 이 아버지 바라보는 눈빛인듯
끝없이 속살거리는 숨결인듯
소중한 표창장

참으로 숨벽차구나
이 아버지에게도 흘러온
행복의 시절 다 어려오는
내 딸의 표창장
얼마나 많았던가
행복에 떠밀리고
사랑속에 반들려온 그 나날들에
나의 이름들이 또렷하던

그 표창장들이

추억의 계단을 딛고 오르면
지금도 들려오는 박수갈채들
그 행복의 언덕을 지나서
가슴벅차던 그 나날들 다 보여오거니

나의 가슴에 혼장들이 늘어날수록
더더욱 잊지 못할 그날에 살게 하며
나에게 위훈을 알게 해준
그 작은 표창장
딸애의 표창장에서

새로이 안아보나니

해놓은 작은 일을 두고도
크게 내세워주고 싶어하는 품
그 사랑 안겨주는 고마운 품에
후대를 맡긴 이 행운이여

잠든 딸이야 어이 알리
이런 밤을 맞이한 행복한 아버지들이
어떻게 새날을 펼치는지
표창장 쓸어보던 그 손 그 가슴으로
어떻게 래일을 꼭 껴안는지...

기행시초

칠보산기행시초

리근지

덕수골 쌍폭포

내릴 때는 하늘끝에서
옥당목 두필을 드리운것 같더니
쨍으며 흘날리는 물보라는
눈부신 구슬인가

우뢰치는 물소리 산 산을 흔들어
천길땅속 울리며 스며들고
폭포담 물은 하얗다 못해 푸르려
내 맘속까지 물들이네

늙은이는 젊어지고
젊은이는 선남선녀되어 못떠나
너 아니 보고 칠보산 아름다움

어찌 다 보았다 말하라

수정물 한웅큼 떠마시니
가슴을 흔드는 호탕한 웃음소리
이 명소 보지 못했으면 후회라시며
인민들 다 보게 하라신 장군님 음성
금시라도 들려와라

그 옛날 이 쌍폭포엔
선녀들만 내려 노닐었다지만
오늘은 쌍폭포에 휴양생들 웃음 합쳐
세쌍폭포로 더 장쾌하구나

풍금바위

찌르러기 티티새노래
네 텅겨준거나
솔바람 은은함 폭포의 장쾌함
네 음이 울려준거나

아- 오 등산에 한껏 젖은
처녀총각들의 감탄의 목소리
네 건반에서 울리는
아름다운 음의 여운이나

건반을 누르면
기묘한 산 산
유정한 파도소리
다 울려줄듯 하건만

건반을 쳐도 울리지 않네
수천년 꿈꾸며 그려보던
락원의 노래 다 못지었노라
음상을 고루며 건반은 울리지 않네

벽계수에 붓을 적서

위태롭다 칼바위끝에 앉은 때
금시 나래펴고 솟구칠듯
그 뉘가 몇백년 도를 닦아
저 많은 책 에 쌓았는가
룡궁의 사신 저 거북은 언제 왔나

만월대 보름달은 낮에도 뜨고
 함석지붕 오בות한 마을은
 금시 문을 열고 날 불러들일듯
 저 산우에 덮칠듯 웅크린 사자
 등산손님 반겨 불쑥 나오네

바위바위는 받들고 엎히고
 골은 골마다 주름잡으며 뛰는듯
 오르니 용용한 산발 등실 받들고

내리니 수정폭포 단뭉 적시니
 마음은 그저 아아!

시 한수 지어보자 했던만
 모대기기만 하는 안타까움
 석양 벽계수에 붓 적서 휘두르니
 그 붓물 신묘하게 불을 달았나
 아 온 산천에 불붙는 단풍

로적봉

그 언제 그 누가
 여기에 하늘 당은 날가리
 이렇듯 정히 쌓아올렸는가
 바람결에 날알향기 날리는듯

칠보산경치 뛰어났다 한들
 농민의 근본이 받들어 빛나는
 저 날가리 없다면
 칠보산절경 독특하지 않으리

차곡차곡 돌기마다
 농민의 근면한 손길 어려
 내 여기서 농악을 울리는
 농장원들 웃는 얼굴 다 보네

가슴치며 깊어지는 생각
 어서 가자 농장별로
 어서 가서 나도
 이 강산 빛낼 날가리 쌓으리

벽계수는 흘러가는데

벽계수는 칠보산 떠나기 아쉬워
 담마다 고였다 넘쳤다 흘러가오

가다가는 그냥은 못가
 여물의 돌을 불안고 맴돌기도 하오

그래도 흐르는 물은 가는 물이어서

기암절벽 안고 쓰다듬으며 가오

생각없는 물도 정든 산천 못떠나
 저리도 맴돌며 정만은 두고 가는데

나에게 금수강산을 다 안겨준
 조국아 너를 떠나 한신들 내 어찌 살리

5천년 력사우에

해종일 오르고 내려봐도
 돌쫓날쫓 바위는 기묘하고
 봉이봉이는 절묘함을 다투며
 치솟아 펼치는 일만경치

칠보산아 너 다 지냈구나
 줄기줄기 계곡의 신비함도

산의 웅장함도 폭포의 용용함도
 룡궁같은 바다의 풍치도

만사봉, 매바위, 만월대
 만물상, 장수산, 봉서암
 솔섬, 기등바위, 초대바위
 이름난 석공도 이런 절경 못만들리

내 나라 생겨 반만년
세월의 락엽에 묻혀
이름없던 바위와 산들에
고운 이름 골라 지어주신 장군님

그 사랑 그 손길에 받들려
바위돌 하나하나 시이고

부는 바람 피는 꽃도 노래되어
강산에 비껴가는 행복의 메아리

칠보산아 세월이 네 아름다움 세웠더냐
우리 장군님 잠자던 너를 깨워
5천년 력사우에 절경으로
인민의 휴양지로 세계 으뜸 안아올리셨구나

강변에서

김정곤

강변에 의자 하나
한쌍의 젊음이 나란히 앉아있네
머리우엔 버들가지 휘늘어지고
물속엔 별들이 내려 꼬리치네

먼발치
소리죽여 에돌며 지나다
멈춰선 걸음
이다지도 내 가슴 휘저어놓는가

언제였던가
찬비 잔등을 두드리던 폭우속
진창발에 두발 벌디디고

누군가와 맞들어놓은 이 의자

내 젊은 시절
구슬땀 뿌린 이 의자우에
꽃잎같은 웃음이 날아올라
이 늙은 가슴에 내려와앉는듯

자리 뜨자고
슬며시 걸음 떼이니
질로 어깨가 들썩이네
한쌍의 젊음이 내 잔등에 업고와
마치도 이 의자에 내려놓은듯싶네

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김선화

얼음을 까고 들어선 산골물
살을 예이고 피를 열구는듯

어-어허 총각들도 주춤 망설이는데
깎-깎깎 웃음보 터뜨리는 처녀

진달래꽃잎같은 연분홍솜옷차림
깎깎대며 휘뿌리는 물보라 물보라

창창 맑은 그 웃음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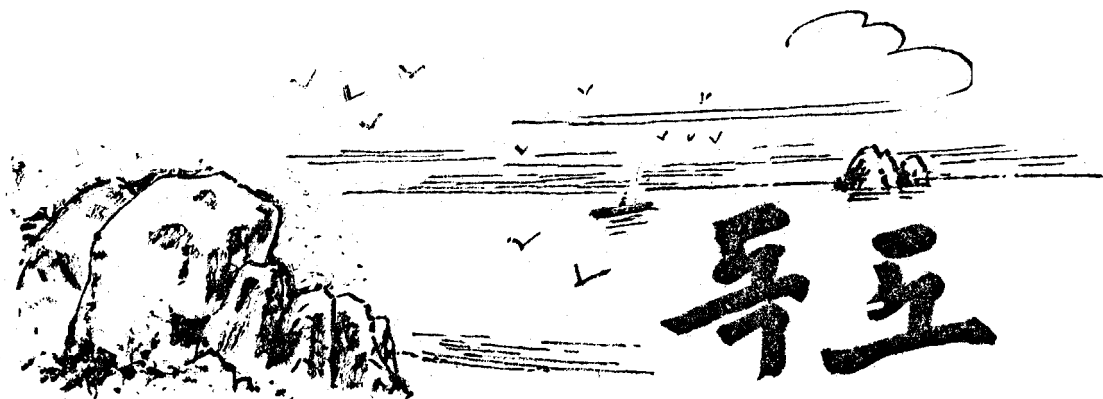
겨우내 얼어붙은 백암령을 흔들고

무지개빛 령룡한 물보라 물보라
봄을 그리는 백두대지에 아지랑이 펼치네

봄! 봄! 청춘은 봄이런가
한겨울 흑한에도 빨갭게 익은 두불

중대의 막내 봄, 봄이야
봄은 벌써 너의 얼굴에 피어나고있는걸

단편소설



리성덕

창밖에서는 소리없이 봄비가 내리고있었다. 이번 비까지 맞고나면 대지는 온통 푸른빛으로 단장할것이다.

활력과 희망에 넘친 이 봄과 함께 이해도 계절을 바꾸면서 큰걸음을 내짚었다.

(이 해라...)

현영률은 창밖을 내다보던 눈길을 돌려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다.

일제에 의해 《을사5조약》이 날조된지 100년이 넘었다. 항일대전의 승리로 조국이 해방된지도 어느덧 60년이 지났다.

세월을 흐르는 물에 비유한것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과학원에서 한생을 역사연구에 바쳐온 타성때문인지 그는 세상의 모든 현상을 시간의 흐름속에 투시해보는데 습관되어 있었다.

하기는 시간이 흘러 세월을 이루고 세월이 모여 역사를 이루는것이니 그 어느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인들 역사밖에서 그저 흘러갈수 있을것인가. 그 무엇도 그 언젠가도 피할수도 외면할수도 없는것이 엄정한 역사의 시선이다.

그런데 이 땅에 흘러간 역사 100년이 넘는 세월을 거슬러 살펴보면 하나의 뚜렷한 움직임이 어렵지 않게 간파할수가 있다.

《운양》호사건의 조작을 기화로 조선불건왕조정부를 위협하여 《강화도조약》을 강압체결하고 뒤이어 《을사5조약》을 날조공포하여 조선을 강점하기 위해 이른 일제는 패망하여 쫓겨간 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침을 꾀했는데 그와 관련되는 여러가지 사실과 사건들을 한줄에 꿰어놓고 보면 그것들이 하나의 뚜렷한 역사적움직임으로 남아서 꿈틀거린다는것을 발견하게 된다.

최근 일제가 을릉도 남동쪽 해상에 있는 우리

나라의 독도를 저들의 《고유한 령토》라고 떠들어대는것도 그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나타난 간파할수 없는 하나의 현상인것이다.

독도문제는 이미 100여년전부터 표면화되어 심각한 문제로 상정되었지만 그 어느때에도 오늘처럼 우리 민족이 목소리를 합쳐 큰 담력과 철석같은 주장으로 그에 대응하지 못하였었다.

무엇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뿔뿔이 일으켜세웠는가. 자주성이 생명처럼 지켜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독도문제를 단순한 령토문제가 아닌 심각한 정치적문제로, 새로운 시각으로 볼것을 요구하고있다.

천천히 창결에서 물러서서 쓰고있던 원고들이 무독히 쌓여있는 책상앞으로 다가선 현영률은 이미 써놓은 원고들이 웬일인지 불만스럽게 느껴졌다. 무엇인가 청년들에게 하고싶은 말을 다 쓰지 못한것만 같았다.

금성청년출판사로부터 청년독자들을 위하여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의 령토라는데 대한 글을 써줄것을 부탁받은지도 벌써 여러날이 지났다. 오늘쯤은 기자가 다시 찾아올듯싶기도 했다.

아니나다를가 출입문쪽에서 손기척소리가 나면서 키가 후리후리하고 도수높은 안경을 낀 한 청년이 약간 주저하는 기색으로 들어섰다.

며칠전에 찾아왔던 금성청년출판사 기자 김정민이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집필시간이 아닌지요?》

《아니, 괜찮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영률은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쏘파로 옮겨갔다.

김정민은 옆에 와 조심히 앉으면서 《알고보니 박사선생님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독도침략책동>이라는 책을 쓰셨더군요.》하고 말을 시작하였다.

현영률은 빙그레 웃었다.

《예, 그런 론문을 냈습니다. 한 30년전이었지요. 그때가 독도에 대한 일본군국주의 침략책동이 로 골화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도 일본반동들은 독도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있을뿐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더욱 발광적으로 책동하고있지 않습니까. 독도를 일본령토라고 외곡서술한 중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를 2007년부터 사용할것을 지시한것이 그 뚜렷한 실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판사에서는 청년독자들에게 독도의 력사와 지리, 자연환경이며 령유권문제가 제기된 경위와 그 본질같은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오늘 좀 자세히 이야기해주시지요.》

현영률은 맞은쪽벽에 걸린 조선지도의 동해 한 지점을 생각깊은 눈길로 바라보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92.6키로메터, 그러니까 약 240리정도 떨어진 바다가운데 자리잡은 섬입니다. 섬전체가 바위로 이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돌섬이지요. 우리 나라 옛 문헌에도 <석도>(돌섬)라고 표기한것이 더러 있습니다.

경상도지방의 사투리에서 <돌>을 <독>으로 발음하므로 독도란 돌섬이란 뜻입니다.

한자로는 홀로 <독>, 섬 <도>자를 쓰는데 바다가운데 홀로 있는 섬이란 의미로서 그것 역시 통용되는 이름으로 되고있습니다.

독도는 동도, 서도라고 불리우는 두개의 섬과 수십개의 바위섬들과 암초들로 이루어졌는데 섬둘레는 동도가 1.26키로메터, 서도가 1.74키로메터이고 섬에서 제일 높은 곳이 해발 171메터정도이며 평지라고는 동도남쪽바다가에 얼마되지 않는 자갈밭이 있을뿐입니다. 이곳이 배가 붙을수 있는 유일한 곳이고 섬둘레 다른 곳은 모두 바위 절벽입니다.

섬주변 바다가에는 물개와 바다새가 많이 서식하고있습니다. 해삼, 전복, 성게, 미역, 다시마가 많을뿐아니라 해저에서 <바다의 석유>라고 불리우는 고체화된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었다는것이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먹는 물이 없기때문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섬으로 간주되어왔습니다만 최근 바위짚에서 흘러내리는 상당한 량의 음료수가 발견되어 사람이 살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섬에는 나무같은것은 거의 없고 섬고유의 술패랭이꽃, 갯까치수염과 같은 약간의 초본식물과 해초와 이끼류들이 자라고있을뿐입니다.

바람이 세고 비가 많이 내리지만 여름 한철이면 울릉도주민들이 이 섬에 건너가서 초막을 치고 살면서 물고기도 잡고 해초도 거두고 해삼, 전복, 다시마를 뜯어서 말리곤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현영률의 눈앞에는 울릉도에서 나서 자란 한 로인을 만났던 오래전의 일이 문득

떠올랐다.

독도에 대한 첫 력사론문을 준비하던 때였다. 동해안의 한 도시에 울릉도에서 나서 자란 로인이 있다는 말을 듣자 현영률은 한달음에 그의 집을 찾아갔었다.

양지바른 산기슭에 자리잡은 1동2세대짜리 아담한 주택이었다.

《예, 제가 황학춘이올시다. 허물치 말구 어서 들어오시우.》

로인은 흰오리가 다문다문 섞인 머리카락을 자주 쓸어올리면서 반갑게 맞아주었다. 방에 들어가 소개인사를 하고나자 로인은 경상도사투리가 약간씩 느껴지는 말투로 우스개소리를 섞어가며 말하였다.

《내가 간밤에 좋은 꿈을 꾸었는데 평양에서 오신 력사학자선생을 만나려고 그런 꿈이 뵈웠던게 구만.》

담배를 받아 마디굵은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면서 로인이 말을 이었다.

《헌데 일자무식인 이 황학춘이가 무슨 말을 해야 도움이 될라는지 알도리가 없습니다.》

《울릉도에서 살던 때 일을 아무것이나 다 들려주시지요. 생활이야기나 풍경이야기도 좋고 잊을수 없는 사람들과 사건들도 좋고 그런걸 다 듣고 싶습니다.》

《허허 ... 모를 소리다. 을지문덕장군이나 리순신장군이 외적을 치던게 력사겠지 이 황학춘이가 섬살이하던 이야기가 무슨 력사겠소.》

솔직하고 꾸밈이 없는 로인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말이였다.

현영률은 로인이 말꼭지를 떼기 험하게 하느라고 울릉도에서 살 때 독도에도 가보았는가고 물었다.

《그라운요. 가보는게 아니라 여름 한철은 거기서 살았다고 해야 하지요.》

로인은 생각깊은 동작으로 천천히 담배를 붙여물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사 그 섬을 잊을수 없지요.》

가늘게 좁혀진 주름잡힌 눈시울사이로 아득히 흘러간 그 시절을 더듬는듯 고뇌와 환희가 뒤섞인 그런 눈빛이 내비쳐졌다.

《뭐라고 해야 할지... 내사 그 섬에 청춘을 묻고 사랑을 묻고 한생을 다 물었다고 해야 마땅할게요. 허물치 마시오. 내 젊은 시절 이야긴데 그 섬에서 이웃집처녀와 첫사랑도 나누었지요.》

뜻밖에도 이야기가 심각한 인생이야기로 번져지자 현영률은 그 세계에 끌려들어갔다.

... 조국해방을 몇해 앞둔 그해 울릉도 저동에서 살고있던 학춘은 이웃집 열일곱살난 처녀 섬년이와 한달한시에 아버지지를 잃었다.

낡은 돛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두 아버지가 풍랑에 밀려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난것이였다.

한창나이의 건장한 남정일손이 하나 있어서 학춘이네는 그런대로 생계를 이어갈수 있었으나 섬년이네는 앓는 어머니와 철부지 동생들을 처녀 혼자힘으로 먹여살릴수가 없었다.

힘들어도 학춘이 네가 두 집살림을 다 돌보아야 할것 같다고 어머니가 늘 걱정하였다.

그래서 학춘은 이웃집처녀와 손잡고 두 집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해나가자 많으면 안되었다.

남자 못지 않게 성격이 활달하고 이악한 섬년이는 학춘이가 지계를 지고 나서는 저도 지계를 지고 나서서 땀나무를 해왔고 학춘이가 바다에 나가면 저도 함께 나갔다.

처음 몇번은 노나 저어주고 말동무나 해주려니 했던 섬년이가 학춘이가 사돌질(작은 배를 타고 창경을 리용하여 얇은 바다밑의 물고기와 해삼, 전복 등을 잡아내는 일)에 여념이 없는 틈을 타서 몰래 옷을 벗고 무잡이질(잠수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자기 혼자서도 남보다 좁은 잡을 자신이 있으니 무잡이를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섬년이는 그만두지 않았다. 무슨 일이나 한번 한다고 하면 기어이 하고야마는 그 《고집》은 꺾을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한번은 룡질삼아 섬년이가 알몸이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물속에서 나올 때 짐짓 놀라는 척 하면서 놀려주었다.

《히야! 니 어느새 그런 멧쟁이가 되었니?》

《뭐? 갑자기 멧쟁이는 또 뭐락카는거야?》

섬년이쪽에서 오히려 놀라는 투다.

《니 몸매가 어느새 그렇게 곱게 익었느냐 그 말이다.》

그제야 섬년이는 옷가지로 드러난 몸을 급히 가리우면서 깔깔 웃었다.

《아유! 증말 위섭어(우스워) 죽겠다카이. 내가 무슨 열매락구 익구 말구...》

얼굴이 좀 발기해진듯 하나 조금도 부끄럼을 타는것 같지 않았다.

《니 내앞에서 아무리 옷으로 몸을 가리워도 쓸데없다카는걸 알기나 하니?》

《왜 쓸데 없닥카우?》

《네가 늘 내 창경밑에서 헤엄쳐다니는데두?》

섬년이가 흠칫 놀란다.

《아유! 망칙해해 ...증말...》

《그러니 무잡이 그만두락카는거다.》

《흥, 그 소리 할락구 그랬지? 어디 보구싶으면 실컷 보라지 뭐...》

《하하하... 너만 보다나면 해삼, 전복을 다 놓치는데 이게 야단이 아니구 뭐야? 하하하...》

《호호... 그럼 보지 말아요.》

《보지 않구 못견디겠는걸 어찌하니?》

《호호호...》

《하하 하...》

마음속으로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사이에 두

사람의 정은 저도모르게 깊어졌다.

둘의 사이를 두 집 어머니들이 먼저 알게 되고 뒤이어 온 마을이 알게 되었다.

혼수감마련이 없었지만 그해 가을에 혼례를 치르고 어려워도 두 집식구가 한데 모여 살기로 하였다.

그런데 식구가 늘어나서 곱으로 벌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수가 없었다.

학춘이는 친구들과 약속하고 독도로 나가기로 하였다. 그 섬주변 물밑에 해삼, 전복, 성게따위가 한벌 쪽팔려있었다.

오가는 길이 좀 멀기는 하지만 한번 행보에 여러날 기한을 정하고 섬에 나가 묵으면서 해삼, 전복을 대충 말려가지고 들어오는편이 훨씬 리가났다.

바위에 의지하여 자그마한 초막을 치고 며칠에 한번씩 배가 넘치게 해삼, 전복을 실어들이면 어머니가 물에 나가서 팔고, ...

황학춘로인의 주름잡힌 얼굴에 감회깊은 표정이 떠올랐다.

《한창나이때라 힘든줄 몰랐지요. 힘들다니요? 창경으로 물밑을 들여다보느라하면 우리 나라는 땅만 금수강산인게 아니라 물밑도 금수강산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나면서 힘이 솟고 성수가 나지요. 온통 금은보화천지인데 금빛은빛으로 어룽거리는 그 물밑정치란... 해삼이 아이들 베개통갈구 생복은 대접을 열어놓은것갈구 물가에는 살찐 물개들이 무리지어 뒹굴며 해조임을 하는데 그놈들이 사람을 피하지도 않지요.》

달밝은 날 밤이면 초막앞에 누워 달을 쳐다보며 앞날의 일을 꿈꾸는것도 멋이려니와 섬년이가 부르는 섬노래가 또한 기막히게 듣기 좋았지요. 내 한번 그 노래를 불러볼락하는데 웃지 마시오.》

황학춘로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한동안 멀리 창밖을 내다보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생각깊이 나직이 흥얼거리더니 차츰 흥분되어 목청을 떨며 구성지게 불러넘기였다.

독도바다 한가운데

뿌리없는 남기(나무) 나서

가지는 열두가지

잎은 피여 삼백록십

그 남기(나무)열매 열려 일월인가

아하이요 섬아섬아 내 사랑 섬아

로인의 눈기슭이 어느새 축축히 젖어오고있었다.

젊은 현영률은 가슴이 몽클해짐을 느끼였다.

나서자란 고향땅, 섬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그리움으로 몸부림쳐온 사람만이 간직할수 있는 그런 감정이였다.

《그 섬에서 섬년이와 사랑의 첫정도 나누었지

요. 어느 바위, 어느 자갈밭, 어느 물밑이며 도래 굽이에 우리들의 발자취가 어리지 않은데가 있었겠소. 학자선생도 사랑이란걸 해보았을터이니 알 테지만 사랑에 빠진 그 시절에야 걸은 길이며 잠시 걸터앉았던 바위돌이며 오가던 길섶에 피었던 꽃 한송이, 나무 한그루가 한생이 다 가도록 아름답게 추억되구 잊혀지지 않는 법이지요.

독도라는 그 섬이 내게는 그런 곳이란 말이웨다.»

로인은 담배 한대를 또 붙여물고 연기와 함께 긴 한숨을 내뿜고나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섬년이가 마지막으로 섬으로 나가던 날 새벽이었지요.》

…동녘이 흰해지자 학춘은 노와 사돌어구를 둘러메고 물가로 나갔다. 오늘은 섬년이 몰래 혼자서 나갈 잡도리였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에 잠겨 아직 바다는 잠에서 깨지 않고있었다.

모래불에 끌어올려놓은 매생이에 걸터앉아 기다리고있던 웬 사람이 얼른 일어서며 반긴다.

섬년이였다.

《아니?! 니 어쩔라구 나왔니?》

《나두 함께 나갈란다.》

《그 몸으로 어딜?》

《피-몸이 어째서? 사내가 별걱정 다…》

학춘은 섬년의 만삭으로 부른 배를 걱정스레 바라보았다. 당장 몸풀 때가 된것 같은데 걱정없다니…

《증말 일없을가?》

《걱정도 팔자라고… 내 몸이 으쨌단거요? 아유, 종말 위섭어 죽겠다카이 …》

섬년이는 그 쾌활한 말씨로 학춘의 마음을 누갓혀주면서 기어이 함께 가겠다는것이다.

《가서 말동무나 해줄라카면 몰라두…》

학춘은 할수없이 섬년이와 함께 배에 올랐다. 스택스적 노를 저으면서 고물쪽에 마주앉은 섬년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건너다보느라니 눈앞에는 얼마전 독도에 나갔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날밤은 하늘에 별이 총총하였다.

두사람은 초막앞에 나란히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참, 별도 많다카이. 아버지별, 어머니별, 오빠별, 형님별, 총각별, 처녀별 …》

별을 세며 혼자 중얼거리는 섬년의 목소리를 듣고있던 학춘은 느닷없이 물었다.

《새서방별, 새색시별은 왜 없노?》

《호호… 그거야 이 초막앞에 누워있으니 하늘에야 없을수밖에 …》

《뭐? 초막앞에? 허허… 그러니 내가 새서방별이고 니가 새색시별이라가는거야?》

《그러잖음…》

《그럼 저 새서방별, 새색시별사이에서 깜박거리는 작은 별은 뭐라카는거야?》

《애기별이지. 애기별이 부럽나?》

《부럽잖음. 사동 쇠주머구 명득이는 나와 동갑이락카지만 떡돌같은 아들을 봤다고 흰목을 뽑는 판이야.》

《부럽어말아요. 우리한테두 애기별이 생겼으니깐.》

《생기다니? 어디?》

학춘이는 별떡 일어나앉았다.

섬년이가 주저주저하면서 학춘의 망작같은 손을 손더듬으로 찾더니 살며시 끄당겨갔다.

《여기.》

《증말이야?》

《만져봐요.》

아직 만져지는것이 없었다. 그저 따스하고 부드럽기만 하구나 했더니 아니다, 무엇인가 툭툭 뛰는것이 감촉되는듯 했다.

더운 피가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이게 바로 생명이로구나! 이 새 생명이 우리의 힘이구 앞날이구 희망이구…

학춘은 너무 기쁜김에 섬년이를 와락 두팔로 안아든채 빙글빙글 돌아가고 섬년이는 짹짹 소리내어 웃고…

그후부터 학춘은 섬년이가 무잡이를 못하게 했다. 했지만 섬년이는 한동안 그 일을 그만두지않다가 배가 점점 불러오자 할수없이 학춘이를 거들어주는것으로 그치는듯 하였다.

그러던것이 오늘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기어이 함께 나가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따라나선것이였다. 싫지는 않았지만 공연히 걱정스럽고 마음이 별스러웠다.

배가 섬에 거의 닿을무렵에 학춘은 사돌배 한척이 섬주변에 떠있는것을 발견하였다.

두사람이 앉아서 한창 창경질을 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누구들인지 분명치 않은데 한발 먼저 나온 모양같았다.

《어허- 어디 배여-》하고 소리를 지르자 저쪽배에서 허리를 펴고 이쪽을 바라본다.

섬년이가 표적이 되었는지 저쪽에서는 이쪽을 제격 알아본다.

《어 -사동배다! 너 저동 학춘이로구나.》

《어 - 명득이냐?》

《오냐, 너의 형님이시다.》

《오라질 자식, 사팔뜨기락두 장가만 먼저 들면 형님이냐?》

학춘이는 기분 좋게 두덜거리며 명득이네쪽으로 노를 저어 나갔다.

《그래, 언제 나왔니?》

《벌써 이틀째다. 섬년이를 데리구 나왔으니 마침이로구나. 때식 끓이기가 싫어 죽을지경이다.》

명득이가 섬년이쪽을 흘깃 바라보면서 사팔뜨기눈을 끔찍해보인다. 그 눈치를 알아차린 섬년이는 시원스레 대답하였다.

《걱정말아요. 동자질은 내가 다 맡을터이니 많

이들 잡기나 해요.》

《우리 초막은 저 가재바위쪽에 있다. 학춘이 너도 그쪽에 자리잡아라.》

《그러마.》

학춘은 우선 섬년이를 가재바위쪽 자갈밭에 내려주고 한발 늦게 나온 갯음도 할겸 그길로 사돌질을 하려고 노를 저어나가면서 점심겸 저녁겸으로 명득이네뭍까지 조개죽을 꾸짖히 끓이라고 섬년에게 소리를 질렀다.

《네- 걱정말고 첫날이니 얼른 들어와요-》

섬년의 쾌활한 대답소리를 등뒤로 들으면서 학춘은 명득이네와는 다른쪽 도래굽이로 나가 사돌질을 시작하였다.

배가 출출하여 머리를 들고 해를 살펴보니 어느덧 한낮이 기울었다.

조개죽을 끓여놓고 기다릴 섬년이가 생각났다.

명득이네를 데리고 들어갈 생각으로 그쪽을 향해 노를 저었다.

이때 갑자기 《땅!》하는 야무진 총소리가 들려왔다. 잠시후 《땅, 땅, 땅...》 다시 총소리가 물방으로 터져나왔다.

(이게 웬 총소리인가?)

학춘은 불길한 생각이 들어 다급히 배머리를 섬쪽으로 돌리었다. 그제야 동도와 서도사이에 떠있는 한척의 발동선이 보이였다.

(왜놈들이로구나!)

있는 힘을 다하여 가재바위쪽으로 노를 저어갔으나 섬년이가 보이지 않았다.

《섬년이- 어디 있어-》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섬에 올라 살펴보니 죽가마가 아직도 김을 뿜으며 끓고있는데 거기서 바다쪽으로 여러문걸음쯤 떨어진 자갈밭에 섬년이가 쓰러져있었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왜놈들 총에 맞았는가?

학춘은 미친듯이 달려가서 섬년이를 흔들어깨웠다.

《이봐, 정신차려, 정신차려!》

섬년이가 맥없이 눈을 뜨며 신음소리를 냈다.

무릎 조금 옷쪽에 살이 끈적하게 헤쳐졌는데 그 상처에서 피가 팔팔 흐르고있었다. 흰 자갈밭에 피가 스며들다못해 흥건히 고여있었다.

목에 들렀던 무명수건을 풀어내어 상처를 힘껏 동여맸으나 살이 깊은 곳이어서 피가 멎지 않았다.

《이게 어찌된 일이야?》

섬년이는 피기가 가신 입술을 간신히 움직였다.

《왜놈들이 ... 총을...》

《왜놈들이 무슨 심사로 사람한테 총을 쏜단 말이나?》

학춘은 불이 펄펄 이는듯 한 눈길로 발동선쪽을 노려보았다.

왜놈들이 급방 잡은 물개들을 발동선에 처시키고

있었다.

《이놈들아, 생사람을 왜 쏘느냐?》

발동선을 향해 주먹질을 하며 고향을 지르자 물개를 바빠 신고있던 왜놈들이 섬쪽을 건너다보았다. 조선말을 대강 아는듯 한 왜놈 한놈이 배전에 나서서 지껄였었다.

《사람이나 상했소까? 우리는 책임이나 없다. 물개와 섞여있다가 총에 맞았으니 우리는 모른다. 조선사람이나 물개나 한가지다.》

《뭐라구? 이 강도같은 놈들아, 조선사람이 물개와 같다구?》

왜놈들이 독도에서 물개를 몰래 잡아다 큰 돈벌이를 한다는 말은 들었으나 이렇게 맞다들려보기는 처음이었다. 도적고양이처럼 남의 나라 섬에 기여들어 물개를 잡아가는것도 통분한 노릇인데 사람을 해치고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는 저놈들은 그저 도적이 아니라 강도이고 짐승이다!

아, 총대포라도 있었으면 저놈들 대가리우에 불벼락을 꽂 안겨야 미음 시원하겠는데...

《이 강도놈들아, 네놈들이 무슨 권리로 남의 섬에 기여들어 물개를 잡아가고 사람까지 해치느냐?》

학춘이가 검질기게 대들자 왜놈들이 일손을 멈추고 배전에 줄레줄레 나서서 이쪽을 건너다보는데 조선말을 아는 놈이 동료들이 보는 앞이라 제법 기승을 부렸다.

《이 섬이나 일본섬 다께시마(죽도-독도를 일본식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그것이나 모르는가?》

《개수작 말라. 조상대대로 조선섬이던 독도가 언제부터 네놈들섬이 되었느냐. 이 죽일놈들...》

《다께시마는 현고시 40호로 일본섬이 된지 오랜데 아직도 조선섬이라구? 조선이나 지금 어디 있는가? 조선이나 없는데 조선섬은 있는가?》

《하하하...》

《히히히...》

《나라도 없는 주제에 제 나라 섬이라구?》

아, 제 나라 섬을 제 나라 섬이라고 말도 할수 없단 말이나. 저 원썩 왜놈들...

학춘이가 격분을 삭일수 없어 발을 구르며 몸부림치고있는데 때마침 명득이네 사돌배가 총소리를 듣고 급히 다가오고있었다.

《박사선생님!》

옆에 앉아있던 김정민이 입을 열었다. 현영률은 그제야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요즘 일본반동들이 <시마네현고시 40호>라는 것을 독도령유권을 <립중>하는 유일한 법적근거로 내들고있는데 그에 대하여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현영률은 생각을 더듬는 기색도 없이 대답하였다,

《그 고시 40호라는것은 1905년 2월에 일본 시마네현 현청이 다께시마, 다시말하여 독도를 현

에 소속시킨다는 내용으로 조작발표한 모략문서로서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것입니다.

보다 중요한것은 독도문제라는것이 무엇이고 제기되게 된 경위는 대체로 어떠한가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적야망은 그 어드레나 변함이 없었습니다만 독도령유권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한것은 1905년부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독도수역에서 1903년부터 비법적으로 물개사냥을 벌려 매해 수만마리의 물개를 잡아서 폭리를 얻고있던 시마네현의 포경업자 나카이 요사부로라는자가 독도를 현에 편입시켜주며 물개사냥의 독점권을 인정해달라는 임대청원서를 제출하자 조선을 강점할 기회만 노리고있던 당시 일본내각은 1905년 1월에 나카이의 청원을 승인하면서 <무주지>(주인없는 땅)인 독도를 일본령토로 편입하는것이 무리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시마네현 현청은 그해 2월 22일에 <시마네현고시 제40호>라는것을 조작하여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다는것을 일방적으로 공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독도가 주인없는 섬이였는가. 우리 나라에서는 벌써 1,500년전 신라 지증왕때인 512년에 우산국(울릉도, 독도)을 신라에 귀속시켰다는것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있습니다.

국제법상으로 령토취득의 기본원칙으로 되고있는 <무주지선점>, 다시말하여 주인없는 땅을 먼저 차지한다는 원칙으로 보아도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1,500년전에 울릉도, 독도에 대한 <무주지선점>이 이루어졌기때문에 일본이 1905년에 와서 공포한 <시마네현고시 제40호>라는것은 성립되지부터 앓는 억지문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나라 조선봉건왕조정부는 근대적 국제법의 요구에 맞추어 1900년 10월에 독도령유권을 재확인하는 고종황제의 칙령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에 부속하는 군으로 하며 군청과 군수를 두어 관제중에 편입한다는것을 내외에 밝혔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시마네현고시보다 5년이나 앞서 이루어진 국가시책의 공포였습니다.》

현영률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고뿌에 물을 따라서 천천히 마시었다.

《루루이 더 말할것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가 태고적부터 울릉도, 독도를 관리해왔다는것은 삼국사기말고도 고려사나 조선봉건왕조실록이나 증보문헌비고를 비롯한 여러 역사책들과 지도들에 명백히 밝혀져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반동들은 시마네현고시발표후 조선이 독도에 대한 행정적권한을 가졌다면 왜 일본에 항변 한마디 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섬에 대한 소유권을 이미 포기한때문이라는 억지론리를 세우고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일이라 하겠습니까.

고시를 공포한 그해 11월에 일제가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고 외교권까지 빼앗았기때문에 봉건조선정부는 공식립장을 표명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소유권을 포기한것이라고 우겨대고있으니 그것이야말로 집주인의 입을 틀어막아놓고 주인이 도적이야 소리를 지르지 않았으니 도적질을 허락한것이라고 하는것과 같은 생억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조국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독도문제를 떠들고다니면서 독도강탈책동을 계속해왔습니다.

1960년대 <남조선-일본회담>때에는 더 말할것이 없고 70년대 80년대에 이어 새 천년기에 들어서서도 패망 60년을 앞두고 독도우표발행과 <다케시마의 날>제정놀음을 벌려놓으면서 다시 독도강탈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일제의 령토적야망의 뿌리는 이렇게 깊습니다.》

《듣고보니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김정민이 본격하여 말하였다.

《일본에 <거짓말도 방법이다>, <거짓말도 100번하면 정말이 된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이 현실로 될것을 바라는 어리석은 처사라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허허허... 글세 뭐라고 했으면 좋겠는지...》

현영률은 속담을 거들어서 하는 김정민의 비유가 참으로 그럴듯 하다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었다.

많은 력사과학적문제들에 대하여 문학과 생활이 그 본질을 정확히 밝혀 표현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독도문제를 순전히 력사지리적문제로만 보아야 하겠는가. 또한 정치외교적문제이거나 국제법상의 문제로만 보겠는가.

사람과 사람의 생활을 떠나서 문제를 고찰하는것은 우리의 방법론이 아니다.

섬을 개척하여 살아왔고 또 살아갈 주인은 다름아닌 사람이다. 그러니 독도문제도 마땅히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생활과 사상감정에 발을 붙이고 논리를 세워야 과학적인 결론을 도출할수 있지 않겠는가.

현영률은 자기 생각에 흥분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기까지 했다. 김정민이 취재수첩을 펼쳐들고 옆에 앉아있다는것도 다 잊은듯 잠시 책상앞을 거닐면서 멀리 창밖으로 눈길을 돌리었다.

그러자 잊을수 없는 황학춘로인의 주름잡힌 얼굴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다.

...

로인의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총소리를 듣고 급히 노저어온 명득이가 섬년이 총에 상한 사연을 알자 이놈의 새끼들 오늘

에야 내 손에 걸려들었구나. 이 도적놈들, 어디 오늘은 이 쇠주머구맛을 좀 보아라 하면서 왜놈들의 발동선쪽으로 급히 배머리를 돌렸습시다.

그 기상이 무서웠지요.

명득이는 원래 사팔뜨기여서 눈매가 무서운데다가 주머구가 세서 사동쇠주머구라고 하면 올롱도일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힘장사였지요.

명득의 기상에 왜놈들도 겁이 났던지 물개사냥총을 공중에 대고 짹짹 쏘아대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더군요. 명득이가 그쯤한것은 개방구만큼도 여기지 않지요. 명득이가 가설노(창경질을 할 때 쓰는 배가녁에 매달린 작은 노)를 뽑아들고 발동선에 막 붙으려하자 당황해난 왜놈들이 사람을 향해 마구 총을 갈겼습시다. 한갓 위협수단으로 공포를 쏘는줄 알았지 그 총알이 사람을 해칠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난 호랑이처럼 날뛰던 사람이 풀썩 주저앉더라 말이에요.

노를 젓던 짝패청년이 불들고 흔들어도 일어서질 못하는걸 보니 크게 상한 모양인데 이렇게 되고보니 나도 제정신이 아니였지요.

섬년의 일은 까맣게 잊고 노를 저어 마주나가 보니 명득이는 이마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정신없고 쓰러져있었습니다.

흘러내리는 피를 닦고보니 총알이 머리뼈에 박혔는지 상처는 크지 않으나 다 죽은 사람이란 말이네요.

상처입은 사람을 구완하느라 우리가 경황없는 틈을 타서 왜놈들은 부리나케 닳을 걸어올리고 물개를 실어나르던 매생이를 풍무니에 매단채 황급히 도망쳐버렸지요.

무인도자갈밭에 두사람이 총에 맞아 정신없고 쓰러졌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내사 평생에 그때처럼 급해보기는 처음이었지요. 명득이를 살리자면 우선 의원이 있는 올롱도로 한시바빠 가야했기에 짝패청년을 독촉했지요.

<야, 명득이가 죽고사는게 너한테 달렸다. 빨리 의원한테 가서 연독이 퍼지기전에 총알을 뽑아야 산다.어서!>

<그럼 섬년이는 어찌하우?>

<그건 내가 있으니 녀려말구 어서 떠나게.>

뚝을 울리구 배가 떠나자 나는 섬년이한테로 허둥지둥 달려갔지요. 그동안 정신은 들었으나 피를 많이 흘린 탓인지 얼굴이 백지장같이 되구 온통 땀투성이고...

그런데 더 큰일은 왜놈들의 총에 맞을 때 크게 놀란 탓으로 갑자기 산통이 오면서 해산이 급박해진것이였지요.

무인지경 섬속이라 산파가 있나, 산실이 있나, 경험있는 사람이 있나, 산모자신도 첫 해산이다 보니 진통이 시작되자 겁부터 먹고있는 형편인데 글썽 이보다 더큰 난사가 어디 있겠소.

나는 정신없이 소리를 질렀지요.

<야 이 문둥아, 니 내 말 들어야 산다. 두말말구 집으로 가자. 가다가 몸을 푸는 한이 있어두가야 산다!>

그런데 섬년이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젓는게 아니겠소.

<내사 죽어두 이 섬에서 죽겠다카이. 이 섬에 정이 들어서 이곳에 있으면 난 맘 편하구... 해와 달과 별도 더 곱게 보인다고 말하지 않겠소.>

<아, 니 무신 그런 꿈같은 소리 해썬노?>

나는 극도로 흥분하여 연방 소리를 지르는데 섬년이는 벌써 모든걸 각오한 사람처럼 <이 섬은 내 집같은 곳이니 아무 걱정말고 우리 애기도 이 섬에 태를 묻게 해줘요.>하고 간절히 부탁한단 말이우. 그 부탁을 어떻게 못들은체 할수 있겠소.

드디어 해산이 시작되었체다. 하두 건강한 사람이었으니 마지막기력을 다하여 ... 켜장...

애기는 나오자마자 큰소리로 울어썬는데 나는 온 얼굴이 땀과 눈물에 범벅이 되여 그놈을 받아 저고리에 둘둘 말아서 한열에 뉘여놓고 기진하여 허탈상태에 빠진 산모를 흔들어깨웠지요.

산모는 점점 기력이 쇠진해간단 말이요.

<야 이 문둥아, 니 어쩔라고 심을 놓구 늘어지는거냐? 애기를 생각해서라도 살아야칸다.>

산모는 파랗게 된 입술을 간신히 놀라피다.

<애기를 좀 봐줘요.>

나는 저고리에 싼 피덩이를 산모의 품에 안겨 주며 목멘 소리로 말했지요.

<꼬투리달린 놈이야.>

산모가 방긋이 웃음지어보이느라 애썬지만 그것도 순간이고 두눈을 맥없이 감으면서 <아, 왜놈들만 아니였어두...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만... 아, 내 손 좀 잡아줘요...>하고 애원한단 말이요.

손을 잡으니 얼음처럼 차더란 말이우.

<이 손을 꼭 잡아요. 놓지 말아줘요. 그리구... 애기를 잘 키워서...>하고는 고개를 푹 떨굽디다.

캄캄한 천길나락으로 덜컥 떨어지는듯 하더란 말이요. 끝내 그렇게 갔지요.

아, 세상에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일이 어디였는가. 그렇게도 살아서 생을 즐기려구 애썬단 사람이 왜놈들의 총알 한방에 모든것을 영영 잃어버렸으니... 이 원한을 어떻게 풀수가 있겠는가.

왜놈들만 아니였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것이라던 그녀의 마지막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놈들만 아니였으면 섬년이가 죽지 않았을게구 명득이도 총에 맞지 않았을게구 애기도 잘 자랄게구 섬도 꽃필게구 이 나라 만백성이 나라없는 망국노가 되지 않았을게구- 이런 말인데 그걸 어떻게 쉽게 잊을수가 있었겠소.

그저 앉아 울고나 있을 경황이 아니였지요.

산모의 시신을 안아다 배에 실은 다음 애기를 품에 안고 배에 오르려는데 문득 우리 애기도 섬에 태를 묻게 해달라던 그녀의 간절한 마지막부탁이 생각난단 말이우.

그래서 자갈밭 안쪽에다 땅을 깊이 파고 태를 묻었지요. 묻은우에 표적으로 큰 돌 한개를 굴러다 놓고 애기를 꼭 안은채 혼자 중얼거렸지요.

<너는 이 섬의 아들이다. 네 엄마는 갔으나 섬은 언제구 남아있을것이니 엄마없다고 외로워말구 어떡카든 살아야 한다!>

애기를 창막이널우에 내려놓고 힘들게 노를 저어 울릉도로 향하는데 고물쪽에 머리 나란히 두 사람이 누워있단 말이우. 한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섬년이요 한사람은 살겠다고 바둥거리며 뻥뻥 울어왔는 애기이고...

아, 엄마젖을 찾으며 애기는 발버둥치는데 엄마라는 사람은 젖을 물릴 생각도 았구 돌아보지도 았구...아, 어쩌면 저렇게도 무정할 법이 있단 말인가.

참고참던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립디다. 내 평생에 그때처럼 강물같은 눈물을 흘려본적이 없는데 그 눈물이 물이 아니라 힘이더란 말입니다.

애기를 어떻게 하나 잘 키워서 제 어미의 원수를 꼭갚게 하리라는 마음이 바위돌처럼 굳어지면서 힘이 생기구 용기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황학춘로인은 흥분된 마음을 누착히려는듯 담배 한대를 또 붙여물고 천천히 빨았다.

이야기세계에 깊이 빠져있던 현영률은 나직이 물었다.

《로인님, 그 사동쇠주머구라는 청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 내사 그 이야기를 마자 해야겠구만...》

로인은 담배연기와 함께 긴 한숨을 내뿜었다.

《명득이는 도중에 배우에서 끝내 숨졌지요. 왜놈들이 그날 명득이와 섬년이를 총으로 쏘눅히고 뒤가 켕기니까 도망쳐버렸지만 사람이 둘씩이나 죽었는데 아무리 왜놈의 세상이고 왜놈의 법이라 두 사람을 죽이고 무사할수가 있느냐 하면서 사동, 저동 두 마을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 길로 울릉군청으로 물려갔습니다.

그런데 군청에 있던 왜놈관리들의 대답인즉 총을 쏘자들을 놓치였으니 범인이 누구인지 확인할수도 없거니와 일본섬에 승인없이 들어간것은 불법월경죄에 해당된다면서 나와 영득의 짝패청년을 경찰서 구류장에 가두었습니다.

이놈들아, 제 나라섬에 들어가는것을 누구한테 승인받는단 말이나, 이렇게 대드니 나라도 없는 주제에 제 나라 섬이라는게 대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사정없이 뺨을 쳤습니다.

아, 나라잃은 백성은 정말 상가집개만도 못한 신세였지요. 어디가서 하소연할데도 았고 대들면 매박에 차례질게 았었습니다.

울릉도주민들이 독도에 들어가는것을 이제껏 가만있던 왜놈경찰들이 정작 말썽이 생기자 그것을 눌러놓기 위하여 그따위 구실을 꾸며냈던것입니다.

한달가까이 갇혀서 매를 맞다가 독도에 다시는

가지 았겠다는 문서장에 손도장까지 찍은 후에야 겨우 놓여나왔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동냥젖을 얻어먹인 덕분에 아기는 죽지 았고 살아있었습니다.

온 집안식구들의 손에 떠받들려서 동냥젖을 먹으면서도 탈없이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에 왜놈들이 나한테 덜컥 징병장을 펴구었습니다.

나만 없으면 당장 살길이 막히는 병약한 두 아내는이와 철없는 아이들을 버려두고 어떻게 왜놈의 총알받이로 나간단 말인가. 나라를 빼앗고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섬까지 빼앗아내는 원수놈들과 피를 물고 맞붙어 싸우지는 못할망정 그놈들의 군대에 나간단 말인가.

온밤 생각하다가 새벽에 어머니에게 물으로 나가 몸을 숨기고있다가 연락을 할테니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나오라는 말을 남기고 어머니가 꾸려주는 고구마꾸레미를 허리에 차고 섬을 떠났지요.

물에 나가서 품팔이군들속에 섞여 복행렬차를 타고 가고 또 가다가 내린 곳이 청진입니다. 별이가 좋다는 정어리공장에 들어가 함바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한 서너달 지난 후에 천부동에 살다나온 울릉도사람을 만났는데 마침 섬으로 간다기에 내 기별을 어머니에게 남몰래 전하게 하였습니다.

이듬해 봄에 어머니가 애기를 업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등에 업혀 벌쭉벌쭉 웃는 돌이 잡혀가는 아기를 보자 섬년이를 만난만큼이나 반갑고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시름시름 았던 섬년의 어머니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하나 남아있던 남동생은 삼촌이 물으로 데려갔다는것입니다.

그해 8월에 항일대전의 승리로 왜놈이 망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목이 터지게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면서 동무들과 함께 거리로 휩쓸려다니던 일이 어제일 같습니다. 해방후 첫해 봄에 **김일성**장군님께서 청진으로 오시여 로동계급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첫 5.1절을 크게 기념하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5.1절 첫 시위에 나도 붉은기를 들고 앞장에 서서 나갔는데 정말 사는 맛이 있었지요.

나라를 잃고 징병을 피해 쫓겨다니던 이 황학춘이가 나라의 주인이 되었으니 하, 이런... 사람이 사람답게 살라고 하면 제나라가 있어야 하구 백성을 하늘처럼 위해주시는 장군님같은분들 수령으로 모시여야 한다는것을 그때 깨우쳤지요.

그런 속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한시도 잊은적 없었지요. 원수 왜놈이 없는 고향섬에 가서 한번 활개를 펴고 살아보고싶어 매일같이 간다간다하고있는 판에 미군놈들이 38도선을 톱 막아놓았으

니 내사 죽기전에 섬년의 무덤이나 찾아볼수 있겠는지...》

이때 출입문이 여닫기는 소리가 나면서 키가 후리후리하고 산뜻한 해군복차림의 병사가 방으로 들어섰다.

《인재 오느냐?》

로인이 반겨맞았다. 《인사드려라. 평양에서 오신 학자선생이시다. 올롱도, 독도이야기를 들으러 구 우정 찾아오셨다는구나.》

《안녕하십니까?》

해군병사는 씩씩하게 군대식으로 인사를 하였다.

누굴가 하고 의아해하는데 로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였다.

《참, 내사 깜박 잊고있었구만. 이 애가 바로 독도에서 태어난 내 아들 태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현영률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동냥것으로 자랐다는 아들이가 어느새 인민군대가 되다니요?》

《예, 용케 살아났지요. 훈련을 잘해서 부대장의 감사를 받고 표창휴가로 몇해만에 집으로 왔습니다.》

《로인님이 겪은 올롱도, 독도이야기를 다 들려주었겠지요?》

《들려주다마다요. 현대 입대할 때만 해두 철이 덜들었던 애가 군복을 입더니 철이 들어서 아주 판사람이 되어 왔지요. 한마디말을 열마디로 새겨들음만 하게 되었으니 이번에는 단단히 이야기해서 보내려고 하는겁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학자선생, 이 늙은이의 말을 좀 들어보소. 너도 게 앓아 듣거라. 올롱도나 독도가 옛적부터 우리 나라 지경에 속하는 섬이라고 하는데 다만 책이나 지도에다 우리 나라 땅이라고 표시해놓았기때문에 우리 땅인게 아니라 바루 우리 사람들의 배가 묻히고 피와 땀과 정이 스미고 꿈이 어려있는 땅이기에 우리의 령토라고하는것입니다.》

그 섬은 내 피줄이 잇닿아있고 내 인생이 잇닿아있고 내 감정이 잇닿아있는 내 살점같은 땅이라 하는겁니다.

이걸 말하자구 긴 이야기를 했다는걸 알아주시오.》

순간 현영률은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렇다, 이것이다!

이것이 력사자료보다 더 귀중한것이다.

독도가 우리 나라 령토라는것은 력사책에만 명백히 기록된것이 아니라 우리 겨레의 생활과 심장속에 깃들어 굳건히 자리잡힌것이다. 그것은 과학적론리에 앞서 생활의 론리, 감정의 론리로 증명되는 진리이다.

《박사선생 님.》

김정민이 현영률의 사색을 방해하는것이 저어

되는듯 조심히 입을 열었다.

《독도문제가 단순한 령토문제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생각되는데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웁습니다. 바로보셨습니다. 우리 나라의 독도 령유권에는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그 어떤 의문이나 미해명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독도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는 속심이 어디있는가 하는것을 헤쳐보는것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이 독도를 욕심내는 리유는 두어가지로 나누어 말할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경제적리권추구에 있습니다.

독도와 그 주변 바다와 해저의 풍부한 자원을 독점하며 독도를 기점으로 령해선을 그음으로써 우리 나라쪽으로 독점적경제전관수역을 넓히려는것이 <경제동물>로 악명떨치는 일본의 야망입니다.

둘째 리유는 군사적야심에 있습니다.

로일전쟁때 이 섬에 연유보급기지를 꾸려놓고 짜리로씨야함대와외의 해전에서 이긴것처럼 앞으로 북방침략과 조선재침에 이 섬을 군사적으로 써먹으려 하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독도를 군사적교두보로 하여 조선재침을 실현하며 나아가서 아시아를 제패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하려고 하는것입니다.》

김정민이 물었다.

《<대동아공영권>이란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주시시오.》

《예, <대동아공영권>이란 1940년대초에 일본 고노에내각에 의해 제창된 독점적식민지에 대한 침략적망상입니다.》

일제의 <대동아공영권건설안>에 의하면 그 첫 단계로 조선, 만주, 북중국, 창강하류지역, 로씨야의 연해주를 포괄하는 <중핵지대>를 창설하며 둘째 단계는 동부씨비리와 전중국령토, 월남, 라오스, 캄보쟈, 태평양남부섬들로 <소공영권>을 창설하고 셋째 단계로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인디아, 태평양의 여러섬들을 련결하는 <대공영권>을 창설한다는것이고 그 다음 이를 발판으로 중근동지역과 아프리카 및 아메리카를 포괄하는 <대동아상업팽창권>을 이룬다는것이 그 골자입니다. 일제는 이 망상을 도조가 지른 태평양전쟁의 불길속에서 실현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결국 제가 지른 불길속에서 부나비처럼 타죽고말았습니다.

그런데 패망 6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경제대국>, <군사대국>을 표방하면서 력사의 오물장에 처박힌 옛꿈을 이루어보려고 다시 날뛰고있습니다.

그러니 독도문제는 본질상 령유권문제로 그치는것이 아니라 식민지적령토평창야망에 직접 련

결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일체의 <대동아공영권>야망을 분쇄하기 위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각성하고 경계심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나선다고 생각합니다.》

현영률은 한동안 사이를 두었다가 무엇인가 취재수첩에 적고있는 김정민에게 물었다.

《기자동무는 선군정치가 만능의 보검이라고 하신 우리 장군님의 명언을 잘 알겠지요?》

《예.》

《나는 얼마전에 인민군대의 한 지휘관을, 밝혀서 말한다면 황학춘로인의 아들을 만난적이 있는데 그때받은 충격이 정말 컸습니다.》

현영률은 얼마전에 황학춘로인의 그후 소식을 알고싶어 그의 아들 황태석을 만났었다.

동해안의 어느 경치 아름다운 군항에서 만난 황태석은 어느덧 귀머리가 희숙희숙한 나이지숙한 인민군해군대좌였다. 표창휴가를 받고 집에 왔던 어제날의 그 해군병사가 어느덧 지휘관으로 자라난것이다.

《아버지는 고향 울릉도에 끝내 가보지 못한채 몇해전에 80고령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박사 선생이 다녀가신 후에도 기회만 있으면 저에게 늘 말씀하였지요. 너는 독도의 아들이다. 그 섬에 너의 태가 묻혀있고 표적삼으려고 굴러다놓은 그 돌이 지금도 남아있을것이다.

독도를 지키는것은 임무이기전에 부모들의 한생을 욕되지 않게 하는 일이구 제 태가 묻힌 땅, 제 살점을 지키는 일이라는것을 명심하거라. 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황태석은 날카로운 눈길로 멀리 수평선쪽을 살펴보고나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지금 일본반동들이 독도침략책동에 피눈이 되어 <다께시마의 날>제정놀음을 벌리는것이라든가와곡된 력사교과서를 내돌리고있는것이라든가 2005년 <외교정서>와 <국방백서>에 독도령유권주장을 정책화하고 독도방위권행사를 공개적으로 시사하고있는것이라든가... 매우 온당치 않게 움직이고있습니다.

심지어 함정들과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독도기습상륙훈련까지 시도하고있습니다. 일본함정들의 독도주변침입건수는 1993년에 45회, 1994년에 63회, 1995년에 85회, 1999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불과 9개월사이에만도 58회로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해병들의 경계심과 적개심을 크게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나라의 자주권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는자들을 용서치 않을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군대의 배짱이고 기질입니다.》

천만번 옳은 말이다.

이 나라의 지난 100여년력사의 총화가 그것을 일깨워주고있다. 나라의 자주권이 침해당하는것을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점차 나라가 망하고 국토를 잃으며 거레는 망국노가 되어 쪽박을 차고 정처없이 흩어져가는 비극이 빚어진다는것이다.

독도는 작은 돌섬에 지나지 않지만 결코 작은 섬이 아니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 실려있는 큰 섬이고 선조의 피가 스미고 땀과 꿈이 어려있는 더없이 소중한 땅이다.

황태석대좌는 헤여질 때 확신에 넘친 목소리로 말하였다.

《박사선생님, 조금도 넘려마십시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고 무적장군인 우리 인민군대가 있는 한 독도는 영원히 우리 땅으로 남아있을것입니다. 이것은 나 개인의 말이 아니라 빈말을 모르는 우리 인민군대의 대답입니다.》

현영률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었다.

지금 북과 남, 해외에서 독도사수투쟁과 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이 모든 투쟁과 운동이 그자체에 머물거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강력한 국력의 안받침이 있어야 한다. 어제날 황학춘로인이 걸음마다 불행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은 나라가 없었고 나라를 지킬 힘이 없었고 손에 총을 쥐지 못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민족에게는 모든것이 다 있다!

만능의 보검인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고 무적의 군력이 있다.

현영률은 김정민이 취재를 마치고 돌아간 후에도 오래도록 흥분속에서 사색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흥분을 안은채 원고지에 마주앉았다. 30여년 전 독도에 대한 첫 논문을 쓰던 때와는 대비할수도 없는 큰 힘과 열정으로 온몸이 불타는듯 했다.

현영률은 펜을 달리기 시작하였다.

창밖에서는 이해의것만이 아닌 이 나라의 영원한 봄빛이 한장 길어가고있었다.

우리 민족끼리 (외 1 편)

리영삼

너와 나 열린 가슴에
궁지로 자부로 깊이 자리잡은
우리 민족끼리란 말

이 말속에 백두와 한나가 솟아있고
이 말속에 천지와 백록담이 출렁이고
이 말속에 반만년을 산
겨레의 넋과 뜻이 숨쉬고있다

력사도 문화도
아득히 찬란하고
영원토록 무궁창창할 너를 지키려
피타는 입술들이 외우는 말

잡것이 섞이지 않는 이 말속에
끓길줄 모르는 애국의 숨결 드높고
내 나라 산줄기 강줄기가 굽이쳐
동서해가 설레인다

외세를 눌러딘고
천연암반처럼 다져진 이 말속에
6.15가 떠올린 《우리 민족끼리의 날》이 있고
북남이 서두르는 통일잔치도 있다

우리 민족끼리란 이 말속에는
영원한 통일은 있어도
영구한 분별이란 있을수 없다

통일의 노래

망국에 짓눌려
피눈물에 얼룩졌던 노래

부르고 불러도 대답이 없던 노래
땅을 빼앗겨
봄마저도 빼앗겼던 노래

수난의 피바다를 헤치면서도

민족이 잃지 않은 노래
고향에서 불러도 타향에서 불러도
애국의 일념으로 마음을 합쳐주는 노래

언 가슴을 녹이며 부르기에
제맛이 나는 노래
7천만이 한소리로 가슴을 뚫이는
아, 통일의 노래 아리랑이여

그 붓을 나에게

리성철

애국시인 강승한동지여
불구름 몰아치던 조국의 대지우에
마지막시구절을 남기고간 동지여
나는 지금 여기서
그대가 한생토록 부른
사랑의 노래, 애국의 노래를 듣는다

해방이 좋아
분여받은 땅을 그러안고
기뻐서 울고웃는 농민들과 함께
온밤 발머리를 거닐며
그대는 부르지 않았던가
고마움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춤추며 들썩한 선거장에서
그대 목메여 부르던 그 노래도

나는 지금 여기서 듣는다
평범한 사람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수령님의 그 은덕이 하도 고마워
밤새워 보답의 시줄을 고르던
그대의 모습도 나는 지금 여기서 본다

그 귀중한 모든것을 빼앗으려고
달려든 원썩들앞에서
시인의 심장이
어찌 증오로 끓지 않으랴
붓을 총창처럼 비껴들고
용맹하게 싸운 강승한렬사여!

이 땅을 끝없이 사랑한
애국시인이기에
원썬들은 꺾지 못했다
총칼로도 회유로도
그대 불굴의 신념을!

시인이여 넘겨다오 나에게
원썬의 총칼앞에서 높이 들었던
신념의 붓
투쟁의 붓
애국의 붓을

그러면 내 쓰리라
피흐르던 석당천의 물소리를 들으며
그대 마지막순간에
당당히 읊던 그 시를 이어
복수의 피끓는 시의 총창을
원썬의 가슴팍에 박으리라

아 내 쓰고쓰리라
영원히 빼앗길수 없는
조국의 노래
위대한 장군님 품속에서 부강번영할
선군조국의 영원한 노래를!

백두—한나행진길

한광춘

이 강토에 분렬의 말뚝이 박히던
그날부터 걷고싶던 길이다
깊은 한밤
후두둑 심장이 뛴뛰는것을 느끼며
꿈에서도 걸어보던 길이다

땅를 두드리고 하늘에 소리쳐도
메아리만 돌아와서 아픈 가슴 흔들뿐
열리지 않던 질이다
그 길우에 아기의 첫걸음마 못떼여주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소리없는 눈물이 쌓이던 길이다

걸어서 못가면 기어서 가고
기어서 다 못가면 뉘이라도 가자고
넘어넘어 열두고개
피눈물의 아리랑고개 몇몇 고개였던가
백두-한나행진길이어

가노라
긴긴세월 애타게 찾고부르던
그 손들을 잡고간다
이제 더 갈라져선
조선사람의 피가 편다 누구도 말할수 없는
그 가슴들을 서로서로 부둥켜안고 간다

백두에서 한나까지
백발도 가고
아이들도 가고
민족이 가고
력사가 가는 애국의 이 길

천만가닥 해살은 눈부시다
6.15의 위대한 기치따라 나아가는
오 이 길엔
없다
대결도 불신도 저주로운 장벽도

갈수록 넓어지는 길이다
걸음걸음 통일에 가까워오는 길이다
이 길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마음
하나로 이어지는 강토
더 커지는 민족의 힘이다

아 백두의 천지물도 푸른빛
한나의 백록담도 푸른빛
큰 걸음 내짚으며
백두-한나행진길에서 바라보는
통일조국의 하늘도 맑고 푸르더라

암닭이 운다 (외 1 편)

리영복

저 대양전너 《미국집》에선
수닭이 울다 지쳤는지
요사인 제법 암닭이 덩달아 승이 나
해를 치며 울어대누나

촌에 가면 이른새벽 새날을 알리며
수닭이 청을 돈귀 류창히 운다 꼬끼요
어서 밥을 지으라고
한낮이면 뜰안에서 놀다가도
목대를 빼들고 정답게 운다 꼬끼요
점심참이 되었다고

허지만 《미국집》 검정암닭은
새벽도 정오도 아닌데
열이 빠진듯 울어대누나 끼끼우
《선택포기》를 하라고
남을 어찌지 못채 미친듯 울어댄다 끼끼우
《핵》을 가지면 절대 안된다고...

미국땅이 하도 썩고 병들다보니
거기선 근년에 별난 추물이 다 생겨나오
물론 《특별보좌관》 시절에도 라이스는
부쉬의 턱밑에서 맴돌며
고약한 수작질을 일삼았지만
장관직에 승진후엔 지내 도수가 넘는다
허가 고장났는지

내 못들은체 모르는체 하려 했건만
그냥 놔두면 세상이 소란해지겠기에
가만둘수가 없구려
부쉬에게 알랑거려 《국무성》을 타고왔더니
민충이 쪽대어나 오른듯
입에서 구렁이가 나가는지
구데기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분수없이 까불며 개나발을 불어댄다

《초대국》의 국무장관을 한다는 너인이
그래도 세계가 벅적 떠든 조미핵문제

전후과정쯤이야 알고있어야지
그렇게 무식한 망발을 쫓치면 쓰나?
아직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우리를 어찌한다구
《선택안》이 탁상우에 놓여있다구?

그래 우리가 총을 놓고 바질 벗으라는건데
미안하지만 부인이 먼저 《핵》을 놓고
치마를 쪽 벗는게 어때?
북이 《선택포기》를 하면
뭐 《깜짝 놀랄 혜택을 받을수도 있다》구
핫하하... 강도에게서 혜택까지?

발칙한 라이스 당신 지금 몇살이지
괴물은 허를 바로 놀리는게 좋아
우리에게도 완벽한 억제력
멋진 선택안이 있어!
참새처럼 재갈재갈 내뱉는 위협나발을
우린 미궁에 빠진자의 비명으로밖에 안들려

부인은 점점 못하는 수작이 없구려
뭐 《무서운 정권》의 《개혁》이 어찌구
《위험국가》가 누구라구?
날조한 허위정보로 생트집을 길어
이라크를 바퀴잡듯 때려 덮친 미국이
그래 《검점부인》에겐
《무서운 정권》이 아니고
《다정한 정권》인가요?!

리성을 잃지 말라 라이스
그래도 명색이 《국무장관》이라는데
말 한마디 해도 무게있고 납득이 가게 해야지
수다쟁이 아낙네처럼 놀면 되나?
암닭이 그렇게 승이 세 울면 미국을 망쳐
핵마귀인 주재에 계속 《핵》 《핵》하단
《핵》불에 허를 빼문채 숯덩이가 될수 있으니
좀 자중해 입건살 잘하라구

신통도 해라

내 오래 살다보니
자랑도 별난 자랑을 다 봐요
실은 침략질로 쟁긴 《도적자본》인데
주머니에 돈냥이나 좀 있다고
쫄랑대며 돈자랑하는 꼴
으시대며 엔자랑하는 꼴

영웅들이나 명인수재들
명승지와 문화를 자랑함은 흔히 보았으나
-우린 돈이 많다 부럽지?
우린 엔이 많다 친할가?
치졸하고 린색한 그들이
마치 그 누굴 도와나 줄듯이
돈을 미끼로 유혹하며
더 많은 돈을 남으려
돈자랑하는 꼴 내 보다 처음 보나니

신사복에 나비넥타일 살짝 매고
어깨엔 《계약문서가방》을 착 메고
나라마다 싸다니며 자랑하누나

갑삭거리며 해죽거리며
참새처럼 재잘재잘 귀가 솔도록
일본놈들이 미친듯 엔자랑을 해대누나

5대륙의 가난한 나라들과
《먹을 알》이 있는 곳을 돌아치며
자비롭게 《선심》과 《동정》도 표하고
유엔청사안에서도 살금살금
이방저방 가웃가웃 김새를 보며
분수없이 끼여들어 돈자랑하는 그 몰골
볼수록 눈이 딱 감기나니

신통도 해라 세살난 철부지
애들앞에 내흔들며
-요거 봤지 빨간 내 사랑
요거 봤지 노란 내 사랑
너 요거 먹고파? 사랑자랑하듯
오랑캐들이 엔자랑하는 그 표락서니
정말 간특도 해
열물이 나도록 역겹구나!

작가일화

소크라테스와 소설제목 《등에》

B.C. 399년 고대그리스의 관념론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으로 청년들을 부패시킨다는 죄명을 쓰고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았다.

사형을 앞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만약 철학연구를 그만두면 석방시켜주겠다는 조건을 내놓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대답할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철학연구를 끝까지 하겠다고 말입니다. 진정으로 의의 있는 행동을 할 때에는 생명의 위험을 고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이 나를 이 도시에 파견할 때에는 소잔등의 등에처럼 부단히 자극을 주어 소가 빨리 앞으로 나가게 하는것처럼 이 도시도

빨리 앞으로 나아가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었습니 다.》

이 말이 녀류작가 보이니치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그는 자기 신앙에 충실하고 죽을지언정 굴하지 않는 소크라테스의 정신에 감동되었다. 그리하여 이팔리아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반영한 소설을 쓸 때 자기 주인공의 이름을 《등에》라고 불렀으며 소설제목도 《등에》라고 그대로 붙이였다.

지금도 이 소설의 주인공 《등에》의 형상은 세계문학사에서 신념이 있는 인간의 대명사로 불리워지고있다.

《춘생문사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미제침략자들을 끝없이 미워하며 원수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견결한 혁명정신을 키워야 합니다.》

《춘생문사건》이란 1895년 미제침략자들이 조선봉건왕조국왕을 랍치하여 친미정권을 세우려다가 실패한 범죄적쿠데타음모사건이였다.

그러면 《춘생문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것은 우선 침략과 랍탈의 원흉, 모략과 음모의 왕초로서의 미제의 정체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미제가 이 쿠데타음모를 꾸민것은 조선봉건왕조정부가 당시 짜리로씨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막아보려는데서 출발한것이다.

청일전쟁이후 제국주의렬강들의 《3국간섭》으로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획득한 많은 리권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였고 반대로 짜리로씨야는 조선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였다. 사태가 이쯤되자 사대를 일삼아온 조선봉건왕조정부는 하루아침에 친청파로부터 친로파로 둔갑하게 되였다.

일제에게 조선을 먹이감으로 일단 던져주고 앞으로 조선에 대한 침략의 길을 열려고 한 미제에게 있어서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그리하여 미제는 《을미사변》으로 정치적불안이 조성된 틈을 타서 정부전복음모를 꾸미었던것이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날자를 1895년 11월 어느 날로 하되 경복궁에 대한 무장공격의 총지휘는 미공사관 서기관 알렌놈이 맡고 다이놈은 왕궁안에서부터 그 공격에 합류하며 리첸드르, 언더우드 1세, 아펜실러, 어비슨 등 《선교사》들은 국왕을 랍치하여 친미, 친일주구들로 괴뢰정권을 조작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놈들은 미해병대 약 100명, 기만과 위협으로 동원한 조선군대 약 800명, 특공대 40명을 끌고

11월 27일 0시부터 행동을 개시하여 주력은 경복궁의 동쪽문인 춘생문에, 일부는 서쪽문인 영춘문에 배치하였으며 선교사놈들은 왕궁안 다이놈의 사무실에 모여 대기하게 하였다.

새벽 3시에 세방의 대포소리와 함께 각기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뜻을 이룰수 없었다. 그것은 기만당했던 조선군인들이 놈들의 의도를 깨닫고 행동을 포기하였으며 또한 쿠데타음모계획이 탄로되어 봉건정부의 사전조치들이 있었던것이다.

이렇게 《춘생문사건》은 모략과 음모의 왕초로서의 미제의 정체를 보여주었다.

《춘생문사건》은 또한 매국배족행위를 일삼는 민족반역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말아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미제는 봉건국왕 고종을 랍치하여 미공사관에 끌어다놓고 친미정권을 세우려는 흥계밀에 미국선교사놈들을 시켜 리완용을 비롯한 친미, 친일주구들을 규합시키기 위한 막후공작을 벌리도록 하는 한편 경복궁호위장으로 있었던 다이놈으로 하여금 쿠데타에 동원할 반역자들을 조선군대 안에서 골라내도록 하였다.

리완용을 비롯한 민족반역자들은 친미, 친일본자들로써 그 이후시기에도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정책에 철저히 복무하였다. 몇놈 안되는 민족반역자들이 우리 민족 발전에 끼친 후과는 막대하였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민족반역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말아야 하며 그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안겨야 한다.

오늘 우리 조국은 선군의 기치따라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전진하고있다. 이 거세찬 대전군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지구상에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것,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계급적자각과 신념을 안고 살아야 할것이다.

리광섭

리룩사의 문필활동과 시문학

한중모

1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파썸적폭압과 강도적 수탈이 극도에 이르렀던 식민지통치말기 민족문학의 발전정형과 그 사상에술적특성을 정확히 해명하는것은 해방전 조선현대문학사를 주체적립장에서 과학적으로 정립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태어난 혁명적문학예술은 조국해방직전까지 줄기차게 개화만발하면서 그 높은 사상에술적풍격을 과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기본으로 하는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에 의하여 우리 민족문학예술은 새로운 역사적단계에 올라섰으며 빛나는 혁명적문예전통이 이룩되었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나라에서는 날을 따라 더욱더 악랄해지는 일제침략자들의 박해와 탄압으로 말미암아 진보적문학이 모진 난관과 시련을 뚫고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카프》작가들에 대한 두차례의 검거선봉을 일으켜 프로레타리아문학의 발전을 가로막으려고 미쳐날뛰던 일제침략자들은 주체24(1935)년 끝내 《카프》를 강제해산시켜버렸다. 일제는 《카프》의 조직으로서의 존재를 없애버릴수는 있었지만 프로레타리아문학의 명맥을 끊어버리지는 못하였다. 나날이 가혹해지는 일제의 압제와 궁핍한 생활조건에서도 견실한 《카프》출신작가들은 민족의식과 계급적립장을 간직하고 지켜나갔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단말마적박탈을 하던 민족수난의 가장 엄혹한 시기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문학활동을 진행한 량심적인 문인들가운데는 민족주의적사상리념에 기초하여 작품들을 창작한 사람들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한때 민족주의운동은 공산주의운동과 함께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에서 2대구성부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조선민족해방투쟁은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40년대 전반기에도 민족주의는 여전히 하나의 사조로 남아있었고 민족주의운동세력도 미약하나마 하나의 반일애국력량으로 존재하였습니다.》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에서 민족주의운동이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있었던것과 마찬가지로 해방전 우리나라 진보적문학의 발전에서도 민족주의문학은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일제강점 첫시

기에 활동한 민족주의작가들가운데는 최남선, 리광수와 같이 창작사업의 초기에 근대문학의 형성발전에서 한몫을 하였으나 3.1인민봉기이후 일제에게 투항변절하여 개량주의, 민족반역의 길을 걷고 친일어용문인으로 전락한 사람들도 있지만 시종일관 애국애족의 정신과 조국해방에 대한 열망이 차넘치는 작품창작을 진행한 신채호와 같은 문인도 있었다.

1920년대에 우리 나라 진보적문학에서는 조영희, 최서해, 리기영, 한설야, 송영, 박팔양, 박세영, 김창술, 류완희를 비롯한 《카프》계렬의 작가들에 의하여 형성발전한 프로레타리아문학이 주도적흐름을 이루었지만 일제강점말에 있는 식민지반봉건사회의 모순과 악폐를 폭로비판한 비판적 사실주의문학과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사람, 민족해방에 대한 념원을 절절하게 노래한 량만주의적경향의 시문학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민족주의를 사상리념적기초로 하여 창작사업을 진행한 현진건, 한룡운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민족주의적사상리념에 기초하여 창작활동을 전개하여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민족문학발전에 이바지한 작가들은 1930년대에도 적지 않게 있었다. 이러한 진보적인 작가들가운데는 현진건, 홍명희 등 기성작가들도 있었지만 새로 등장하여 자기의 존재를 나타낸 작가들도 있었다. 여기에서 두드러지는 작가의 한사람은 다방면적인 문필활동을 진행하고 반일민족의식을 담은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시작품들을 창작한, 해방직전에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해방의 밝은 날을 눈앞에 두고 이역의 감옥안에서 숨을 거둔 리룩사이다.

리룩사의 곡절많은 생애와 문학의 특성은 그가 사용한 이름에도 비껴있다. 1904년 5월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본명이 원록이고 그 다음에 원삼이라고 하였으나 사회생활에서나 문필활동에서는 리활 또는 리룩사라는 필명을 주로 썼다. 특히 작품들을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할 때에는 많은 경우 리룩사라고 하거나 간단히 룩사라고 하였다.

그가 리룩사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쓴것은 《조선은행대구지점폭파사건》에 련루되어 1년 7개월여에 달하는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와서 주체19(1930)년 처음으로 글을 써서 출판물에 발표하면서부터였다. 그는 주체19(1930)년 1월 첫 시로 《말》이라는 작품을 《조선일보》에 발표할 때 리활이라는 필명을 썼는데 그해 10월 잡지 《별건곤》에 론설 《대구사회단체개관》을 발표할 때에

는 리훠과 《대구264》라는 필명을 함께 썼다. 이것이 지상에의 리룩사라는 필명의 첫 출현이었다.

그러면 그가 첫 논설을 발표하면서 쓴 《대구264》에서 수자로 표시된 《264》가 어디에서 유래하였는가 하는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것이 대구에서 감옥살이를 할 때의 그의 수인번호라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통적인 해석이다.

리룩사는 어렸을 때 고향에서 한문을 공부하고 보통학교를 졸업한 다음 얼마간 교원생활을 하다가 일본에 건너가서 류학을 하였다. 룩사는 주체15(1926)년 중국에 가서 광둥성에 있는 중산대학에서 공부를 하던중 다음해 여름에 귀국하였다가 《조선은행대구지점폭파사건》의 혐의를 받고 검거구속되어 오래동안 옥중고초를 겪고 감옥에서 나온 다음 《증의일보》, 《조선일보》에서 기자생활을 하였다. 그후에도 그는 여러차례 일제경찰에 체포구속되었는데 이것은 그의 생활로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간고한것이였는가 하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리룩사의 인생행로에서 특이한것은 그가 주체21(1932)년부터 주체22(1933)년사이에 중국에 가서 《의렬단》성원들과 접촉하였으며 《의렬단》에서 설립한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한것이다. 이것은 그가 관여한 반일독립운동이 《의렬단》의 활동과 관련을 가지고있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리룩사가 문필활동, 시창작을 본격적으로 진행한것은 중국에서 귀국한 1930년대 중엽부터였다.

주체23(1934)년 4월 잡지 《대중》창간호에는 리룩사의 논설 《자연과학과 유물변증법》이 게재되었는데 이것은 그의 문필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는것을 알리는 신호와 같은것이였다고 할수있다.

론설 《자연과학과 유물변증법》은 당시 리룩사의 사상적립장을 엿볼수 있게 하는 자료로 된다. 이 글에서 룩사는 레닌이 맑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제시된 유물변증법을 새로운 현실적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론설의 이러한 내용과 론조는 룩사가 단순한 민족주의자인것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에 공명하고 사회주의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있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룩사의 이와 같은 사상경향은 이후 그가 해낸 글들에 이러저러하게 나타났다.

리룩사가 문필활동에서 먼저 관심을 돌린것은 사회문제, 정치시사문제였다.

룩사는 주체23(1934)년 9월 잡지 《신조선》에 당시 중국정세를 분석평가한 《오중전회를 앞두고 외분내렬의 중국정정》이라는 글을 비롯하여 사회비평론설, 정치시사론평의 성격의 글들을 련이어 써내었다. 그는 주체23(1934)년부터 주체25(1936)년까지 2년남짓한 기간에 9편의 론설들을 집필발표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5편은 중국의

사회정세와 정치동향을 분석고찰한것이였다. 사회정치문제를 취급한 룩사의 론설들가운데 중국과 관련한것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그가 중국에 오래 머물러있었기때문에 그 나라 정세를 잘 알고있었을뿐아니라 조선인민의 반일독립운동을 중국혁명과 련관시켜 고찰하였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끄는것은 그가 중국국민당의 로선과 장개석의 독재정치에 비판적립장을 취하고 중국공산당의 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하고있는 점이다. 이것은 그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적사상리념에 기초하면서도 공산당의 정치로선과 활동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는것을 말해주는 구체적인 표현이다.

리룩사가 집필발표한 론설들가운데서는 문화예술과 문학에 관한것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비판》주체27(1938)년 11월호 잡지에 발표된 《조선문화는 세계문화의 일부분》, 같은 잡지주체28(1939)년 2월호에 게재된 《영화에 대한 문화적측망》, 잡지 《인문평론》주체29(1940)년 11월호에 실린 《윤곤강 시집 <빙화> 기타》등이 그 실례로 된다. 문화와 영화와 시에 대하여 론한 이 글들을 통하여 알수있는것은 리룩사가 문필활동에서 1930년대 중엽에 사회정치문제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렸다면 1930년대 말엽부터는 문화예술과 문학에 보다 주요한 관심을 두었다는것이다. 이것은 문학가로서의 그의 성장과 정의한 측면을 보여주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여기서 또한 주목되는것은 그가 문학으로부터 영화와 문화일반에 이르기까지 넓은 조예와 식견을 가지고있었다는 점이다.

문학예술을 론한 리룩사의 론설들가운데서 이채를 띠는것은 로신의 서거에 즈음하여 주체25(1936)년 10월 《조선일보》지상에 발표한 《로신론》과 《춘추》잡지주체30(1941)년 6월호에 게재된 《중국현대시의 일단면》이라는 글이다. 이 글들 역시 문학문제에 관한 그의 관심의 폭과 식견의 수준을 보여주고있다.

문학과 예술에 관한 리룩사의 론설들은 대부분 문학리론상의 문제, 창작실천적인 문제를 전문적으로 론하기보다 작가에 대한 인상과 평가, 작품집에 대한 서평, 문단에 대한 소감과 희망 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서술한것이지만 거기에는 문학에 대한 그의 견해와 관점이 이러저러하게 표현되어있다.

문학에 관한 룩사의 견해와 관점에서 주목을 끄는것은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 문학이 노는 역할과 작품에서의 생활의 진실한 반영에 대한 강조이다.

리룩사는 론설 《로신론》에서 일본에 류학하여 의학공부를 하던 로신이 국민을 정신적으로 개조하는데서 중요한 수단으로 되는것은 문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예운동을 제창하여나서고 영국의 바이론, 뮐스카의 미쁘게워치를 비롯한 진보

적이며 애국적인 작가들의 작품들을 번역한 사실을 긍정적인것으로 인정하였으며 《광인일기》, 《아큐정전》과 같은 로신의 소설작품들이 당시 중국 사람들의 사상정신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사회적인보를 추동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이것은 문학의 사회적기능을 인정하고 중시한 그의 관점과 입장을 보여주는것이다.

문학작품창작과 관련하여 리룩사가 중요시한것은 생활의 진실한 반영문제였다. 그는 《로신론》에서 작품창작에서 로신이 견지한 《진실하고 명확하게 묘사하는 태도》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현실의 진실한 정형》을 쓰기 위하여 《프로레타리아문학가는 반드시 참된 현실과 생명을 같이하고 혹은 보다 깊이 현실의 맥박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한 로신의 견해를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룩사는 또한 《청색지》 잡지 주체28(1939)년 5월호에 발표한 론설 《예술형식의 변천과 영화의 집단성》에서 19세기 유럽비판적사실주의소설의 가치가 《일언으로 말한다면 그것이 인간생활의 진실한 기록이었던때문》이라고 하면서 발자끄소설에서의 《인간생활의 레알리티(사실성)》는 문학하는 사람이 잠시도 잊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리룩사의 문학견해는 한마디로 말하여 문학은 생활을 진실하게 묘사함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정신적개조에 영향을 주도록 되어야 한다는데 귀결된다.

리룩사의 집필목록에는 수필들이 10여편 있다. 이것은 론설들과 맞먹는 수자이다. 어렸을 때의 생활체험과 추억, 특이한 습관과 애용품. 교우관계와 서신 명승고적에 대한 답사와 자연에 대한 감상, 방문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내용과 각이한 형식의 글을 포괄하고있는 룩사의 수필은 그의 성격과 생활의 이모저모를 엿볼수 있게 한다.

리룩사의 집필활동에는 이밖에도 로신의 단편소설 《고향》과 호적의 《중국문학 50년사》에 대한 번역소개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처럼 리룩사는 국내와 중국으로 드나들면서 학교에 다니고 사회활동을 하며 반일독립운동에 참가하여 동분서주하고 체포구속되어 옥중고초를 겪는가운데서도 여러가지 내용과 형식의 글들을 많이 써냄으로써 문인으로서의 품격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문인으로서의 리룩사의 고유한 면모와 개성적특성을 보여주는데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어디까지나 시이다.

지금까지 발굴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리룩사가 창작한 시는 30여편이나 되며 그것은 론설, 수필을 포함한 그의 다른 모든 창작품을 합친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문인으로서의 리룩사에 대하여 보통 시인으로 부르게 되는것이다.

2

일제가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을 실현할 목적

밑에 《동조동근》, 《내선일체》를 떠벌이면서 조선인민에게 《황국신민화》를 강요하고 민족적인것을 모조리 거세말살하기 위하여 발광적으로 책동하는 험악한 사회력사적환경에서 리룩사는 사상에술적으로 특색있는 시작품들을 많이 써냄으로써 이 시기 민족문학사에 자기 이름을 뚜렷하게 새겨넣었다.

리룩사는 《계절의 5행》 [《조선일보》, 주체 27(1938)년 12월] 이라는 수필에서 자기의 시창작태도와 관련하여 《내 길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나자신의 희생을 요구하는 노력이요, 그래서 나는 내 기백을 키우고 길러서 금강심에서 나오는 내 시를 쓸지언정 유언은 쓰지 않겠소.》라고 하면서 《다만 나에게는 행동의련속만이 있을 따름이요. 행동은 말이 아니고, 나에게는 시를 생각한다는것도 행동이 되는 까닭이요》라고 하였다.

《내 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길에서 일신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금강석과 같은 굳은 마음에서 나오는 시, 그 길을 가는 행동으로서의 시를 쓰겠다는 룩사의 지적은 반일독립운동의 길을 걷는 그 사상감정으로 시를 쓰겠다는 작가정신, 창작태도를 피력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 미치는 문학의 영향력을 중시하며 시를 반일독립운동의 길을 걷는 자기의 사상감정의 발로로 간주하는 리룩사의 문학견해와 작가적자세로부터 그의 시문학은 당시에 범람하고있던 순수 시와 구별되는 사상에술적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리룩사의 처녀작은 《조선은행대구지점폭파사건》혐의로 체포구속되어 옥중고초를 겪고나온 다음 《조선일보》주체19(1930)년 1월 3일부에 발표한 시 《말》이다.

흐트러진 갈기
후주근한 눈
밤송이같은 털
오! 먼길에 지친 말
채찍에 지친 말이여!

수긋한 목통
축 처진 꼬리
서리에 번쩍이는 네굽
오! 구름을 헤치려는 말
새해에 소리칠 흰말이여!

시에 형상화된 말. 그것은 다름아닌 시인자신을 의미한다. 시인-리룩사는 채찍밑에 먼 길을 달려와서 무척 지쳤으나 《서리에 번쩍이는 네굽》으로 《구름을 헤치려는 말》의 형상을 통하여 2년가까운 모진 감옥살이로 육신은 몹시 피로하고 쇠약해졌지만 새롭게 사상의지를 가다듬고 반일

독립운동에 나설 결의를 예술적으로 밝히었다.

중국에서 조선에 돌아온 후 리룩사는 첫시기에 정치시사론평이나 수필을 썼으나 주체24(1935)년 12월 《신조선》잡지에서 《황혼》을 발표하면서 시창작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춘수3제》[주체25(1936)년], 《실제》[주체25(1936)년], 《한개의 별을 노래하자》[주체25(1936)년], 《로정기》[주체26(1937)년], 《해조사》[주체26(1937)년], 《강건너간 노래》[주체27(1938)년]를 비롯한 여러 시작품들을 련이어 창작발표하였다.

리룩사의 시창작활동에서 두드러지는것은 주체28(1939)년 《문장》잡지에 시 《청포도》를, 주체29(1940)년에 같은 잡지에 시 《절정》을 발표한 것이다. 이 시들은 그 사상예술적특성으로 하여 룡사시문학의 대표작들로 인정되고있다.

리룩사는 1940년대에 들어와서도 시창작에 심혈을 기울여 우수한 작품들을 련이어 집필하였다. 그는 시 《교목》[주체29(1940)년], 시 《자야곡》[주체30(1941)년]을 비롯한 여러 시작품들을 창작하여 《문장》, 《인문평론》, 《조선일보》 등 잡지, 신문에 발표하였다. 1940년대 초엽의 룡사의 시창작활동에서 특기할것은 《광야》, 《꽃》, 《편복》 등 그의 시인적면모와 개성적특성을 보여주는 시작품들을 여러편 집필하여 유고로 남겨놓은것이다. 당시 이 시들이 발표되지 못한것은 일제의 가혹한 언론탄압때문이었다고 볼수 있다. 그때는 단말마적으로 발악하던 일제의 악착한 검열과 통제로 말미암아 진보적인 사상적내용을 담은 문학작품은 발표할수도 없었거니와 우리 말로 씌여진 작품을 게재할수 있는 조선문판 신문잡지도 없었나.

룡사의 시창작활동과 관련하여 덧붙여 말할것은 그의 시목록에 3편의 한시들이 들어있다는것이다. 주체32(1943)년경에 창작된것으로 짐작되는 이 한시작품들은 그의 한문실력과 함께 시인적면모의 일단을 엿볼수 있게 한다. 룡사가 일제 식민지통치의 마지막시기에 와서 한시를 지은것은 한문에 능한 그로서 한시를 지어보고싶은 욕망이 생긴데도 있겠지만 우리 말로 된 시가작품들을 발표하기 어려웠던 사정과도 관련되어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리룩사는 중국 베이징으로 래왕하면서 활동하다가 주체32(1943)년 가을 일제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주체33(1944)년 1월 베이징에 있는 일본총령사관감방에서 숨을 거두었다.

리룩사의 시문학은 주제사상적내용에서나 예술적형상에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룡사의 시는 독특한 시형상을 통하여 애국적이며 반일적인 사상적내용을 특색있게 밝혀낸것으로 특이하다.

리룩사의 시들에는 은유적이며 상징적인 표현과 수법이 많이 사용되고있다. 룡사의 시작품들

에는 동식물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사물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대체로 시형상창조에서 은유적수법을 적용하여 상징적의미를 나타내려는 시인의 창작의도와 관련되어있다. 그의 시에서는 은유적이며 상징적인 표현과 수법은 어느 한 시구나 시련에 적용되는데 그치지 않고 웅근 한편의 시가 은유로 되어있고 상징적의미를 기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에서 고찰한 시 《말》도 그러한 작품의 하나이다.

룡사의 시에서는 또한 시어구사와 시문장조직에서 함축과 비약이 심한것이 특징이다. 언어구사에서와 형상구성에서의 이러한 특이성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어렵고 까다로우며 그 의미와 내용을 리해하기 힘들고 사람들에게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될수 있는 여지를 주고있다.

그리면 룡사의 시들이 왜 이와 같은 형상적특성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당시 조선시단에 류포되고있던 모더니즘시풍의 영향을 일정하게 받은것과 함께 일제의 언론탄압책동이 혹심하였던 조건에서 반일적이며 애국적인 사상적내용과 악착한 식민지사회현실에 대한 저항정신을 우회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려는 시인의 창작의도에서 나온것이라고 볼수 있을것이다.

리룩사의 시작품들에서 먼저 찾아보게 되는것은 일제의 강점과 식민지통치에 의하여 암흑천지로 된 조선의 참혹한 현실과 망국노의 신세에 놓인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와 운명에 대한 시적형상화이다. 그의 시에서는 《편복》, 《춘수3제》, 《실제》, 《로정기》, 《자야곡》을 비롯하여 이 주제분야의 작품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시 《편복》은 편복(박쥐), 쥐, 비둘기 등 여러 동물, 날짐승들의 형상을 통하여 당시 조선의 암담한 사회현실과 각계층 인민들의 고통스러운 생활처지를 보여준것으로써 작품전체가 하나의 은유적형상을 이루고있다.

광명을 배반한 아득한 동굴에서
다 썩은 들보와 무너진 성채우 너 홀로 돌아다니는
가엾은 박쥐여! 어둠의 왕자여!

쥐는 너를 버리고 부자집고간으로 도망했고
대붕도 북해로 날려간지 이미 오래거늘
검은 세기의 상장이 갈가리 찢어질 긴 동안
비둘기같은 사랑을 한번도 속삭여보지 못한
가엾은 박쥐여! 고독한 유령이여!

...

이것은 시의 앞부분 2개 련이다.

모두 5새련으로 된 시에서는 첫 련을 《가엾은 박쥐여! 어둠의 왕자여!》라는 시구로 끝낸것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모든 련들도 《가엾은 박쥐여! 영원한 보헤미안의 녀이여!》, 《가엾은 박쥐여! 멸

망하는 겨레여!》, 《가없는 박쥐여! 검은 화석의
요정이어!》라는 구절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것
은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상가집개
만도 못한 신세가 되어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헤매는 조선민족의 비참한
처지와 운명을 시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시 《춘수3제》와 《실제》에서는 일제침략자들
에게 나라를 빼앗기어 신세를 망치고 고생스럽게
살아가면서 갖은 민족적멸시와 천대를 받는 겨레
의 수난과 조선의 참혹한 현실을 여러모로 보여
주었다.

시 《자야곡》도 일제가 강점하고있는 식민지 조
선의 암담한 현실과 겨레의 비참한 모습을 가슴
아픈 심정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시의 주제사상
은 그 제목에서부터 시사되고있다. 자야란 자시
(밤11시~새벽1시)의 깊은 밤을 의미한다. 식민지
조선의 현실은 한밤중처럼 캄캄하였던 것이다.

수만호 빛이래야 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우에 이끼만 푸르리라
...

이것은 모두 6개 련으로 되어있는 이 시의 첫
련이다. 노랑나비도 오지않는 이끼푸른 무덤이라
는 시적묘사는 짓밟힌 고향-조국강토의 피폐한
모습과 황량함을 말하고도 남음이 있다. 《검은
꿈》이 모든것을 집어삼키고 바람이 불며 눈보라
가 치는 고향산천의 살풍경에 서정적주인공-
《나》는 너무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 물부
리에 담배연기만 피어올리고 매운 술로 마음을
달랜다. 시는 마지막에 첫 련을 다시한번 반복함
으로써 식민지조선의 암담하고 처참함을 거듭 강
조하였다.

리룩사는 여러 시작품들에서 온 강토가 광명을
잃고 한밤중처럼 캄캄한 조선의 참혹한 현실을
처절하게 노래하면서 결코 좌절감과 절망에 사로
잡혀있지 않았다.

시 《꽃》은 불모의 땅에서도 오히려 빨강게 피
여나는 꽃에 비유하여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조선민족의 의지와 희망을 보여주었
다.

리룩사의 시문학에는 식민지조선의 암담한 현
실과 민족수난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치
지 않고 조국해방을 위하여 일제강점과 식민지통
치에 대한 저항정신과 대결의지를 노래한 작품들
도 적지 않다. 그러한 시작품들로 《절정》, 《로
정기》등을 들수 있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발 칼날진 그우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발 재거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보다

이것은 시 《절정》의 전문이다.

시 《절정》에는 서정적주인공의 개성적인 성격
이 명확하게 나타나있지 않다.

시에서는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통치와 파쑈적
폭압 밑에서 망국노의 비운을 겪고있는 조선민족
의 참담한 처지와 처절한 심정에 대한 묘사가 기
본을 이루고있으며 시인과 겨레의 사상감정이 하
나로 융합되어있다. 일제의 조선강점과 식민지파
쑈통치로 말미암아 수난당하는 겨레와 시인이 서
로 어울려 서정적주인공의 형상을 이루고있는것
은 비단 《절정》뿐아니라 룡사의 시문학의 하나
의 특징을 이루고있으며 그의 시에는 서정적주인
공을 꼭 찍어서 말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적지 않
다.

시 《로정기》는 서정적주인공의 성격이 뚜렷하
게 안겨오는 작품의 하나이다. 시는 갖은 고초와
위험을 무릅쓰고 반일독립운동에 참가하여 은밀
히 활동하는 시인-서정적주인공의 간고한 생활을
풍파사납고 험난한 바다길을 밀항하는 작은 돛배
의 로정에 비겨 특색있게 묘사하고있다.

리룩사의 시작품들가운데는 《한개의 별을 노래
하자》, 《청포도》, 《광야》 등 조국의 해방과 민
족의 재생에 대한 지향과 기대를 표현하면서 광
명한 앞날에 대한 리상을 노래한것들이 여러편
있다. 그는 많은 시들에서 일제의 강점과 식민지
통치로 여지없이 황폐화된 조선의 처참한 현실과
민족의 수난을 통분한 심정과 침울한 정서적색갈
로 읊으면서도 조국의 해방과 민족의 광명한 앞
날에 대한 믿음을 다양한 시적계기들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한개의 별을 노래하자 꼭 한개의 별을
12성좌 그 술한 별을 어찌나 노래하겠니

꼭 한개의 별! 아침 날 때도 보고 저녁 뜰 때도
보는 별
우리들과 아주 친하고 그중 빛나는 별을 노래하자
아름다운 미래를 꾸며볼 동방의 큰 별을 가지자

한개의 별을 가지는건 한개의 지구를 갖는것
아롱진 서름밖에 잃을것도 없는 낯은 이 땅에서
한개의 새로운 지구를 차지할 오는 날의 기쁜 노래를
목안에 피대를 울려가며 마음껏 불러보자

...

이것은 모두 8개 련으로 이루어진 시 《한개의
별을 노래하자》의 앞부분 3개 련이다.

이 시에서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고 그렇게도 노래하고 싶어하는 《한개의 별》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아침 날 때 보고 저녁 뜰 때도 보는 별/우리들과 아주 친하고 그중 빛나는 별》 즉 새별을 가리킨다. 그러면 《한개의 별》-새별이 가지는 형상적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아름다운 미래를 꾸며볼 동방의 큰 별》이라는 시구에서 주어지고있다. 여기서 《한개의 별》은 《한개의 지구》를 의미하며 《한개의 지구》는 다름아닌 《이 땅》 즉 우리 조선의 강토를 가리킨다. 결국 시인-서정적주인공이 목청껏 노래부르는 《한개의 별》은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미래를 꽃피울 조국땅을 상징하고있는것이다.

시는 다음부분에서 해방된 조국땅우에 새롭게 꾸려질 아름다운 미래의 생활적내용을 밝히고있다. 그것은 밤일을 끝내고 처녀의 눈동자를 그리며 돌아가는 《젊은 동무들》이며 기름진 옥야천리를 차지하고자 화전에서 돌을 쪼는 《백성들》이다. 그것은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제멋에 알맞는 풍양한 주재자》로 되며 《모든 생산의 씨를 우리 손으로 휘뿌려모여/영률처럼 찬란한 열매를 거두는 향연》에서 흥취에 겨운 노래를 부르는것이다.

시에서는 새날의 려명과 희망을 표현하는 별, 《아름다운 미래를 꾸며볼 동방의 큰 별》을 노래하면서 해방된 조국땅우에 펼쳐질 행복한 생활을 랑만적으로 보여준것으로 하여 일제의 강점하에 있는 식민지사회현실과 민족적수난에 대하여 옳은 그의 다른 시작품들과 같은 처절하고 암울한 기분이 전혀 없으며 형상전반에 밝고 발랄한 정서가 흘러넘치고있다.

시 《청포도》는 고향의 청포도에 시적계기를 두고 조국해방에 대한 념원과 기대에 대하여 노래하고있다.

...

하늘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돛 단 배가 곱게 멀리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손을 함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수건을 마련해두렴

이것은 모두 6개 련으로 되어있는 시 《청포도》의 뒤부분 4개 련이다.

시 《청포도》에서는 작품의 사상을 밝히는데서 기본적인치를 차지하는 《흰돛 단 배》를 타고오

는 푸른 옷을 입은 《손님》의 사회계급적본질과 투쟁내용, 사회적리상이 명확히 표현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조국해방에 대한 념원과 기대가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노래되는데 그치였다. 시형상의 이와 같은 특성과 제한성은 시 《광야》에서도 나타나고있다.

시 《광야》에서는 조국해방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초인》의 출현과 결부하여 노래하였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

시의 앞부분의 이 2개 련에서는 독특한 시적비유와 상징적형상을 통하여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나라를 많은 외적들이 침입해왔지만 한번도 굴복시킬수없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천명하고있다.

그러나 셋째 련과 넷째 련에서는 끊임없는력사적변천을 거듭하던 끝에 외래침략자들이 조국강토를 강점한데 대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지금 눈 내리고/매화향기 홀로 이득하니/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라는 시적묘사를 통하여 령혹한 식민지사회현실에서 꽃향기 풍기는 민족재생의 새봄을 그리는 서정적주인공-《나》의 절절한 심정을 보여주었다.

...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시의 기본사상은 작품을 마무리하는 이 다섯째 련에서 밝혀지고있다. 이 마지막련은 조국해방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갈망과 신심을 표현한 긍정면과 함께 해방의 옳은 방도를 제시하지 못한 제한성도 발로시키고있다.

시 《광야》의 사상적제한성은 무엇보다도 나라의 해방을 《백마 타고오는 초인》과 결부하여 노래한데서 드러나고있다. 그러면 백마를 타고오는 그 《초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추정이 있을수 있지만 《뛰어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그 《초인》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시 《광야》에서 《백마 타고오는 초인》

이라고 한것은 하나의 시적비유로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인물을 가리킨것으로서 반동적인 《권력의지》설을 제창한 실존주의철학자이며 과시즘의 사상적선구자인 니케가 말한 《초인》과 같은 의미를 가진것은 아니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백마 타고오는 초인》이라고 한것은 일반대중과 구별되는 특출한 인간을 넘두에 둔것임은 틀림없다고 볼수 있다. 이점에 바로 시 《광야》가 가지는 사상적약점이 있다.

시 《광야》의 사상적제한성은 또한 조국해방에 대한 지향과 기대를 표현하면서도 해방이 먼 후날에 가서야 이루어질것으로 노래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그것은 《다시 천고의 뒤에》라는 시구가 말해주고있다. 여기에는 시형상과 작시법에서 고려할 점도 없지 않다. 마지막련의 《다시 천고의 뒤에》라는 시구는 첫련의 《까마득한 날에》라는 시구와 대조를 이루고있으며 또 과장법이 사용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 시구절을 전적으로 시형상의 특성이나 작시법적인 문제로 돌려버리고 그 의미적내용을 무시할수는 없는것이다. 여기서 시구 그대로 매우 오랜 세월이 지난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라의 해방이 가까운 앞날에는 실현될수 없고 먼 뒤날에 가서야 이루어질것으로 간주한것은 명백하다.

리룩사의 시작품들에서 조국해방에 대한 지향과 미래의 행복한 생활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고 반일독립운동에 참가한 인물의 생활과 활동을 이러저러하게 묘사하면서도 민족해방투쟁에 펼쳐 일어난 인민대중의 형상을 창조하지 못하고 조국해방에 대한 확신과 전망을 뚜렷이 제시하지 못한것은 시인이 옳은 사상적관점과 계급적립장을 가지지 못함때로부터 나타난 제한성이다. 룩사는 민족주의자이면서도 사회주의에 대하여 일정한 호의를 가지고있었으며 외적에게 짓밟힌 조국에 대한 사랑과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지니고 반일독립운동에 헌신하였지만 과학적인 세계관과 정확한 전략전술에 의거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옳바른 투쟁의 길로 나가지 못하였으며 시창작에서 사상에술적인 약점을 발로시키였다.

리룩사의 시문학은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지만 민족수난의 가장 엄혹한 시기 식민지조선의 암담한 사회현실과 조선인민의 비참한 생활처지, 일제강점에 대한 저항정신과 조국해방에 대한 지향을 은유적인 수법과 상징적인 시형상을 통하여 반영하면서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사상적내용을 우회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한것으로 하여 해방전 현대문학사에서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고전시

변방으로 떠나는 노래 (외 1 편)

김 러 (?~1821)

새깃꽃은 격문한장 지난밤에 날아와
오랑캐들 침범했다 급한 소식 알리였네
건장한 군마들은 변방으로 내달리고
용감한 군사들은 요새를 지켜섰네

차거운 별무리는 비수끝에 번뜩이고
교묘한 달그림자 활동을 비쳐주네
오랑캐 무찌르고 변방이 안정되면
개성가 부르면서 서울로 돌아가리

군사의 노래

변방의 봉화불 온밤을 밝히더니
장수는 서둘러서 군사를 점검하네
둥실한 허리춤엔 쇠갑옷이 목직하고
날쌔게 노는 팔뚝 삼지창도 가벼우리

살기편 기운은 바다가에 차넘치고
음산한 바람따라 푸른 섬도 캄캄해라
대장부 나라위해 변방에서 숨겨두면
그 이름 길이길이 청사에 빛나리라

고전시

병사의 노래

리안놀

저문 해 북쪽 길에
세찬 바람은 갑옷을 뚫고 드누나

나라 위해 싸울 이 몸 튼튼하고
원췌 향한 이 기세 더욱 높다

말은 눈보라속을 달리고
매는 까마득히 구름우에 나는데

북쪽땅 싸움의 노래 부르며
서리빛 칼날을 웃으며 보도라

싸움터로 가는 러성제에게

박세당

장백산 줄기 뻗어
철령이 솟았는데
국경의 눈보라가
옷자락을 휩싸누나

나라 위해 공 세움
사나이의 할 일이라
그대에겐 보배로운
칼이 있지 않은가

가사

대홍단해병

자랑많은 해군댕기 펄펄 날리며
홍단벌에 달려온 어제날 해병
파도소리 해당화는 여기 없어도
감자꽃바다에 닻을 내렸대
라 대홍단해병
감자꽃바다에 닻을 내렸대

어뢰정을 몰아가던 그 숨씨런가
오늘은 준마처럼 프락푼모네
병사시절 위훈을 빛내어가며

감자꽃바다에 정이 들었대
라 대홍단해병
감자꽃바다에 정이 들었대

살기 좋은 대홍단벌 가꾸어가며
당의 뜻을 꽃피우자 약속했다오
그 동무가 해병이면 나는 갈매기
감자꽃바다에 함께 살리라
라 대홍단해병
감자꽃바다에 함께 살리라

김윤식

즐거운 바람이여 (외 1 편)

웨. 레베제브 쿠마츠
남해역

노래를 불러다오 즐거운 바람이여
즐거운 바람이여 즐거운 바람이여
높은 산 넓은 바다 너는 모두 지나왔고
이 세상 모든 노래 다 들어보았겠지

바람이여 불러다오 험준한 산악과
깊고깊은 바다의 신비경에 대한 노래
새들의 재미난 이야기에 대한 노래
용감하고 훌륭한 사람들에게 대한 노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이 노래를 부르자
락천적인 사람은 언제나 웃는다
소원하는 사람은 기어이 달성한다
탐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찾아낸다

바람이여 불러다오 영광과 용감성
학자들과 영웅들과 병사들에 대한 노래
우리 심장 활활 불타오르도록

자라나는 세세대 그 누구나
아버지들을 따라잡고 앞서나가고싶도록

노래를 불러다오 즐거운 바람이여
즐거운 바람이여 즐거운 바람이여
높은 산 넓은 바다 너는 모두 지나왔고
이 세상 모든 노래 다 들어보았겠지

노래를 불러다오 아름다운 곡조속에
이 땅의 모든 봄노래가 흐르도록
나팔소리 힘차게 울려퍼지고
사람들 흥겹게 따라부르도록
발걸음도 경쾌히 앞으로 나가도록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이 노래를 부르자
락천적인 사람은 언제나 웃는다
소원하는 사람은 기어이 달성한다
탐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찾아낸다

유쾌한 젊은이들의 행진곡

즐겁게 노래하면 마음이 흥겨워
절대로 갑갑증이 찾아들지 않는 법
그래서 농촌에서 노래를 즐겨하고
그래서 도시마다 노래를 사랑하네

노래는 벗처럼 부르고 이 끝기에
우리는 노래속에 창조하며 살아가네
노래를 부르며 인생길을 걷는 사람
언제나 어디서나 실패를 모른다네

앞으로 나아가자 공청세대여
익살과 노래속에 웃음꽃이 활짝 피라
우리는 이 땅의 젊은 주인들
공간과 시간을 정복해간다

우리는 모든것을 자기 손에 틀어쥐리
얼음의 극지대도 푸르른 저 하늘도
영웅이 되라고 조국이 명령하면
우리는 모두가 영웅이 되리라

힘겨운 투쟁과 로동속에서도
시름없는 아이마냥 노래하고 웃는다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거니
언제나 어디서나 굴함없는 사람으로

만약 원수들이 침략의 불을 질러
이 기쁨 이 행복을 빼앗으려 한다면
우리는 전투의 노래 높이 부르며
목숨으로 조국을 지켜 싸우리라

사계절이 모인 곳

여로부터 여름철마다 백두산마루에 오르면 한 곳에서 사계절을 다 볼수 있다고 하여 백두산마루는 사계절이 모인 곳이라고 일러왔다.

옛날 이 말을 귀에 익도록 들어오던 한 선비가 어느해 여름 백두산유람객들을 따라나서게 된 행운의 기회에 사계절이 모여있는 신비경을 기어이 보고오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그는 백두산마루에 오르는 첫 순간부터 사계절을 찾아 사방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한동안 자리를 옮겨가며 주위를 둘러보던 선비는 어느 한 봉에 올라 완전한 사계절의 절경을 보게 되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이미 들어온것이지만 정작 한곳에 서서 사계절의 황홀한 정경을 제눈으로 똑똑히 보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가 올라 선 봉은 오늘의 향도봉이었다.

향도봉에서 서쪽으로 내려다보이는 천지기슥은 푸른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바람에 흐느적거리고 키작은 무성한 관목들로 록음이 짙으니 무더운 여름철의 경치였고 흰눈이 덮인 북쪽골안은 바람에 눈가루를 날리어 설경을 펼치니 추운 겨울경치가 분명하였다.

그리고 양지바른 동쪽기슥은 고산지대인지라 늦게 피어난 꽃들이 울긋불긋 하여 봄경치가 완연하였고 발밑의 땅에는 까만 들쭉이 그대로 달려있는 마른 들쭉나무들이 설레이는것으로 하여 가을풍경이 력력히 엿보였다.

한자리에서 사계절을 둘러보면 볼수록 선비에게는 이 세상의 사계절은 이곳에서 차례로 시작되고 끝마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천지호반의 여름철은 제 계절인지라 네 활개를 펴고있는듯 하였고 동쪽의 양지바른 기슥의 봄철은 제 철을 끝내고 돌아오는듯하였으며 봉마루의 가을철은 자기 차례를 기다려 미리 올라와 대기하고있는듯 하였다. 그리고 북쪽계곡의 겨울은 자기 철이 아직도 밀었다고 마음의 탕개를 늦추고 깊은 잠에 들어있는듯 하였다.

《아, 우리 백두산은 분명 사계절이 모여사는 신비로운 곳으로구나!》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도 신통하여 선비는 숫구치는 걱정을 금치 못해하다가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삼촌에 진달래 보러
약산동대 가는 사람
장하에 더위 싫어
명사십리 찾는 사람
구추에 단풍보러 금강산을
툏는 사람
엄동에 설경보러 삼방으로
가는 사람
이렇게 조각경치 찾느라
수고말고
여기 백두산에 한번 올라
춘하추동 사계절
한눈에 안아봄이 어떠하리오

김정설